

박 사 학 위 논 문

디지털 필자의 문식 실행 연구

- 전문 블로거의 텍스트 생산과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김 지 연

2013년 2월

노 명 완 교수 지도
박 사 학 위 논 문

디지털 필자의 문식 실행 연구

- 전문 블로거의 텍스트 생산과정을 중심으로

이 논문을 교육학박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2월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김 지 연

김지연의 교육학박사 학위논문 심사를 완료함.

2012년 12월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이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필자가 텍스트를 생산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필자의 문식 실행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가 생산한 텍스트와 텍스트 생산과정에 대한 분석, 그리고 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식성 후원자(literacy sponsors) 및 배경 요소들의 작용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필자가 텍스트를 생산하고 소통하는데 어떠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지를 탐색하였다.

이 연구는 설문지, 심층 면담, 글쓰기 과정에 대한 스크린 촬영, 텍스트 분석, 관찰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근거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분석한 사례 연구이다. 먼저 문헌 연구와 사전 조사를 통해 전문 필자의 일정 조건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충족하는 연구 참여자 10여 명을 1차로 섭외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예비 면담과 설문을 진행한 다음, 최대 변인 표집을 통해 다양한 변인을 포함하기 위한 조정 과정을 거쳐 7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별하였다.

이 연구의 참여자인 전문 블로그 필자, 즉 전문 블로거들은 자신이 지향하는 좋은 필자의 모습을 설정하고 이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들이 설정한 좋은 필자는 그간의 교육과 경험을 통해 각기 개성 있는 모습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실시간으로 다수의 반응을 얻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매체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자신의 글을 읽는 독자들과 더 활발히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다양한 검증과 실험을 시도하고 있었다. 문자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글쓰기를 바라본다면, 이러한 필자의 텍스트 생산, 조정 과정은 교육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들은 기존 학교 교육에서 설정한 교육적 이상향과 직접 체험하여 설정한 경험적 이상향의 점이지대에 위치한 필자이며 부단히 갈등하는 필자로서 생애 필자의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또한 이제까지 학교에서 주로 학습해 온 인쇄 매체 글쓰기와는 다른 다양한 표현 수단을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글쓰기 환경에 처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매체와 쓰기 관습이 가진 전달효과와 과급력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의도치 않은 성취를 경험하며 제도권 교육에서 학습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글쓰기 경험을 쌓고 있었다.

매체의 발달은 필자의 능동적 참여와 실행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한 의

- 차 례 -

[illegible]

.	9
1	0
2	2
3	3
4	3
5	4
6	5

- i -

4 _____
 1) _____
 2) _____

. _____
 1 _____
 2 _____

. _____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 _____
 1 : _____
 2 : _____
 3 : _____
 4 : _____ , _____
 5 / : _____
 6 : _____ , _____

. _____
 1 _____
 2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8
 8
 6

8
 7
 9

2
 2
 2
 2

0
 2
 6
 2
 0
 2

2
 2
 6

1
 3
 0

- 표 차례 -

< 1 _____
 < 2 _____
 < 3 1 _____ ()
 < 4 2 _____ ()
 < 5 _____ ()
 < 6 _____ 8 _____
 < 1 _____ 2 _____ 10 _____
 < 3 _____ 8 _____
 < 4 _____
 < 1 ' ' _____
 < 2 ' ' _____
 < 3 ' ' _____

4
 8
 0
 6
 5
 3
 2
 8
 8
 0
 2
 2
 2

- 그림 차례 -

[	1	_____	3
[	2	_____	6
[	3	_____	7
[	4	_____	4
[	5	_____	5
[	6	_____	6
[	7	_____	9
[	8	_____	9
[	9	_____	9
[	10	_____	10
[	11	_____	10
[	12	_____	11
[	13	_____	11
[	14	_____	11
[	15	_____	11
[	16	_____	11
[	17	_____	11
[	18	_____	11
[	19	_____	11
[	20	_____	11
[	21	_____	11
[	22	_____	11
[	23	_____	11
[	24	_____	11
[	25	_____	11
[	26	_____	11
[	27	_____	11
[	28	_____	11
[	29	_____	11
[	30	_____	11
[	31	_____	11
[	32	_____	11
[	33	_____	11
[	34	_____	11
[	35	_____	11
[	36	_____	11
[	37	_____	11
[	38	_____	11
[	39	_____	11
[	40	_____	11
[	41	_____	11
[	42	_____	11
[	43	_____	11
[	44	_____	11
[	45	_____	11
[	46	_____	11
[	47	_____	11
[	48	_____	11
[	49	_____	11
[	50	_____	11
[	51	_____	11
[	52	_____	11
[	53	_____	11
[	54	_____	11
[	55	_____	11
[	56	_____	11
[	57	_____	11
[	58	_____	11
[	59	_____	11
[	60	_____	11
[	61	_____	11
[	62	_____	11
[	63	_____	11
[	64	_____	11
[	65	_____	11
[	66	_____	11
[	67	_____	11
[	68	_____	11
[	69	_____	11
[	70	_____	11
[	71	_____	11
[	72	_____	11
[	73	_____	11
[	74	_____	11
[	75	_____	11
[	76	_____	11
[	77	_____	11
[	78	_____	11
[	79	_____	11
[	80	_____	11
[	81	_____	11
[	82	_____	11
[	83	_____	11
[	84	_____	11
[	85	_____	11
[	86	_____	11
[	87	_____	11
[	88	_____	11
[	89	_____	11
[	90	_____	11
[	91	_____	11
[	92	_____	11
[	93	_____	11
[	94	_____	11
[	95	_____	11
[	96	_____	11
[	97	_____	11
[	98	_____	11
[	99	_____	11
[	100	_____	1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문식성이란 글을 배워 알고 이를 사회활동에 적용하여 지식과 정보에 접근·분석·평가·소통하여 개인과 사회의 문제나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노명완, 2007). 즉,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행하는 의사소통 전반이 문식성과 긴밀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국어교육은 사람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기능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어와 교육의 목표는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국어 활동의 맥락을 고려하여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문화를 누리면서 국어의 창의적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교육과학기술부, 2011)’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사람들이 말과 글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활동역(域)에 속하는 모두가 국어교육, 국어교육학 연구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다.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 행하는 일련의 문식 실행은 다양한 매체의 영향을 받는다.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달하고 의사소통의 수단인 매체(media)가 다양해지면서, 글과 말이 주를 이루던 우리의 소통 양식은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로 분화되고 확장되었다. 새로운 기기(device)가 확산될 때마다, 사람들의 의사소통 양상은 재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단일 양식 위주에서 복합 양식²⁾위주로 소통 양식이 변화

1)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구성된 기계적·전기적·전자적인 장치(국립국어대사전).
2) 복합양식 텍스트는 뉴런던그룹(New London Group)의 복합양식 문식성(multiliteracy)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1996년 <A Pedagogy of Multiliteracies>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이 말은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 등의 매체 환경의 변화로 인해 복합양식성(multimodality)을 갖게 된 텍스트와 이를 통한 문식 실행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이 연구는 필자가 생산한 텍스트에 대해서는 복합양식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분석할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복합양식 문식성을 단초로 시작한 신문식성 연구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하여 신문식성(New literacy)은 복합양식 문식성보다 개방적이고 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후 ‘문식성’이란 말은 인터넷, 디지털 기기, 뉴미디어 등의 ‘새로운’ 용어와 결합하여, 인터넷 문식성, 디지털 문식성, 미디어 문식성과 같은 다양한 합성어를 만들어 냈다. 본질적으로 복합양식 문식성과 신문식성은 현재의 달라진 문식환경과 문식 실행에 대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하는 것 역시 이러한 매체의 발달에 영향 받은 바 크다.

이렇게 다양한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의 의사소통은 새로운 방식의 의사소통 능력 역시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디지털 매체, 특히 디지털 글쓰기를 위해 필요한 새로운 사회의 질서를 아동과 청소년에게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Merchant, 2008). 그런 측면에서 현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활발하게 생산, 수용되고 있는 복합양식 텍스트와 이를 통한 소통 방식에 대한 논의는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매체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최근의 현상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변화의 속도가 더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란 점도 그리 어렵지 않게 예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고, 또 국어교육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이 연구의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시작한다.

문식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학계 전반에 걸쳐 문식성³⁾의 재개념화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문식성(New literacies)에 대한 연구가 199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시작되었으며, 초기 연구는 주로 문식성의 기본 개념과 성격을 논의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문식성의 사회문화적 성격을 논의한 박인기(2002), 최인자(2001), 비판적 문식성을 강조한 이재기(2001, 2004), 김명순(2003), 매체 언어와 미디어 문식성 분야의 김대행(2002), 정현선(2005), 윤여탁 외(2007), 최지현(2007), 옥현진(2008) 등이 그 예이다. 노명완·이차숙(2002), 박영목(2002, 2003), 최인자(2002), 정혜승(2008a, 2008b)은 확장된 문식성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문식성 교육의 큰 그림을 그리는 연구라 할 수 있다. 학계에서 역시 현실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인 것이다. 그러나 개념적 논의와 필요성에 대한 연구는 다각도로 시도되고 있지만, 실행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며⁴⁾, 대개 연구자의 직관에 따라 특정 장르, 또는

3) ‘문식성(literacy)’은 처음엔 문자 언어 행위(읽기, 쓰기)만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으나, 요즘엔 음성 언어 행위(듣기, 말하기)도 포함하여 통칭되고 있다. 이와 함께, 특정 단어와 결합하여 어떤 분야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지적 수준, 상식 수준, 소양 등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예를 들어, 모바일 문식성(mobile literacy)이란 말은,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서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모바일 사용 능력과 지식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문화적 복합문식성(multi-literacy), 신문식성(New literacy)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용어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

4) 이규만(2012)에 따르면, 최근 5년간 KCI등재 학술지 중 90년대 초반 이전에 간행되기 시작한 국

도구를 어떻게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의사소통 참여자들의 문식 실행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은 지금의 연구자들에게 놓인 당면한 과제이다.

이 연구는 새로운 문식 환경 속에서 텍스트를 생산⁵⁾하고 있는 전문 필자에 관한 연구이다. 볼터(Bolter, 2009)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후기 인쇄시대’라고 명명하며 이전과는 다른 공간에서 필자가 글을 쓰고 이를 소통하게 되었음을 역설하였다. 물론 지금까지도 책이나 잡지 등의 인쇄 매체는 여전히 가치 있고 위력적인 자료로 기능한다. 그러나 인쇄 매체는 이미 다양한 디지털 매체의 도전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과학적, 학술적 지식을 조직하고 제시하는 데에 더 이상 인쇄물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Bolter, 2009). 시간이 흐르면 서 한층 다양한 매체가 생겨나고 있으며,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매체를 선택하고 이에 더 적합하고 효율적인 표현 방식을 동원한다. 이렇게 매체가 발달할수록 텍스트를 생산하고 소통할 수 있는 범위와 영역은 점차 거대한 폭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확장된 디지털 공간에서 이뤄지는 필자들의 문식 실행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필자는 텍스트를 생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고 이를 점검한다. 오래 전부터 글쓰기는 ‘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받아들여져 왔다. 즉 글쓰기는 끊임없이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며 현재 상황을 평가하는 과정인 것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문제 해결자로서 새로운 상황

어교육관련 저명한 학술지 (국어교육, 국어교육학연구, 새국어교육, 한국초등국어교육, 국어교육연구)를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12년 초반까지 신문식성 관련 연구는 모두 66편이며 이 가운데 문식 활동을 관찰한 연구는 단지 6편뿐이라고 한다.

5) 이 연구에서 ‘쓰기/글쓰기(writing)’는 가급적 ‘텍스트 생산’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할 것이다(직접 인용과 기존 학술 용어 언급 시 제외).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환경에서 문식 실행을 하는 전문 블로거이다. 이들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문자 언어 뿐 아니라 이미지와 영상, 소리 등을 종합한 복합양식 텍스트를 생산해 내는 필자이다. 글쓰기는 글, 즉 문자언어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용어이므로, 이들이 생산해 내는 텍스트를 ‘글’로 표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블로그에 글을 쓰고 독자와 소통하는 운영 전반’을 ‘블로깅(blogging)’으로, ‘블로그에서 텍스트(post)를 생산하고 발행하는 것’을 ‘포스팅(posting)’으로 통칭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이제 사람들의 문자 의사소통 현상을 ‘쓰기(writing)’에만 담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을 읽어내고 이 상황으로부터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 과거의 경험을 이용하기도 하며, 어떤 목표를 성취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물론 이러한 일련의 글쓰기 과정에서 필자는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할 뿐 아니라,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이때, 더 능숙한 필자일수록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다양한 관계를 맺는 등의 사회적 활동과정을 거쳐 글을 쓴다(Flower, 1993). 즉, 글쓰기는 독자적인 행동이 아닌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이뤄지는 협력적인 실천인 것이다.

인터넷은 글쓰기의 상호작용성을 한층 확장하는데 기여하였다. 이것은 인터넷이 만든 가상공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독자들이 수동적인 위치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적어도 예전처럼 단편적인 수용자의 위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 콘텐츠를 배포하고 유통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었던 예전과 비교해 콘텐츠 소비자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대중에게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되었기 때문이다(명승은, 2008). 이것은 분명 이 시대의 읽기 쓰기가 갖는 특징이다.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서 발표한 <2011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78%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10대-30대 연령대의 사용률은 99%에 달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률은 이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99.9%로 조사되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인터넷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학생들도 인터넷 사용을 자연스러운 정보 습득, 친교 형성의 도구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인터넷 공간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는 행위가 낯선 풍경만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다양한 SNS⁶⁾들이 주목 받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실태를 반영하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소통되는 텍스트는 영상과 이미지, 문자가 결합된 복합양식 텍스트의 성격을 띤다. 크레스(Kress, 2003)는 복합양식적으로 ‘디자인’된 텍스트를 읽는 경로와 연속된 인쇄 텍스트를 읽는 경로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기’와 ‘말하기’의 차이로 보았다. 물론 읽기와 마찬가지로 복합양식 텍스트의 쓰기 역시 연속 텍스트와는 다른 양상을 띤다. 복합양식 텍스트에 대한 필자의 경험은 새롭게 생겨나

는 것이 아닌, 그들의 문화자본(Bourdieu, 1977)과 읽기 쓰기 자본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일례로, 어린 필자들이 책을 읽고 느낌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 글쓰기 안에 소리와 행동을 포착하는 등 다양한 표상 양식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독자와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글쓰기를 위해서는 어린이를 비롯한 복합양식 텍스트의 필자들이 이미 내적으로 지니고 있는 시각적, 청각적 경험을 어떻게 글쓰기 실행 맥락으로 들여올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공론화해야 한다(Evans, 2011). 분명한 것은 이렇게 전통적인 읽기, 쓰기 자체도 변화하고 있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기존의 읽기, 쓰기와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읽기, 쓰기가 급속도로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Lankshear et al., 2002).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읽기, 쓰기는 사회 각계에서 일어나는 세계적인 규모의 재빠른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Lankshear & Knoble, 2003). 물론, 이러한 변화에 교육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특히 의사소통 교육을 담당하는 국어교육이라면 이러한 변화는 면밀히 파악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

현재 공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일컬어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s)’이라고 지칭한다.⁷⁾ 이 말은,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게 길들여진 세대라는 의미다. 환경이 변하는 만큼, 그 안에서 생활하는 의사소통 참여자들 역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이주민(Digital Immigrants)’과 달리, 디지털 원주민들은 삶의 상당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디지털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점,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자신을 표현한다는 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하며 새로운 지식과 예술 형태를 창조한다는 점이다(Palfrey, 2008). 이렇게 21세기 학습자들은 컴퓨터, DVD, 비디오, 휴대전화,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과 같은 신기술을 활발하게 이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은 어린 학습자들의 활동에 영향을 주고 이들을 변화시킨다. 또 이와 같은 활동 변

6)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의 줄임말로, 사람들 간의 친교를 강화하고 이를 확장,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을 지칭한다.

7) Prensky(2001)는 1980-1994년에 출생한 세대를 특징지을 수 있는 말로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s)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그 이후 출생한 아이들의 경우도 이 범주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는 Tapscott(1998)의 넷 세대(Net generation)도 있다.

화는 학습자들의 읽기 쓰기에도 영향을 주어 이를 변화시키고 있다(Evans, 2011).

현재 어린 학습자들은 주로 인쇄 매체의 지면(page)이 아닌 화면(screen)에서 의미구성을 한다(Evans, 2011). 학교는 교육에 앞서 사회의 요구와 학습자의 현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교육 내용을 탐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디지털 텍스트의 생산, 소통, 수용 과정을 면밀히 살핌으로써 이들의 문식 실행 양상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들이 생산하는 텍스트의 특성은 예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이 차이에는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쳐왔는지에 대해 탐구해 보아야 한다.

이 연구는 과거와는 현저하게 달라진 디지털 환경에서 필자가 어떻게 텍스트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독자와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이전의 인쇄 텍스트로 소통하던 것과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필자의 문식 실행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탐구하였다. 또한 이러한 변인 각각의 구체적 모습은 어떠하며, 각 요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변인을 분석하기 위해 문식성 후원자(Literacy sponsors)의 개념을 부분 차용하였다.

문식성 후원자는 브랜드(Brandt, 1998)가 제안한 것으로서, 의사소통 참여자들의 문식 실행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인자들을 문식적 능력을 구성하는 ‘후원자’로 설정한 것이다. 이 개념은 문식성 발달에 미치는 주변 환경의 역할이 조명되며 등장하였으며, ‘문식성에 접근하는 길을 열어주고 문식성을 후원하고 가르치며 문식자(the literate)의 모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특정한 문식성 또는 문식 활동을 통제하고 억누르기도 하는,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얻는 주체(agent)’를 가리킨다(옥현진 & 서수현, 2011:65). 이렇게 문식성 후원자는 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적하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밝히는 데에 매우 유용한 개념이란 연구자의 판단 아래, 이 개념을 수용하여 본 연구의 분석 기제의 하나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밝혀낸 구체적인 문식성 후원자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추출하거나 교육내용을 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자는 이 연구를 위하여 디지털 텍스트 가운데 긴 글쓰기 매체로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는 블로그 필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블로그는 웹+로그(web+log)에서 파생된 말로, 콘텐츠(텍스트, 그림, 음성파일 등)를 가지고 간헐적으로 업로드 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블로그는 현재 SNS 가운데 복합양식적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연구자는 블로그 포스팅을 활발히 하고 있는 전문 필자를 섭외하여 그들의 글과 글쓰기를 관찰, 분석하고 그들의 문식 실행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도출하였다. 블로그에 대한 연구는 매스 미디어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나, 대개 정보의 확산성과 신뢰도, 또는 마케팅에 미치는 영향 등에 집중되어 있다. 국어교육학계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상황이며, 이 가운데서도 블로그 필자들을 복합양식 텍스트를 생산하는 실행자로서 바라보고 국어교육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블로그’로 검색한 결과(2012년 10월 현재), 국내 학술 자료는 약 3천 건(2,958건)이 검색되었지만, 이 가운데 국어교육 관련 논문은 20편이 채 되지 않는다(16편). 대부분의 경우 블로그를 활용한 수업 전략 측면에서 연구가 이뤄졌고 블로그 텍스트나 필자를 복합양식 문식성의 측면에서 본 연구는 김미혜(2008), 주민재(2011) 정도이다. 그러나 이들도 블로그란 특정 장르의 텍스트 분석에 머무름으로써 복합양식 텍스트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대안제시의 측면은 부족해 보인다.

이 연구는 복합양식 텍스트 생산자 가운데, 지속적으로 텍스트를 생산하고 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문 필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로, 이후 디지털 원주민을 교육하기 위한 디지털 필자의 문식 실천 양상에 대한 기초 실증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문제

이 연구에서는 전문적으로 블로그에 텍스트를 생산하는 필자⁸⁾를 대상으로 디지털 텍스트 생산과정에서 작용하는 배경 요소와 문식성 후원자를 추적하고 생산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를 위해 10여 명의 전문 블로거(Blogger)들과 사전 면담을 진행하였고, 이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선정한 7명의 전문 블로거들의 텍스트 생산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필자가 인식하고 있는 영향 요인과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 이들의 영향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디지털 필자가 생산하는 텍스트의 특성은 무엇인가?

1-1. 텍스트의 기호학적 특성은 어떠한가?

1-2. 텍스트는 어떻게 생산/유통/수용되는가?

이 연구는 지금의 글쓰기 공간이 단일 양식에서 복합 양식적인 모습으로 변화했다는 것(Bolter, 2009)을 기본 전제로 삼는다. 이러한 글쓰기 공간에서의 디지털 필자들의 문식성 실행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현재 생산/유통되고 있는 디지털 텍스트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에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그간 학자들이 밝혀 낸 디지털 텍스트의 특성과 분석 기준을 종합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 연구 참여자들이 생산하는 텍스트, 특히 블로그 텍스트에 적용할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디지털 필자들은 글의 생산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유통 역시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필자가 특정 플랫폼을 선택할 때 어떠한 고민을 하는지, 자신이 생산한 텍스트를 효과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무엇을 고려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이론적 검토는 II장에서, 이 연구를 통해 수집한 질적 연구자료 분석 결과는 V장에서 논의하였다.

8) 통상적으로 블로그 필자를 '블로거(Blogger)'라 일컫는다.

연구문제 2. 디지털 필자의 텍스트 생산과정은 어떠한가?

2-1. 텍스트의 내용 생성 과정은 어떠한가?

2-2. 텍스트의 내용 구성 과정은 어떠한가?

2-3. 텍스트의 내용 표현 과정은 어떠한가?

2-4. 텍스트의 내용 수정 과정은 어떠한가?

필자가 인식하고 있는 텍스트 생산 과정과 실제적으로 필자들이 실행하는 과정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복합양식 텍스트는 이전 인쇄매체 텍스트를 생산하는 과정과 비교할 때, 다양한 매체가 활용될 뿐 아니라, 복잡한 과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때 전문가 필자들은 이러한 매체를 어떻게 통제하여 자신들의 글쓰기 과정을 조정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캄타시아 7(Camtasia7)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텍스트 생산부터 수정, 발행까지의 과정을 스크린 촬영하였으며, 이를 시간별, 과정별로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그리고 이 영상을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해야할 과정에 대한 추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틀은 기존에 연구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자가 블로그에 적합한 틀로 수정 보완하여 제작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분석 과정, 결과는 VI장에서 상술하였다.

연구문제 3. 디지털 필자의 텍스트 생산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3-1. 디지털 필자를 나타내는 중심 현상은 무엇인가?

3-2. 디지털 필자의 중심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은 무엇인가?

3-3. 디지털 필자는 영향 요인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3-4. 디지털 필자와 영향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는 무엇인가?

앞선 연구문제 1, 2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문제 3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이 연구의 최종 목적은 디지털 필자의 문식실행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을 제작하는 것이다. 필자는 홀로 텍스트를 생산하지 않는다. 그들은 텍스트를 생산하기 위해 다양한 지식을 동원하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수많은 요소를 고려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은 크고 작은 모습으로 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를 문식성 후원자로 설정하고 질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꾸준한 동기와 흥미를 가지고 텍스트를 생산하고 있는 필자들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그들은 어떤 영향을 통해 지금의 자신을 구축하였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텍스트 생산에 임하는 필자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어떻게 선택하고 조정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 연구의 최종적인 목적이자 궁극적이다.

이를 위해 앞선 연구문제 1, 2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추가적인 심층 면담과 텍스트 분석을 진행하였다. 수시로 면담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삼각검증을 거쳐, 연구 참여자의 텍스트 생산물과 생산과정이 어떤 영향 요인들이 상호작용한 결과물이며, 앞으로의 텍스트 생산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그리고 이 결과를 패러다임 모형으로 정리하였다. 연구 과정 중에 수집한 모든 자료는 질적 연구 자료처리 프로그램인 엔비보10(Nvivo10)을 이용하여 정리, 분석하였다. 이 결과는 VIII장에서 패러다임 모형을 구성하는 조건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논의를 진행하였다.

II. 매체의 발달과 문식성의 변화

1. 과학기술과 매체의 발달

1) 매체와 의사소통 양식의 변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일컫는 말에는 인간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전제를 포함한다. 같이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서로의 생각을 전하고 받고 또 공유해야하기 때문이다. 면대 면을 통한 1:1의 직접적인 의사소통부터 인터넷을 통한 다대 다 익명의 의사소통까지 현대의 의사소통 양상은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과학기술과 그에 따른 의사소통 매체의 발달에 기인한다 할 수 있다. 의사소통의 양상은 듣기, 말하기에서 읽기, 쓰기로 확장되었고, 이제는 복합양식 텍스트(multimodal text) 소통방식에 걸맞은 새로운 읽기와 쓰기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이장에서는 먼저 이러한 문식성의 개념에 대한 변화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노명완(2012)은 말하기와 듣기, 쓰기와 읽기를 개별적, 사회적, 상호작용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말하기와 듣기, 쓰기와 읽기는 모두 의사소통 참여자 개인이 하는 언어 행위이고, 참여자들이 함께 서로를 향해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모두 개별적이고 사회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말하기와 듣기가 시공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쓰기와 읽기보다 사회적 측면이 강하며, 말하기와 듣기의 상호작용성은 상대가 만들어 내는 것이지만 쓰기와 읽기는 각자 ‘스스로 해석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기와 듣기의 상호작용성은 쓰기와 읽기보다 강하다. 즉, 쓰기와 읽기는 말하기와 듣기와는 달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기에 소통의 측면에서 강점을 갖지만, 이러한 탈시간성과 탈공간성으로 인해 한편으로 사회성, 상호작용성에서는 약점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듣기, 쓰기·읽기는 구어/문어 의사소통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쓰기와 읽기가 수행되는 공간은 앞선

시대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의사소통 역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재매개(Bolter, 1998)되어 작동하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은 글쓰기 공간(Bolter, 2001)을 변모시켰으며, 변화한 공간의 문자 의사소통(쓰기, 읽기)은 이제 더 이상 탈공간의 맥락으로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만의 ‘개별적’인 쓰기, 읽기를 하고 있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인터넷은 사람들이 수시로 접속하고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는 공동의 장(場)이다. 인터넷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다. 비근한 예로, 독자들은 ‘덧글(reply)’과 ‘위인 글(track back)’, ‘하이퍼링크(hyperlink)’ 등으로 글에 반응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점은 앞서 노명완(2012)이 지적한 문자 의사소통의 ‘사회성’과 ‘상호작용성’의 부족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변화를 이동후(2010a)는 ‘제3의 구술성’으로 설명한다. 새로운 매체의 언어적 표현 양식은 제1의 구술성, 문자성, 제2의 구술성 등이 각각 기반을 두었던 소리, 문자, 소리-영상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여 활용한 것이다. 기존에 활용되었던 말의 기술적 표현들을 디지털 공간에서 함께 다룰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상호 연결시켜 ‘언어’는 문자, 문자-영상, 문자-영상-소리, 문자-소리, 소리-영상 등 멀티미디어적 표현 형태로 전달되었다.

또한 ‘제3의 구술 텍스트’는 하이퍼텍스트성과 네트워크 연결성을 통해 인쇄 텍스트가 가졌던 선형성 및 고정성에서 벗어나 구술 전통의 유동성과 역동성을 부활시킨다. 이를 통해 텍스트의 교류가 거의 즉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구술 담화와 유사한 ‘지금-여기’의 상황성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적 텍스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라져 버리는 사건이 아니라 언제나 다시 상기해 볼 수 있는 기록이 되었다. 또한 제3의 구술 텍스트의 제작자와 이용자는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를 매개로 함께 현존한다. 그리하여, 제3의 구술 텍스트의 저자는 구술 담화의 구연자처럼 반응에 민감하며 상황과 밀접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이 현존감을 갖는 기반이 되었다.

이렇듯, 사람들의 의사소통 양상은 점차 다각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더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매체는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에 따른 의사소통의 양상과 사용 범위 역시 확대될 것이다. 국어교육계가 이러한 변화를 정확하게 감지하고 적절한 교육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2) 글쓰기 공간의 확장과 플랫폼의 발달

의사소통 환경의 변화 중 대표적인 것은 ‘글쓰기 공간(writing space)’의 확장을 들 수 있다. 이전의 소통 과정에서는 텍스트를 생산하는 데 한정된 매체를 사용하였으나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매체가 발달하면서, 우리가 글쓰기를 할 때 활동하는 사용역(域) 또한 확장되었다. 이러한 글쓰기 공간 변화를 ‘플랫폼(platform)’의 의미로 설명할 수 있다.

플랫폼은 ‘정거장’, 또는 ‘승강장’이란 뜻으로 통용되고 있다. 현실에서의 정거장이 갖는 특징은, ‘이용자’가 특정한 장소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고 그곳에는 승객을 태우기 위한 ‘운송수단’이 반드시 존재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두 요소(이용자, 운송수단)가 반드시 존재해야, 정거장이 정거장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정거장, 즉 플랫폼은 사람과 운송수단이 만나는 접점, 또는 사람과 운송수단을 매개하는 매개지점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김진영, 2012).

글쓰기 공간이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가상공간 안에 존재하게 되면서, 공간의 차원 역시 다양하게 분화되었다. 원래 플랫폼은 IT 분야에서 먼저 확산된 용어인데,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구조’란 의미망을 가지고 컴퓨터 운영체제(OS)와 같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이 구동될 수 있는 환경을 가리키는 말로 쓰여 왔다. 그러나 현재는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도 하나의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서비스 플랫폼의 개념이 나오게 되면서, 블로그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각각도 하나의 독자적인 플랫폼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이 말은, 그만큼 인터넷 공간이 다양하게 분과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각각의 플랫폼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음의 의미한다.

이러한 플랫폼의 발달은 텍스트 생산 과정 역시 변화시키고 있다. 광의의 의미로 본다면, 공책과 화선지 등도 하나의 텍스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전

에는 다른 플랫폼이라 구분하기 힘들 만큼 서로 재매개될 수 있는 상호 간의 공통분모가 매우 컸다고 한다면, 지금은 각자가 다른 시스템과 작동기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을 재매개하기가 쉽지 않다. 예전에는 공책이든 화선지든 종이에 필기구를 가지고 글을 쓴다는 기본적인 속성에 크게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의 플랫폼은 각자의 체계(system)와 틀(frame)을 구축하고 있고, 또 의사소통 참여자(user)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성(space)을 지녔으며, 그들의 상호작용성(interaction)에 따라 더 많은 참여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다양한 기능(module)과 양식(modes)이 생겨나거나 사라지고, 또 시도되는 모습도 보인다. 그 자체가 진화하는 유기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매체의 발달은 앞선 시대를 배척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전의 것과 겹치며 포개지며 안정적인 형태를 잡아간다. 이러한 특성은, 다양한 플랫폼의 발전에서도 유사하게 보이는 특징이다. 이에 대해 이성규(2009)는 블로그와 SNS 플랫폼이 역시 서로 배척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 서로의 기능을 껴안고 동질화 시키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⁹⁾ 그리고 이러한 속성은 향후 새로운 플랫폼이 생성되는 과정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플랫폼에서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주체는 결국 기존 질서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즉, 사회 구성원들이 소화해 낼 수 있는 재매개의 범위를 넘어서는 시도는 결국 폭넓은 호응을 얻기 힘들다는 말이다.

한 양식은 특정 매체와 그 매체가 소용되는 문화의 성격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양식에 대해 규정할 때에는 그것이 그 문화권에서 최적화된 양식인지, 아니면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기능하는 것인지를 잘 살펴야 한다. 말의 강도(intensity)를 조절함으로써 강조와 주의집중을 시키는 것과 같이 모두에게 통용되는 방식도 있다. 하지만, 색채, 음악 등과 같이 특정 문화권에서만 작동하는 장치들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양식을 사용할 때 주의해

9) 이성규(2009)는 한국에서의 콘텐츠 제작 톨이 '홈페이지→카페→미니홈피(싸이월드)→블로그'로 이동해 왔으며, 이것은 곧 '단절된 개인→공동체→제한된 공동체 지향 개인→공동체 지향 개인'이라는 진화의 흐름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야할 것은, 바로 의사소통에 사용하는 '언어'와 그 언어가 소통되는 '문화'라고 할 수 있다(Kress, 2009:67). 예를 들어, 트위터는 전 세계적으로 이용되는 마이크로 블로그 플랫폼이지만, 각 나라의 사용자들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해외 트위터 이용자들은 주로 정보를 얻는 데 쓰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인맥을 넓히는 도구나 친목을 다지는 도구로 사용하려는 측면이 강하다.¹⁰⁾ 이는 기존에 사용하던 SNS의 성향이 트위터까지 전이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플랫폼의 발달은, 우리의 의사소통의 공간이 먼 대면과 인쇄매체에서 인터넷 공간으로 확장된 것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인쇄매체의 쪽(page)과 화면(screen)은 보여지(display)는 장(場, sites)이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기능과 상호작용의 차이를 가져온다. 주잇(Jewitt, 2006)은 이 차이를 실제 교실에서 살펴보면, 이전의 고정되고 선조적이던 양식과는 달리 화면으로 구현되는 양식은 한층 역동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상황이 조성된다고 주장하였다. 그 안에서는 정보를 '전시'하는 이상의 작업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화면에서는 단순히 '보여지는 것' 이상의 것이 구현될 수 있다. 즉, 보여지는 것과 그것을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스콜론(Scollon, 1998)은 '보기(a watch)'라고 표현하며, 이를 단순히 보는 행위가 아니라, '보는 이들 서로 역동성을 주고받는 것'으로 재정의하였다. 이것은 반드시 먼대면의 의사소통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같이 다른 공간에서 '보는' 것으로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책과 화면 뿐 아니라 실세계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경험 속에서도 충분히 적용된다(Goffman, 1983). 다만, 그 참여자들이 어떤 매체를 통하느냐에 따라 각자의 행동유도성(affordance)과 제약(constraints)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물론 이것은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가 인간의 상호작용에 개입됨에 따라 다른 양태로 드러날 것이다(Kress & van Leeuwen, 2001).

텍스트의 변화는 매체(Media)¹¹⁾의 발달이 전제되었기에 가능했다. 과학 기술의

10)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트위터로 각종 '당'을 만들어 온·오프라인 모임을 운영하는 게 대표적인 예이다. 외국과 달리 트위터가 메신저와 인터넷 카페 역할까지 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팔로이(followee)들에게 맞팔을 요구하는 것도 우리나라 트위터 이용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꼽는다. (한국일보 2011-1-10)

11) 국어교육학계에서는 미디어(Media)를 매체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커뮤니케이션학계, 신

발전은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의사소통의 변화 역시 이에 정비례하여 속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매클루언(McLuhan, 1964)은 일찍이 ‘매체(Media)는 메시지다.’란 말을 주창해왔다. 매체의 변화는 곧 메시지의 형식을 결정하며, 그 달라진 형식으로 인해, 메시지의 표현 양상, 범위가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 양상을 ‘미디어 2.0¹²⁾’의 개념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다음의 <표 II-1>이다. 다음은 매체의 변화를 정리한 것으로, 각 시대의 변화 추이를 특징별로 살펴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매체 발달에 따른 텍스트의 변화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표 II-1> 미디어 1.0~3.0의 특징 비교 (명승은, 2003:30; Rosenbaum, 2011:18)

	Media 1.0 (매스미디어)	Media 2.0 (마이크로 미디어)	Media 3.0 (큐레이션 미디어)
메시지 생산 주체	생산자 ≠ 수용자	생산자 ↔ 수용자	생산자 ↔ 중개자 ↔ 수용자
메시지 수용 형태	수동적 수용	선택적 수용	적극적 수용
정보유통	일방향 단일 유통	다채널 복수 유통	쌍방향 다수 유통
브랜드	권위형 브랜드	개인형 브랜드	신뢰형 브랜드
정보흐름	정보집중	정보 분배·공유	정보 순환·누적
콘텐츠 성격	권위적, 범용적, 종합적, 객관적	즉흥적, 전문적, 단편적, 주관적	종합적, 해설적, 이타적, 합리적
정보노출	종합 편집·편성	단품 개별 유통	종합 수집, 집중 배열
유통방식	아날로그	디지털	
광고	규격화, 정형화, 대중 지향	롱테일 광고, 개인 지향	구독료 및 광고, 롱테 일 수익, 수익 포기·별 도 수익 기대

문방송학계 등에서는 미디어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참고 문헌의 인용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매체’란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12) 미디어2.0은 웹2.0의 맥락에서 파생된 용어로, 웹2.0과 마찬가지로 개방, 참여, 공유를 핵심 키워드로 삼는다. 즉, ‘미디어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메시지를 소비하고 개인이 만든 콘텐츠가 커뮤니티케이션 기관(언론사 등)을 거치지 않아도 유통될 수 있는 시대’의 미디어를 의미한다(명승은, 2008). 웹2.0 이후, 기존의 체제의 진화형태로 ‘2.0’을 접미사로 첨가하여 만들어진 신조어들이 다양하게 등장했는데, ‘미디어2.0’도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위의 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매체의 발전 단계는 미디어 2.0과 3.0의 과도기적인 단계로 볼 수 있다. 국어교육에서 매체가 중요하게 다뤄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미디어 1.0에서 2.0으로의 변화로 인한 것이다. 메시지의 생산 주체가 의사소통 참여자 전부로 확대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웹 2.0의 시대의 특성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매체와 의사소통 참여자, 그리고 메시지와의 관계는 이미 많은 학자들의 논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는 그만큼 의사소통과 매체의 관계가 밀접하고 또 상호 간에 깊은 영향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클루언(McLuhan, 1964)은 매체의 역사를 문자 이전 시대(구술문화), 문자 시대, 전자 시대로, 옹(Ong, 1982)은 제1 구술 문화, 문자 미디어 문화(인쇄술), 제2 구술문화로 구분했다. 또한 프라우리(Frawley, 1998)는 옹의 논의를 확장시켜, 언어/문자의 발달을 구술문화(orality), 문자문화(literacy), 상호문자문화(hyperliteracy)로 구분하였다. 노명완(2012) 역시 소통매개로서의 언어사용의 변천을 음성언어 중심소통, 문자언어 중심소통, 디지털컴퓨터 중심소통으로 설명하며 지금의 소통방식은 앞의 음성언어, 문자언어 소통과의 ‘선순환적 융합’과도 같은 모습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많은 학자들은 매체 기술, 언어, 사회의 관계에 공통적으로 주목하면서 지금의 시대는 분명 이전과는 다른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지금이 분명 문자 시대에서 한 단계 나아간 전자 시대의 특성을 띄고 있으나, 이전 구술문화의 특성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역시 지적한다.

이에 데브레이(Debray, 1992)는 매체 기술, 언어, 문화의 관계를 살펴 복합적으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매체의 구성 요소인 기록방식이나 미시적 세계가, 거시적 세계인 ‘매체 환경’에 상응한다고 주장한다. 매체가 새로운 것인 반면 매체 환경은 본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더불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차례대로 포개어진다는 것이다(주창윤, 2003, 재인용). 즉, 매체 환경과 의사소통의 변화는 패러다임의 혁명(Kuhn, 1962)과 같은 급격한 발전 형태가 아닌, 앞의 단계와 새로운 단계의 방식

이 쌓이는 누적적인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매체(new media)가 등장한다 해도 여전히 기존의 매체(old media)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매체 발달의 특징은 국어교육에서 역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미디어 생태학¹³⁾에 대한 관심은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매클루언의 ‘메시지로서의 매체(McLuhan, 1964)’는 매체를 기능을 가진 도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론적 구성 요소로 보는 시각을 함축한 표현이다. 매체 생태학적 시각이란 매체를 메시지 전달의 도구나 중립적 회로가 아닌 인간의 소통과 상호작용 과정을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하는 환경으로 보면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인간의 유기적 관계를 주의 깊게 성찰하는 것이다. 처음으로 미디어 생태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포스트만(Postman, 1979)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와 테크닉이 정보의 형태, 양, 속도, 분배, 방향을 어떻게 제어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보 구성 혹은 편향성이 사람들의 지각, 가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것(p.186)’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인간 감각의 확장’으로서의 매체, 인간 경험을 개념화하고 표현하는 ‘상징’으로서의 매체, ‘기존 매체와 상호 역학 관계’를 갖는 매체, 기기(device) 개념에서 벗어나 ‘인간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을 구조화하는 제도나 기법’과 같은 사회적 환경을 포함하는 매체 개념을 발전시켰다. 미디어 생태학은 매체 환경이 가진 구조적 특성 혹은 편향성(bias)에 관심을 두고 있다. 각각의 매체는 상징적 형태, 즉 정보가 제공되는 부호의 특성 및 상징이 결합되는 구조, 그리고 물질적 형태, 즉 정보를 전달하고 회수하고 저장하는 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련의 편향성, 예를 들어 지적, 정서적, 시간적, 공간적, 정치적, 사회적, 형이상학적, 내용적 편향성을 가질 수 있다.

이같이 매체의 변화는 글쓰기 공간을 확장시켰으며, 흔히 이야기하는 새로운 가상 공간(cyber space)의 생성은 플랫폼, SNS 등의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과 경로를 발달시키게 되었다. 그렇다면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수단의 변화가 텍스트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3) 이 논문에서의 ‘media’는 ‘매체’로 번역하여 기술하였으나 ‘미디어 생태학’과 같이 기존에 통용되고 있는 용어에 대해서는 ‘미디어’란 용어를 지켜 사용하였다.

3) 복합양식 텍스트의 진화

단일양식 텍스트와 복합양식 텍스트가 가지는 기호학적 특성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크레스와 반 리우웬(Kress & Van Leeuwen, 2011)은 복합양식을 ‘기호학적 생산물과 이벤트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 다양한 기호학적 모드를 사용하는 것(The use of several modes in the design of a semiotic product or event)(p.20)’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렇게 텍스트를 생산하고 배포하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은 표현역(域)과 표현 효과의 범위가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복합양식 텍스트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텍스트의 개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전에는 텍스트가 인쇄물의 한 구절이나 말의 일부분, 혹은 이미지를 뜻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책, 잡지, 신문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제 텍스트는 글로 쓰인 것 이외에도 말, 대화, 라디오 프로그램, TV 광고, 문자 메시지, 신문의 사진 등과 같은 ‘담론의 일부’로 여겨지고 있다(Lankshear et al, 2002, Evans, 2004). 2007년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각 영역별로 담화, 글, 작품, 언어 자료의 수준과 범위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담화, 글, 작품, 언어’는 텍스트를 영역별로 달리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텍스트는 ‘구어’ 의사소통이나 ‘문어’ 의사소통 같은, 단일 양식 텍스트의 관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의사소통은 복합양식 의사소통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 변화의 폭은 구어 중심에서 문자 중심 의사소통으로의 변화가 초래한 인간 역사의 급격한 변화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종래의 문자언어 중심 소통에서는 소통의 매체가 문자언어였다. 혹 문자언어에 약간의 그림이나 삽화가 곁들여진 경우가 있기는 하나, 그래도 중심 매체는 문자였던 것이다. 그런데 컴퓨터에 의한 다매체적 소통은 문자언어는 물론, 그 이전의 소통 매체였던 음성언어도, 그리고 선과 색까지 포함하는 영상 또는 동영상까지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서 더 나아가 주변 환경이나 맥락 속에서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모든 양식(modes)을 다 포함하고 있는(노명완, 2012) 것이다. 그리고 이같이 다양한 양식을 포함하고 있는 텍스트를 일컬어 ‘복합양식 텍스트(multimodal text)’라고 한다.

부연하면, 복합양식 텍스트는 하나의 텍스트 안에 문자, 음성,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기호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의미 구성에 기여하는 텍스트를 뜻하는 용어로, 어느 한 가지 형태의 기호로만 구성된 텍스트를 뜻하는 ‘단일양식 텍스트(monomodal text)’와 상대되는 개념이다. 디지털 텍스트들은 이러한 의미에서 복합양식 텍스트인 경우가 많다.(Bearne, 2004). 물론 기존의 인쇄매체 텍스트가 모두 단일양식 텍스트인 것은 아니다. 우리가 통용하는 텍스트들은 온전한 단일 양식 텍스트를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현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디지털 텍스트의 복합양식성이 이전의 인쇄매체 텍스트보다 더 확장되어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인쇄매체에서 구현할 수 있는 사진이나 그림, 또는 글자체와 지면 편집 등과 같은 인쇄매체 기반의 표현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디지털 매체에서는 음성과 영상, 하이퍼링크 또는 이를 결합한 새로운 방식까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관념을 표상하기 위해 여러 가지 표상 양식을 함께 사용한다. 말을 할 때 몸짓이 동반되거나, 어떤 관념을 소통하기 위해 그림을 사용하는 것 모두 우리에게 익숙한 일이다. 따라서 앞서 이야기한 문자언어 의사소통 시대 상황에서도 텍스트는 언제나 복합양식적 요소 혹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 글과 이미지의 두 가지 표상 양식을 결합해 만든 그림책은 어린이들의 읽기교육에 있어 오랫동안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각 사회가 가진 저마다 다른 기술은 책, 잡지, 컴퓨터 화면, 비디오, 영화, 라디오 등과 같이 의미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만들어 냈다.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표상 양식과 미디어의 결합은 읽기 쓰기(문식성, literacy) 개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Bearne, 2004).

크레스와 반 리우웬(Kress & van Leeuwen, 1996), 크레스(Kress, 2003), 길렌(Gillen, 2003) 등의 연구에서는 어린이들이 글자를 배우기 전에 나타나는 ‘그림으로 글쓰기’, ‘굵적이기로 글쓰기’, ‘글자 비슷한 형태로 쓰기’ 등의 발생적 문식성(emergent literacy)(Sulzby, 1985) 단계의 텍스트들에 대해, 어린이들의 언어 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복합양식 문식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인터넷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진과 글의 결합에 의한 복합양식 텍스트 현상이 단지 매체 텍스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의 일부로 이해될 수 있음을 설명하는 기호학적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앞서 말한, 인간의 의사소통의 변화가 급격한 패러다임 혁명에 의한 것이 아닌, 나선형의 누적적인 모습으로 이뤄지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옥현진(2008)은 양식(modes)에 대해 ‘물리적인 도구와 기호 체계를 이용해 사회 속에서 의미를 실현하는 독특한 방식’이라 정의하고, 사회 구성원들은 당대 사회에 주로 통용되는 물질과 기호 체계를 이용해 그 사회에서 용인되는 방식으로 의미를 구성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즉, 붓글씨 쓰기는 붓, 먹, 화선지라는 물리적 도구를 가지고 문자를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하나의 양식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수묵화 그리기는 같은 도구를 가지고 그림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또 다른 양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붓글씨 쓰기와 수묵화 그리기가 서로 다른 양식으로 구분되는 이유는 이 두 양식에 사용된 기호 체계가 의미 구성에 작용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한편 서화(書畵)는 이 두 가지 양식이 서로 결합하여 만들어진 또 다른 형태의 텍스트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양식에 대한 이해 위에 이들을 서로 결합하여 복합양식으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복합양식 문식성이라고 한다. 국어교육의 의사소통 교육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의사소통의 변화는 국어교육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기존의 문자언어 의사소통 위주의 교육 내용이 개선되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현재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어떤 복합양식적 텍스트를 생산, 유통, 수용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 분명한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2. 문식성의 변화

1) 복합양식 문식성과 신문식성

디지털 매체가 발달하면서, 이전의 구매체(old media) 소통방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교육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학문의 영역에서 역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문식성의 개념에 대한 다각적인 탐구와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확장된 새로운 문식성에 대한 다양한 용어와 그에 대한 정의가 발표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복합양식 문식성과 신문식성에 대한 논의를 들 수 있다.

먼저 복합양식 문식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패러다임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의 필자는 자신의 표현 목적과 대상에 따라 적절한 매체와 플랫폼, 표현방식까지도 스스로 선택하고 이를 조정하기 때문이다. 독자 역시 필자의 표현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복합양식 텍스트에 구현된 다양한 기호들을 해석하고 이해해야만 한다.

‘복합양식 텍스트(multimodal text)’와 ‘복합양식 문식성(multimodal literacy)’은 ‘복합문식성(multiliteracies)’에서 파생된 개념이다. 이 말은 다양한 텍스트가 어떻게 서로 다른 양식들(modes)의 결합에 의해 의미를 구성하는가에 대한 기호학적 관심을 반영한다(Kress, 2003; Jewitt & Kress, 2003). ‘복합문식성’이란 ‘소통 채널과 매체의 복합성’, ‘문화와 언어의 다양성 증대’, ‘텍스트의 복합성’, ‘지역 문화의 다양성과 세계와의 연결’, ‘강한 시민 의식’, ‘사회적 담론의 협상’ 등을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문식성으로 규정한 이론적 개념이다(New London Group, 1996). 뉴런던그룹(New London Group)의 논의로부터 시작된 복합문식성 교육에 대한 관심은 지금 우리에게도 역시 유효한 것으로, 학교에서 문식성 교육을 일차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역시 복합문식성 교육에 대해 숙고해야 할 시기가 왔다 할 것이다.

한편, ‘신문식성’이라는 용어는 학습자들이 문식성을 습득하는 환경으로서의 새로운 시대와 장소를 강조한다(Luke, 1998). ‘신문식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이

들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정보·지식의 실시간 공유를 통한 집단지성의 발휘를 지원하는 ‘웹 2.0¹⁴⁾’ 등의 발전(이동후, 2010b)으로 인해 오늘날의 문식 환경이 학교나 교실 상황 등 특정 공간에서 인쇄된 텍스트를 읽고 쓰는 장면에 국한되지 않고 오히려 학교 밖 문식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통적인 인쇄 텍스트 읽기 중심의 문식성 개념에 변화가 필요함을 주장한다(Knoble, 2001; Lankshear & Knoble, 2003).

이외에도 다각도에서 문식성의 재개념화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문식성의 개념이 더 이상 전통적인 의미, 즉 문자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생산하고 수용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게 되면서, 이제 문식성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메시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언가를 쓰는(writing) 행위로까지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컴퓨터 문식성, 네트워크 문식성, 테크놀로지 문식성과 같은 도구 문식성(tool literacy)과 정보 문식성, 매체 문식성, 비주얼 리터러시와 같은 표상 문식성(literacy of representation)(정현선, 2004)로 개념이 분화되는 것 역시 이런 움직임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논의들이 전제하고 있는 공통된 문제의식은, 현재 매체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들이 의사소통 참여자들의 문식 실행 양상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양상들은 더욱 다양하게 분화되고 발전하고 있다. 또한 학습자들의 문식 실행과 역시 학교 안팎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학교 밖 문식성의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것 역시 이런 시류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어교육계는 변화된 문식성의 개념에 맞는 교육과정의 영역의 개편과 교육 내용의 내실화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공유해야 할 것이다.

14) ‘웹 2.0’은 오라일리(O'Reilly, 2005)에서 구체적으로 소개된 개념으로, 특정한 기술이나 도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 경향을 나타내는 추상적 개념이다. 웹 1.0에서 한 단계 진화된 현상으로, 일방적 정보 노출이 아닌, 양방향의 정보 공유 형태의 웹 사용이 보편화되었음을 일컫는다. 이러한 웹 2.0의 대표적인 실천 사례로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용어가 소개된 이후, ‘문식성(Literacy)’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개념에 접미사 2.0을 붙여 ‘개방, 공유, 참여, 협력’을 더한 의미로 활용되는 사례가 속속 생겨났다. 후술할 ‘미디어 2.0’도 그중 한 예이다. 오라일리는 웹 2.0을 상술하면서 ‘플랫폼으로서의 웹’을 강조한 바 있다(플랫폼에 대한 기술은 1절 참고).

2) 행동 유도성과 재매개

새로운 의사소통 환경에서는 참여자들의 행동유동성이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행동유도성은 ‘어포던스(affordance)’의 번역어로 ‘어떤 행동을 유도한다.’는 뜻이다. 어원인 ‘어포드(afford)’는 본래 ‘~할 여유가 있다, ~하여도 된다, ~을 공급하다, 산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 인지심리학, 산업 디자인, 인터랙션(interaction) 디자인, 환경 심리학, 인공지능학 분야에서는 ‘서로 다른 개념을 연결하는 것’이란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다시 말해 물건(object)과 생물(organism, 주로 사람) 사이의 특정한 관계에 따라서 제시되는 것이 가능한 사용(uses), 동작(actions), 기능(functions)의 연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Bearne, 2004:48).

포터(Porter, 2002)는 자신의 작문사(史)를 돌아보는 내러티브 연구에서, 연필로 ‘예쁜 글씨’를 연습하던 순간부터, 키보드를 이용하여 글을 쓰는 지금까지의 모습을 자서전적 회고록의 방식으로 서술한 바 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전의 글쓰기 과정에서 작동하는 필자의 행동유도성은 ‘연필 사용’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매체를 거치지 않는 의사소통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행동유도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의사소통과 동시에 존재해왔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전의 행동유도성이 필기구와 관련된 기능 이상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이 다양한 매체가 글쓰기에 동원되는 상황에서는, 행동 유도성의 개념이 더 이상 단순한 도구 사용 기능만으로 설명하기 힘들 만큼 복잡한 층위를 갖게 되었다. 행동 유도성의 수준차이가 의사소통의 수준을 통제할 수도, 확장할 수도 있는 영향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비이네(Bearne, 2004:50)는 행동유도성이 갖는 현재적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술한다.

글쓰기가 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무엇인가, 혹은 소통을 쉽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글쓰기와 비교하여 이미지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려하는 문제. 예를 들어, 인쇄된 책을 읽는 것이 텔레비전에서 텍스트를 보는 것과

비교하여 가능하게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소설과 영화의 비교는 이와 같은 행동유도성과 관련된 쟁점, 즉 독자/관객이 해당 소설 혹은 영화의 서사와 관련하여 어떻게 위치 지워지는지를 밝혀줄 수 있다. 책을 읽는 독자는 무엇인가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문단들을 건너뛰 수도 있고, 읽기의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으며, 세부 사항을 확인하거나 서사의 흐름을 다시 살펴보기 위해 앞에서 읽은 페이지로 돌아갈 수도 있다. 물론 비디오를 보는 경우에도 ‘되돌아가기’나 ‘빠르게 감기’와 같은 장치를 사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건너뛰기’는 좀 어려우며, 이는 서사적 의미의 흐름을 방해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상물에서 세부 묘사는 시각적 이미지의 일부이기 때문에 묘사의 요소를 무시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영화는 책을 보는 것과 똑같은 독서 ‘행동유도’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유도성이 필요한 것일까. 이 연구는 지금의 국어교육이 구어 의사소통과 문어 의사소통의 단일양식 중심의 의사소통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복합양식 텍스트의 소통을 전제로 하는 매체교육으로서의 국어교육으로 재규정되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더 이상 필기구의 행동유도성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의사소통의 다양한 양태를 포괄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이다.

복합양식 텍스트의 생산은 재매개(remediation)의 개념으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Bolter, 2010). 재매개는 새로운 매체들이 앞선 매체를 대체하면서, 그 매체의 글쓰기 특징들을 빌려와 재조직하며, 그것들의 문화적 공간을 새롭게 형성한다는 의미이다. 재매개는 테크놀로지들 간의 문화적 경쟁 과정인데, 이는 과거에서부터 면면히 지속되어 온 과정이다. 예를 들어, 파피루스에 글을 쓰는 것은 귀퉁이 아니라 눈까지 관여시키면서 단어들에 현실에 대한 다른 요구를 부여해 줌으로써 구술 커뮤니케이션을 재매개하였다. 또한 르네상스 시기의 인쇄본들은 필사본들과 같은 시각적 공간을 제공하면서 대량생산이라는 이점까지 덧붙여 줌으로써 필사본을 재매개하였다. 그리고 컴퓨터는 구어 커뮤니케이션이나 시각 커뮤니케이션을 개조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컴퓨터 게임은 자신들을 ‘양방향 영화’로 디자인함으로써 영화를 재매개한 것이다. 가상현실은 영화뿐 아니라 원근화법을 재매개하였으며, 디지털 사진은 아날로그 사진을 재매개한 것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은 텔레비전, 영화,

라디오, 그리고 인쇄 같은 이전의 거의 모든 시각 텍스트 매체를 흡수하고 고쳐 만들고 있다. 또한 하이퍼텍스트는 우리가 인쇄매체와 앞선 글쓰기 테크놀로지에서 알고 있던 텍스트를 변화시켜, 문자 글쓰기를 공간적 글쓰기로 바꾸어 놓았다. 월드와이드웹에서는 인쇄된 책들에서 맞볼 수 있었던 것과는 다른 시각적, 개념적 공간을 이동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의사소통의 방식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이 과정의 주체는 ‘인간’이다. 재매개의 개념의 핵심은 디지털 매체의 발달이란 기계적 방식이 아닌, 인간적 방식의 발전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재매개는 이전의 방식을 ‘경의’하는 방식으로 쫓아가는 방식과 ‘경쟁’을 통해 이를 개선하는 방식의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된다(이재현, 2006).

재매개의 개념은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교육내용을 구성하는데 있어 학습자가 기존에 익숙하게 의사소통해 온 방식과 새로이 습득해야하는 방식에 대한 교차점을 정의하고 이를 교육에 적용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매체가 급속도로 발전하며 이에 따른 의사소통의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새로운 방식의 내부에는 이전의 의사소통 방식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온고이지사(溫故而知新)의 연구 방향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할 것이다.

III. 디지털 필자의 문식 실행

1. 디지털 필자와 독자

1) 디지털 필자의 텍스트 소통방식

디지털 필자가 실행하는 텍스트의 소통은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속에서 행하는 실천적 소통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종래의 음성과 문자에 의한 소통에서 강조되었던 시간성·선형성·순차성보다는 오히려 공간성·동시성·이미지성이 더 강조된다.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를 모두 포함하고,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도 모두 포함하며, 소통과 관련되는 상황과 맥락까지 포함하고 있어, 더 이상 종전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개별적 소통 용어로는 그 개념을 포괄적으로 드러낼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복잡하다. 또한 이러한 복합양식의 소통은 음성언어 중심 소통의 특징(대면성, 친숙성, 시공간 공유성, 사회성, 즉시적 상호작용성 등)과 문자언어 중심 소통의 특징(문자의 보존성, 내용의 추상성과 복잡성, 삽화 등 그림 자료의 활용성, 고등 수준의 사고 등)을 모두 살려 이를 효율적으로 융합시킬 수 있다. 그 이외에 소리, 색, 그림, 영상과 관련되는 정의적 측면의 특성도 활용할 수 있다(노명완, 2012).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공간에서 구현되고 있는 다양한 텍스트 가운데 블로그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디지털 필자의 소통방식에 대해 블로그와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블로그는 복합양식적 특성을 가진 대표적인 플랫폼이다. 블로그는 정해진 틀을 가지고 시간 역순으로 게시되는데, 독자들은 이러한 블로그 글, 포스트에 종종 댓글(comment)을 달기도 하고 특정 사이트 주소(URL)를 가진 글을 엮어 쓰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선호하는 블로그를 사이드 바에 게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블로그들의 집합체를 일컬어 ‘블로그스피어(blogosphere)’라 한다(Schmidt, 2007).

1인 필자가 운영하는 블로그는 웹상에서 개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만 한다면, 필자가 시간 순으로

자신의 생각과 글을 일목요연하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블로그를 통해 유사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도 있다. 블로그는 필자와 독자, 필자와 다른 필자 간 논의를 풍성하게 해준다(Ewins, 2005).

능숙한 필자는 글을 쓰기 위해 자신의 텍스트를 소통할 공간과 잠재 독자를 상정한다. 필자는 글을 쓰기 위해 기본적으로 문자를 습득해야할 뿐 아니라, 다양한 시대 관습을 익혀야만 한다. 한 필자가 텍스트를 생산하고 이를 유통하고 독자와 소통하는 일련의 과정은 저절로 이뤄지는 본능적인 행위가 아니다. 그 과정에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 그리고 사회 규약과 가치관이 개입된다. 필자로서의 정체성은 개인이 홀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실천의 장 속에서 주변의 의미있는 타자들의 영향을 받으며 이루어지기 때문이다(서수현, 2010:143). 즉, 필자를 둘러싼 다양한 영향 요인들이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고 균형을 잡으면서 하나의 텍스트가 생산되는 것이다.

세상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없이는 자아에 관한 지식의 발달을 가정할 수 없다. 자아와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어떤 의미를 제공한다.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을 안다는 것이 바로 자신을 아는 것이며, 이와 유사하게 자신에 대해 안다는 것이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이다. 현실세계에서 정체성이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대상(object)이기보다는 추상적인 감각 특성이다. 따라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하게 나타나는 개인의 역할이나 모습이 어떤 특성을 중심으로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되는 것이다.

특정 개인이 자신을 나타내는 이런 개념은 구체적인 사회 맥락 속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여러 모습들 중의 하나이다. 다양한 모습들에서 부차적인 속성들이 제거되고, 어떤 순수한 전형(prototype)으로 단순 명료하게 표현된다. 이런 표현은 하나의 명제(proposition)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인 대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비유가 “사고의 땀질(tinkering)”이다(Levi-Strauss, 1968; Piaget, 1952). 레비스트로스와 피아제는 각기 브리콜라지(bricolage)라는 행위를 예로 들면서, 마치 어린 아이나 원시인들이 여러 물건들을 이것저것 모으는 과정을 통해 추상적 개념이나 이론을 발달시키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구체적 대상들을 조작하거나 또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그 물건들을 통합하는 어떤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즉 추상적 개념은 논리적 추론으로 도출되기 보다는 구체적 대상들을 모으고 조작하는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관점이다(황상민, 1997).

구체적인 얼굴이나 목소리를 직접 경험하면서 이루어지는 현실 속의 사회관계는 만나는 사람을 단지 상징이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표현되지 않아도 보이는 수많은 단서들이 대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동시에 제공한다. 그러나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인간관계의 형성에서는 이런 외부의 부가적인 정보의 추출 및 활용가능성이 제한되어 있다. 인간관계란 스크린 상에서 나타나는 메시지나 이미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관계 자체가 상징적인 수준에 머물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상호작용에는 행위자와 대상의 구분이란 없다. 상호작용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모두 각기 행위자가 되면서 대상은 스크린 상의 이미지나 스크린 너머의 어떤 미지의 무엇이라고 상상하게 된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의 상호작용은 상호 공유하는 어떤 맥락이나 상징적 의미에 따라 정해진다. 정해진 기능이나 맥락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간의 공유된 의미 체계를 가지게 되고 각 개인은 이 공유되는 의미 체계를 기초로 서로의 관계를 즉각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심리적 측면을 더 쉽게 그리고 깊게 경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Gelder, 1985).

사이버 공간에서 교류 경험을 통해 개인은 다양하게 시험해 본 자신의 특성들 가지고 사고의 땀질을 하게 된다. 이런 경험은 현실 세계에서의 정체성 탐색이나 혼미의 경험과는 질적으로 다른 발달 결과를 유발한다. 만일 현실의 발달과정에서 개인이 다양한 사회적 맥락 가운데 자신의 경험을 확장시킬 수 있다면, 이런 경험의 효과란 자아 개념에서의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다양한 맥락 속에서의 안정적인 자기 모습이 바로 ‘자아’ 또는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회관계를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하는 청소년들에게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황상민, 1997).

자아 개념의 혼란은 앞으로 의사소통을 해나가는데 있어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새로운 글쓰기 환경에서의 필자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더 강

조될 수밖에 없다.

현재 글쓰기 공간에서의 글쓰기는 필자의 단독 작업이기 보다는, 능동적인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공동작업’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즉, 주저자가 있으며 같이 텍스트를 만들어 가는 ‘공저자’의 개념으로 이해해야하는 것이다. SNS가 발달하면서 독자들이 적극적으로 텍스트의 유통을 담당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제 더 이상 필자와 독자의 역할이 엄격하게 분리되지 않으며, 다함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수용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디지털 텍스트의 저작권에 대한 논란이나 소통 윤리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바르게 인식하고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것 역시 국어교육 연구자들이 해야 할 역할이자 의무일 것이다.

2) 디지털 독자의 텍스트 수용 방식

복합양식 텍스트는 독자들의 수용 방식, 즉 읽기 경로(reading path) 또한 변화시켰다(Bearne, 2004). ‘디자인된 텍스트’(양쪽 면에 펼쳐진 ‘펼침면’ 텍스트)를 읽는 경로와 연속된 인쇄 텍스트를 읽는 경로 사이의 차이는 ‘보여주기(showing)’와 ‘말하기(telling)’의 차이이다(Kress, 2003).

예를 들어, 이야기를 연속적인 인쇄 텍스트로 읽을 때 독자는 연속된 문장들을 통해 사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말을 듣게’ 된다. 반면에, 이미지를 읽을 때에는 공간 속에 놓인 이미지를 통해 어떤 생각이나 대상의 의미 관계를 ‘보게’ 된다. 연속된 인쇄물의 읽기 경로는 명백하다. 즉, 서구식 인쇄물의 경우에는 읽기 경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이동한다. 그러나 이미지, 텍스트의 덩어리, 활자체, 색깔 등이 책의 ‘양쪽 면에 펼쳐진 텍스트’의 읽기 경로는 그렇게 명백하지 않다. 비록 독자의 시선을 지시하는 서구적 텍스트의 관습이 어느 정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독자는 자의적으로 읽기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복잡한 그림 혹은 복합양식 텍스트에서 읽기 경로는 주변부와 중심부가 끊임없이 연관되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유로 포털(portal) 사이트의 기사들이 더 눈에 들어오는 기사 제목을 게시하고 더 화려한 디자인의 광고 배너를 매치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양하게 분산된다는 것은, 그만큼 글의 주목도를 유지해야하는 필자에게 더 다양한 전략을 요구하게 하는 것이다.

다양한 표상 양식으로 구성된 텍스트의 전체를 읽는 일은 더 복잡하다. 소설과 같이 연속된 인쇄 텍스트에서 주제의 연결은 언어의 반복, 암시, 추론 등을 통해 제시된다. 반면에 그림책에서 주제의 연결은 주로 이미지, 색, 모양, 그리고 페이지 위의 배치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합양식 텍스트의 읽기 방식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칠 때, 인쇄 텍스트를 읽을 때 언어의 의미를 추론하며 읽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는 재고해보아야 한다. 즉, 이런 복합양식 텍스트를 어린이에게 가르칠 때에는 그들로 하여금 언어로 이루어진 텍스트의 문장과 문맥을 읽게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이미지 너머에 있는 의미를 비판적으로 읽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지와 언어 사이의 관계 혹은 다양한 이미지들 사이의 관계에 의해 생성되는 의미를 묘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어휘를 발달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앞서 언급한 ‘글쓰기 공간’의 변화로 인해 촉발된 것이다(Bolter, 2010). 파피루스 두루마리, 코덱스, 인쇄 책, 인터넷과 웹, CD-ROM, DVD, 컴퓨터 RAM 등은 모두 글쓰기와 읽기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인터넷과 웹, CD-ROM, DVD, 컴퓨터 RAM 등은 현대의 글쓰기 공간을 의미한다. 인터넷 페이지의 이곳저곳을 구경할 때 우리는 ‘방문’하고 ‘여행’한다는 공간적 비유를 사용한다.

전자 글쓰기 공간은 텍스트가 보이는 컴퓨터 화면과 텍스트들이 저장되는 저장 메모리 모두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블로그의 글쓰기 공간도 마찬가지이다. 글쓰기의 기계화는 15세기 활판인쇄기와 함께 시작되었다. 인쇄기가 고전적인 글쓰기 기계라면, 컴퓨터는 기계화 시대를 넘어서는 글쓰기 테크놀로지를 구성하는 것이다. 고대와 현대의 글쓰기는 글로 된 생각들을 시각적인 공간에 배치하는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과학 기술이라 할 수 있다. 펜으로 양피지로 글을 쓰는 것은 인쇄기로 쓰는 것과는 다른 기술이기 때문이다. 다만, 글쓰기가 내면화됨으로 인해 이것을 과학 기술이라 인식하는 것이 힘들어졌을 뿐이다.

컴퓨터는 연상적인 링크를 더 수월하게 만들었다. 인쇄매체의 선형적인 성격은 인쇄된 책의 특성과, 그 특성을 어떻게 이용할지를 놓고 서구 작가들과 독자들이 해온 결정들 간의 부단한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이에 블로그를 비롯한 1인 미디어의 글쓰기 공간은, 기록과 자기표현의 목적에 더해 만남의 목적(정희진 & 김민정, 2005)도 갖게 되었다.

레빈슨(Levinson, 2009)의 ‘뉴 뉴미디어’에는 블로그, 마이크로 블로그, 유튜브, 위키피디아, 마이스페이스/페이스북, 세컨드라이프, 팟캐스트 등이 포함되었다. ‘뉴 미디어’의 이용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각종 시청각 콘텐츠를 검색해 이용하는 수준의 정보 소비자에 주로 머물렀다면, ‘뉴 뉴미디어’를 통해 모든 소비자는 생산자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뉴 뉴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매체로서, 매체 콘텐츠 이용이 단순히 소비와 생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활성화하며 사회적 관계의 유지, 강화,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뉴 뉴미디어의 커뮤니케이션 양식은 기존의 매체를 재매개하면서도 새로운 수준과 범위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였다.

메이로비츠(Meyrowitz, 1998)는 ‘매체 문식성(media literacy)’ 개념이 세 가지 다른 차원의 매체 이해와 활용 능력을 뜻하는 복수 개념임을 논의한 바 있다. 그것은 바로, 1)매체를 어떤 내용(content)을 전달하는 매개체 또는 회로(conduit)로 보는 관점, 2)매체를 언어(language)로 보는 시각, 3)매체를 환경(environment)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제 독자는 단순히 인쇄매체로 제작된 텍스트를 읽어내는 역할을 넘어 다양한 매체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유통에 참여하는 다각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주체로 변모하고 있다.

웹 2.0 패러다임의 확장은 개인의 단순한 참여 기능을 넘어서서, 개인이 생산한 정보를 바탕으로 타인과 끊임없이 정보와 지식, 의견을 공유할 수 있게 해 주는 기술적 표준의 확산을 가져오게 하였다. 따라서 웹 2.0의 전략에 기반을 둔 서비스들은 소수의 생산자에 의해 생산되는 값비싼 정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을 통해 이용자들의 정보 공유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 구축을 해 주고, 저렴한 비용에 정보가 생산되고 유통될 수 있는 모델을 추구하게 되었다(이호

영 외, 2007).

이같이 필자와 독자의 이해와 표현 방식의 변화는 의사소통 참여자들의 변화된 문식 실행의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국어교육에서 역시 이렇게 달라진 필자와 독자의 개념, 더 나아가 이를 통합한 필자+독자의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교육에선 전이력이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의 학습자들이 현실의 의사소통에 더 활발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시도와 모험의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학교는 아직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달시키지 못한 미숙한 학습자에게 ‘실패가 가능한 도전의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2. 디지털 필자의 문식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 디지털 필자와 문식성 후원자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탐색하고 이를 구조화하기 위해 문식성 후원자라는 개념을 일부 차용하였다. 이 절에서는 문식성 후원자에 대해 상술하고자 한다.

문식성 후원자는 브랜트(Brandt, 1998)가 제안한 것으로서, 의사소통 참여자들의 문식 실행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인자들을 문식적 능력을 구성하는 ‘후원자’로 설정한 것이다. 이 개념은 문식성 발달에 미치는 주변 환경의 역할이 조명되며 등장하였으며, 문식성 후원자란 ‘문식성에 접근하는 길을 열어주고 문식성을 후원하고 가르치며 문식자(the literate)의 모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특정한 문식성 또는 문식 활동을 통제하고 억누르기도 하는,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이익을 얻는 주체(agent)’를 가리킨다(p.166). 이렇게 문식성 후원자는 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적하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밝히는 데에 매우 유용한 개념이란 연구자의 판단 아래, 이 개념을 수용하여 본 연구의 분석 기제로 사용하였다.

브랜트(Brandt, 1998)의 연구는 심층 면담을 통해 성인 미국인의 문식성 실행

과정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 역시 심층 면담을 중심으로 하되, 텍스트 분석과 스크린 촬영, 연구자의 관찰 그리고 SNS 자료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브랜트는 인쇄매체 텍스트와 이를 중심으로 하는 문식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미국의 다양한 인종 구성과 계급 격차 등에 대한 통찰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미국보다 문맹률이 현저하게 낮으며 인종 구성이 보다 동질한 한국의 필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복합양식 텍스트와 디지털 미디어, 인터넷 등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전문 필자들의 문식성 후원자를 밝히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브랜트의 연구와 가장 큰 차이로 할 수 있다.

현재 국어교육 연구에 가운데는 문식성 발달 지원 양상에 대한 사례 분석 연구가 많지 않다(서수현·옥현진, 2011). 1980년대 이후 문식성 발달에서 사회문화적 배경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최근에 이르러서 사회문화적 관점(sociocultural perspective)은 문식성 발달을 이해하는 보편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PIRLS나 PISA와 같이 문식성과 관련된 국제 평가에서도 잘 드러나는데(Mullis et al., 2009; OECD, 2010), 이들평가에서는 공통적으로 한 학생의 성취를 가정, 학교, 지역 사회 등 다양한 요인들과 연계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문식성 후원자는 한 개인의 문식성 발달을 돕는 주체와 그 주체의 역동성을 포착하는 데 매우 유용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주체들은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으며, 그 실체가 분명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이 주체들이 문식 후원 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은 금전과 같이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것일 수도 있고 후원자와 후원 받는 이(the sponsored) 사이의 유대 강화와 같은 무형의 것일 수도 있다.

문식성 후원자는 문식성 연구자인 브랜트가 20세기의 미국인들이 평생에 걸쳐 어떻게 문식성을 습득하고 발달시켜 나갔는지 연구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개념으로서, 그녀의 연구에 참여한 이들이 언급한 가장 전형적인 후원자는 나이가 위인 친척, 교사, 성직자, 직장이나 군대의 상급자, 영향력 있는 작가 등이었다. 그러나

후원자가 꼭 특정 인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20세기 초반의 경우에는 교회의 주일학교, 그리고 대중문화가 널리 보급된 20세기 후반에는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신문 등도 문식성 후원자의 개념에 포함된다.

1980년대 이후 한 개인의 문식성 발달에 미치는 주변 환경의 역할이 조명되면서 그동안 문식성 후원자와 비슷한 맥락에서 가족 문식성(family literacy), 커뮤니티 문식성(community literacy), 지적 자산(funds of knowledge, Moll et al., 2001) 등의 개념이 논의되어 왔다. 우선 가족 문식성과 커뮤니티 문식성은 문식성 발달을 돕는 조력자 또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문식성 후원자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적 자산은 ‘가정이나 개인의 사회적 역할이나 복지에 꼭 필요하며 역사적으로 축적되고 문화적으로 발전되어 온 지식과 기능의 덩어리’(Moll et al., 2001:133)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문식성 후원자들 중에서 특히 가정이나 지역사회의 문식성 후원자들이 문식 후원활동을 위해 활용하는 정신적 도구, 또는 문식 후원 활동을 통해 후원 받는 이에게 전수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브랜트는 일련의 연구에서 성(性), 계층, 지역, 민족, 직종 등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이력을 가진 이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이들의 문식성 후원자들을 분석하였다. 한 예로 그녀의 연구에서 소개하고 있는 레이몬드(백인 남성)라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로페즈(멕시코계 여성)라는 청소업체 직원의 사례는 문식성 후원 양상이 후원 받는 이의 어린 시절부터 직업 선택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다.

전자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는 대학교수의 아들로서 PC가 드물었던 1970년대에 이미 아버지의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경험했으며, 1980년대에는 집에서 자전거로 갈 수 있는 거리에 등장한 컴퓨터 가게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었다. 반면 후자는 텍사스의 한 국경 도시에서 농장 노동자의 손녀로 태어났으며 나중에 멕시코 계 주민이 1%도 안 되는, 그리고 스페인어로 된 신문을 잡지를 구하려면 70마일이나 떨어진 가게까지 가야 하는 중서부의 한 도시로 이주했다. 그녀는 여기에서 책 가게 점원으로 일하

던 어머니가 직원 할인가로 구입해 준 멕시코와 남미 소설을 읽고 스페인어를 독
학했으며 그 덕분에 현재 근무하는 청소회사에서 틈틈이 사장과 직원들 간에 통
역을 담당하고 있다.

위의 예에서 보듯 문식성 후원자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문식성 습득 및 발달의
다양한 경로와 그 경로상에 등장하는 후원자들을 추적해 본다는 차원을 넘어 서
로 다른 수준으로 나타나는 후원의 힘(different degrees of sponsoring power,
Brandt, 1998:172), 즉 문식성 후원의 질과 양이 후원 받는 이의 문식성 발달의 양
상과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둔다. 또한 후원자의 문
식 후원 활동은 후원자와 후원 받는 이의 사회적 지위, 당대의 사회 구조, 지금
당장 또는 미래 사회에서의 요구, 그 밖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고려
속에서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어떠한 판단에 따라 어떤 문식 활동이 권장
되고 또 어떤 문식 활동이 금지되는가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브렌트의 후원자 개념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으나, 그녀가
주로 수행해 온 일련의 연구들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
선 브렌트의 연구는 20세기를 살았던 성인들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
문에 문식성의 초점을 인쇄문화와 전통적인 읽기·쓰기에 두고 있다. 반면 이 연구
에서는 탈인쇄문화 시대, 또는 디지털 시대의 문식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지향하
고 있다. 또한 브렌트의 연구가 한 개인의 평생에 걸친 문식성을 회고하는 긴 호
흡의 연구라면 이 연구의 대상은 전문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필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만큼 연구의 범위가 좁으며 분석의 단위나 다루는 문식 사건 역시 보다
미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브렌트의 연구에서는 면담을 통해 연구 대
상의 내러티브를 듣는 형태로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으나, 이 연구에서는 텍스트
와 작문 과정 촬영, SNS 분석 등 면담이외의 여러 자료도 함께 수집하여 삼각측
정(triangulation)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 문식성 후원자 및 영향 요인의 조정과정

필자는 글쓰기 과정에서 매체와 환경의 다양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 과정
에서 다양한 자신의 능력을 동원하고 이를 조정하여 텍스트를 생산하는 글쓰기의
주체(이재기, 2006)라 할 수 있다. 이 연구가 전문 필자의 문식 실행을 다각도로
탐구하고 고찰하고자 의도한 기본 전제는 이렇게 필자는 글쓰기의 주체적인 존재
로서 문식 실행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주체라는 관점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렇다면, 디지털 필자가 텍스트 생산과정에서 동원하는 능력은 어떠한 것이 있
으며 그것은 글쓰기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 것일까.

사피로와 휴즈(Shapiro & Hughes, 1996)는 정보화 사회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문식성을 크게 일곱 가지 차원으로 소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Shapiro
& Hughes, 1996:4-5).

- 1) 도구 문식성: 현존하는 하드웨어의 특성을 알고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줄 아는 능력
- 2) 정보 문식성: 필요로 하는 정보-특히 네트워크 기반의-의 저장 장소 및 존재
형태에 대해 이해하고 그 정보에 접근 하는 능력
- 3) 사회구조적 문식성: 어떤 정보가 어디에 위치하고 또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이해하고 찾을 수 있는 능력, 또한 정보를 조직하고 유통
하는 것에 대한 이해와 능력
- 4) 연구 문식성: 연구에 필요한 자료 정리 프로그램 등을 잘 알고 사용할 수 있
는 능력, 여기에는 연구 주제에 따른 적합한 연구 방법과 필요
한 도구를 아는 능력도 포함됨
- 5) 출판 문식성: 아이디어나 연구의 결과를 전자적·멀티미디어 텍스트로 출판할
줄 아는 능력
- 6) 신생 기술 문식성: 새로운 정보 기술을 수용·이해·평가·적용할 줄 아는 능력
- 7) 비판적 문식성: 비판적으로 현상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 여기에는 역사적,
정치적, 사회비판적, 문화적 관점을 포함한다.

옥현진(2010)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글쓰기 연구를 통해, 이중 1), 5),
6) 항목의 경우, 컴퓨터 글쓰기가 제공하는 행동유도성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함으
로써 상당 부분 길러질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물론 다른 능력 역시 글쓰기

과정에 작용하며 실제 더 뚜렷하게 발현되는 것과 글쓰기 과정에서 향상되는 것들이 각기 다르게 존재한다.

이같이 필자는 일방적으로 환경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 자신이 가진 배경지식과 스키마, 행동유도성 등을 통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식성 후원자 및 영향 요인을 적절히 조정하고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음 장부터에서는 그러한 필자의 문식 실행 양상을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논증하게 될 것이다.

IV.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스펀링과 프리드만(Sperling & Freedman, 2001)이 주장한 바와 같이, 질적 연구는 최근 작문과 작문 교수에서 실험 연구를 대체하는 새로운 조류로 자리 잡고 있다.

필자 개인에 대한 관심과 그들이 생산해 내는 개별 텍스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필자와 주변 사람, 독자와의 상호작용적인 관계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서(Dyson, 1988, 1989; Lensmire, 1994; Schultz, 1997), 소수의 필자를 연구하는 사례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필자 또는 그룹의 글쓰기 과정에 대한 관찰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텍스트를 분석하는 방법은 텍스트 생산물의 복잡성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Shultz, 2006). 현대의 필자들이 시각화된 복합양식 텍스트를 널리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쓰기 과정과 결과물은 한층 복잡하고 정교해졌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필자들이 매체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들의 작문에서 드러나는 복합양식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Jewitt & Kress, 2003; Kress, 2001, 2003).

이 연구는 이러한 작문 연구의 흐름 가운데 있으며, 이 가운데서도 필자의 복합양식 텍스트 생산과 소통에 영향을 주는 배경 변인과 영향 요소에 관심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 사용한 ‘근거 이론(grounded theory)’은 데이터로부터 이론을 발견해 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연구 데이터를 통해 최초의 체계적 이론의 발견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 방법이다. 이를 위해, 개별 필자의 글쓰기 과정과 텍스트 생산물에 대한 질적 관찰과 분석을 통해 교육적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더 나아가 패러다임 모형의 구축을 통해 이를 이론화 하였다.

1. 연구자

연구자는 현재 학부 국어교육과를 입학하여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하기까지 15년 간 국어교육학을 공부하고 있다. 화법교육 전공으로 ‘말하기 준비도가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러한 화법 교육 영역에 대한 관심은 박사 과정에서 연구를 하면서 신문식성(New literacies)에 관심을 갖고 이 분야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크게 도움이 되었다. 의사소통의 발달은 단계적이 아닌 누적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복합양식 텍스트(mutimodal text)의 속성은 문자 언어 의사소통 뿐 아니라, 구두 언어 의사소통의 특성과도 상당 부분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Debray, 1992).

연구자는 학문 분야의 활동과는 별개로 10여 년째 개인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 참여자들과 유사한 조건을 갖춘 전문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다. 스마트폰 유저이며, 페이스북 북과 트위터¹⁵⁾ 계정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를 섭외하고 이들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며 자료를 수집하는데, 이런 수행 경험과 실행 배경은 많은 이점으로 작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과의 라포르(rapport)는 평균 3년이다. 전문 블로거로서 공적 영역에서 지속적인 만남을 해왔던 관계로서, 이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부터 연구자는 동료이자 독자로서 연구 참여자들의 글을 주기적으로 구독해왔다. 그러나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로 그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자리매김한 이후 차별된 관계설정을 위해 노력했으며, 학문적인 분석틀을 사용해 그들의 생산물을 분석하고 심층 면담을 진행하는 연구 기간(약 1년 8개월) 동안 그 거리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거리두기를 하는 한편으로 가능한 한 이들과 사적/공적으로의 원활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질적 연구에서는 무엇보다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유대가 중요하고, 이것이 심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¹⁶⁾ 궁극적으로 라포르는 스프래들리(Spradley, 1979)가 주장한 것처럼 “정보 제공자들이 그들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라포르는 종종 현장에서 우정과 바뀌 사용되기도 하나, 이 둘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연구자는 이 점을 고려하여 블로그를 운영하지 않는 박사 학위 소지 이상의 국어교육학 전공자들과 매체 교육 분야 연구자 그룹, 매스미디어 전문가 그룹에게 지속적인 검토와 조언을 받음으로써, 현장 활동가와 연구가의 시점을 공평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처럼 연구자는 전문 블로거인 본인이 자신과 유사한 입장의 대상을 연구하는 것이 자칫 개인적인 문제로 귀결되지 않을까 경계해왔다. 글레스네(Glesne, 2006)은 연구자에게 있어서 “감정적인 애착은 좋은 자료 수집과 분석에 반드시 필요한 개방적이고 탐색적인 학습자로서 태도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연구자가 그들의 상황을 잘 아는 ‘원주민’의 입장(Tedlock, 2000)에서 연구를 시작했다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었다. 그리하여 기존에 연구자가 숙지하고 있던 참여자들에 대한 정보는 가능하면 재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해 애썼다. 그리고 면담의 질문지를 작성하고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꾸준히 국어교육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한 결과물을 연구 참여자에게 재확인 받는 작업을 거쳤다. 이것은 연구 참여자가 성인이며 해당 분야 전문가이기에 가능한 부분이었다. 이러한 작업은 이 연구의 삼각검증의 한 과정으로서 기능했다.

15) 트위터는 2009년 11월 3일 가입했으며, 통계 프로그램인 트윗 매니저로 확인한 결과, 연구자의 경우 전 세계 트위터 사용자 중 8천만 번째 가입자로 기록되어 있다. 연구 대상이 되는 매체와 플랫폼에 익숙한 행동유도성이 높은 연구자라는 사실은 복합양식 텍스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16) 이에 대해 프레일리히(Freilich, 1977)는 연구자가 “연구에서 요구되는 유형의 자료를 얻기 위해 사람들과 상황을 ‘교묘하게 계획’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2. 연구 절차

이 연구는 질적 연구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이 방식은 특정 현상 및 연구 주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하여 자료를 수집한 다음, 이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종합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어떤 현상의 함의하고 있는 의미를 도출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질적 연구는 본래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편견과 연구방법 상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궁극적으로 보편성을 띄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대상자, 연구 자료, 연구자의 다각화를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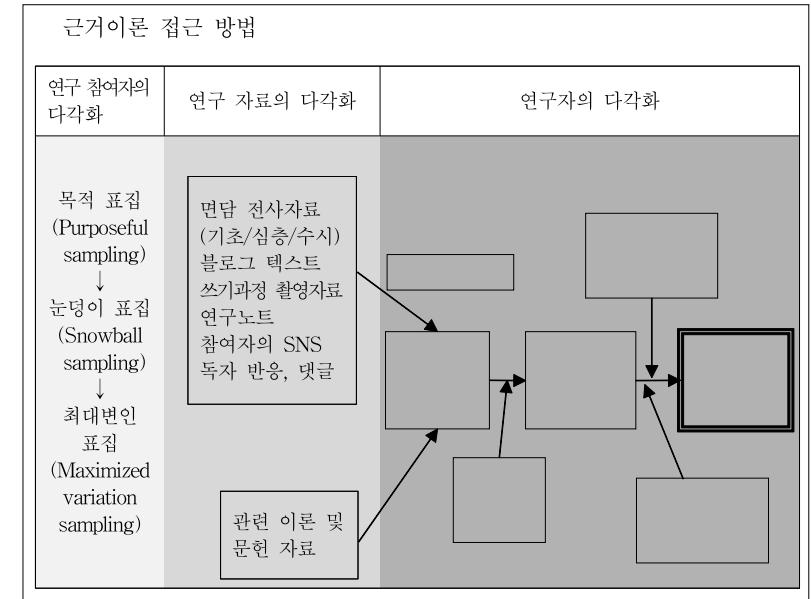
연구 참여자의 다각화 측면에서는 연구에 가장 적합한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3단계의 표집과정을 거쳤다. 다양한 후보자를 탐색한 후 개별 면담 기회를 가졌으며, 이를 통해 최종 7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소수의 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연구가 가져올 수 있는 제한점을 완화시켜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초/심층 면접 질문지, 전사 자료와 같은 문서화된 자료 뿐 아니라, 면담 실시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언어/비언어적 행동, 면담 당시의 주변 상황, 연구 참여자들의 감정 상태, 과정상의 분위기 등과 같은 현장 자료를 기록하여 연구 자료의 다각화를 도모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가 수시로 작성하여 송출하는 SNS도 적극 활용하였다.

텍스트 분석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합의를 통해 대표성 있는 텍스트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연구 진행과정에서 생성, 수집된 자료들의 해석은 국어교육 전문가 집단에 검토를 의뢰하여 연구자가 해석한 사항에 대해 검증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집한 자료와 정보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았다. 이러한 검토, 해석 결과는 참여자들과 수시 면담을 통해 재확인 과정을 거쳤으며(Decrop, 1999),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분석 결과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다각화를 통한 삼각 검증을 통해 자료 조사 및 분석을 거친 결과, 전문 블로거의 문식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문식성 후원자 항목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패러다임 모형을 구조화하였다.

본 연구는 2011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1년 8개월간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수행 체계와 일정은 아래 [그림 IV-1], <표 IV-1>과 같다.



[그림 IV-1] 연구 수행 체계

<표 IV-1> 연구 일정

연구 기간	연구 과정	비고
2011. 2월 ~ 6월 2011. 6월 ~ 8월	목적표집을 통해 1차 연구 참여자 선정 면담 1차, Snowball 표집을 통한 2차 연구 대상 선정	
2011. 8월 ~ 2011. 12월	블로그 텍스트 수집, 심층 면담 진행	
2012. 1월 ~ 4월	SNS 분석, 가족과 지인 면담, 최대 변인 표집을 통한 3차 연구 대상 확정	
2012. 5월 ~ 8월	텍스트 생산과정 촬영과 분석	
2012 8월 ~ 10월	최종 분석 텍스트 확정 후 텍스트 분석, 최종 심층 면담 진행	

3. 연구 대상 선정

질적 연구에 있어 연구 대상의 선정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연구 대상의 적합성이 곧 연구의 정당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근거 이론에서 최대 변인 표집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Strauss & Cobin, 1990). 타당한 이론화를 위해 연구자는 가능한 현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표성을 가진 필자를 섭외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목적 표집과 최대 변인 표집 방식을 정교하게 조직하여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다.

1) 연구 대상 텍스트 선정

이 연구는 디지털 필자의 문식 실행 양상과 이에 작용하는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이다. 이 연구를 위하여 디지털 텍스트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온 전문 필자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먼저, 디지털 텍스트 생산자 가운데 연구 참여자로 가장 적절한 장르의 필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양한 장르에 대해 검토하였다. 본격적인 장르 선택에 앞서, 고려했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조건 1.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환경에서 생산, 유통되는 텍스트일 것
- 조건 2. 지속적으로 텍스트를 생산해 온 전문 필자가 조성된 장르일 것

이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복합양식적 표현이 가능한 플랫폼에서 생산된 장르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원고지 글쓰기나 형식이 정해져 있는 환경의 글쓰기 장르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복합양식 텍스트를 구현할 수 있는 PC 환경이라 하더라도, 출력을 전제로 하는 장르 역시 배제하였다.¹⁷⁾ 다음으로 웹 2.0 시대의 글쓰기 공간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조건을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 생산자와 수용자가 다채널로 소통이 가능한 인터넷 상의 글

17) 복합양식 텍스트는 지면으로도 충분히 구현 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초등학교생들의 그림일기를 연구한 옥현진·서수현(201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지면에서 표현될 수 있는 복합양식적 표현의 경우, 그림이나 사진 등으로 제한되어 영상이나 소리 등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유추하기는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현재 가능한 복합양식을 최대한 구현할 수 있는 장르를 찾고자 하였다.

쓰기를 대상[조건 1]으로 삼았다. 이 연구의 전제인 ‘글쓰기 공간의 변화’를 초래한 가장 큰 동인은 바로 인터넷의 출현이기 때문이다.¹⁸⁾

추가적으로 필자의 자유로운 표현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하였다. 분량이나 시간제약, 데이터 저장 용량 등이 가장 자유롭고 유동적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해야만 기존의 책이나 잡지, 또는 긴 글쓰기와 비교/대조점을 더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바일 기반의 트위터나 미투데이 등의 마이크로 블로그, 그리고 단문 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페이스북과 미니홈피 등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특히, 페이스 북과 미니홈피 플랫폼의 경우, 공적 소통 보다는 사적 소통 공간에 주안점을 두고(정희진 & 김민정, 2005)있기 때문에 변화한 글쓰기 공간에서의 문식 실행을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텍스트라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은 연구 참여자가 병행하여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란 점을 고려하여, 연구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취사선택하여 삼각검증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연구는 전문 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다. 하나의 장르에서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텍스트를 생산하고 적정 수준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필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문식 실행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가 널리 퍼져 있는 안정성 있는 플랫폼[조건 2]을 연구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4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장르가 바로 블로그였다. 블로그는 1997년 미국의 한 웹사이트에서 처음 명칭이 사용된 이후, 웹미디어의 개인화 경향에 힘입어 빠르게 이용이 확산되고 있고 웹 2.0의 트렌드 속에서 참여와 공유의 정신에 적합한 대표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홍진영·박선주·정승화, 2009). 이에 이 연구의 참여자는 ‘전문적으로 블로그 텍스트를 생산하는 필자’로 결정하고 연구 목적에 가장 적합한 참여자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18)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글쓰기 공간의 변화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하이퍼텍스트와 전자 네트워크로 인해 촉발된 것이다. Bolter는 예전의 테크놀로지가 문화적 차이를 통합하고 균질화 하는 기능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의 변화된 글쓰기 공간에서의 테크놀로지는 개인들이 반응을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양방향 응용 프로그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Bolter, 2001:315).

2) 연구 참여자 표집

2011년 현재 우리나라 블로거는 인터넷 사용인구(약 3,7180,000명)의 44.3%에 해당하는 약 1,6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KISA, 2011:7). 이 가운데 전문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일명 ‘파워 블로거’라 일컫는 필자들은 약 1,000명 안팎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전문 블로거’ 또는 ‘전문 블로그 필자’로 지칭할 것이다.

‘파워블로거’란 명칭은 포털사이트인 NAVER에서 2008년에 자사 블로그 서비스 이용자 가운데 상위 1,000명을 선발하고 이들을 ‘파워블로거’로 명명한 것에서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각 서비스 별로 우수 블로거, 슈퍼 블로거, 알파 블로거 등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와 있으며 의미는 유사하다. 반면 영미권에서는 대런 로우즈(2009)가 제안한 프로블로거(problogger)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미국과 유럽의 시장 규모 상 직업적 전업 블로거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주부이면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와이프로거를 제외하고 전업 블로거는 드문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파워 블로거’라는 용어를 ‘영향력 있는 블로거’란 의미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파워블로거’가 특정 포털사이트에 귀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나치게 권력화 되어 학문적으로 명명하기에 적절치 않은 용어라고 판단하였다. 대신,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프로블로거’의 의미를 차용하여 이를 ‘전문 블로거’로 재개념화하였다.

블로그는 설치형 블로그와 포털형 블로그로 나뉜다. 우리나라 블로거의 대부분은 사용상의 편의로 인해 포털형 블로그에 집중 분포한다. 이중 가장 다수가 속해있는 곳은 앞서 언급한 네이버이다.¹⁹⁾ 네이버는 처음에는 검색 사이트로 시작하였으나, 점차 블로그와 커뮤니티, 지식인 서비스 등으로 확장하여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자의 70%의 초기 화면을 장악할 정도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갖추고 있다. 현재 네이버는 2008년부터 파워블로그라는 명칭으로 우수 블로그를 선발하고 있으며, 현재 4년째 각 분야별로 선정자를 발표하고 있다.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파워블로그 선정 기준은 블로그 활동성 지수, 블로그 인기도, 포스트 지목도, 포스트 인기도 지수이다.²⁰⁾

19) 네이버 이외에도 이글루스, 다음, 네이버, 야후 등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설치형 블로그는 주로 티스토리나 텍스트 큐브 등에 블로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는 질적 연구로, 전문 블로거들의 텍스트 생산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문식성 후원자의 특성을 일반화하기보다 각자의 사례 하나하나를 본 연구 문제의 목적에 맞게 선별하고자 하였다(Patton, 2002). 그리하여 이 연구의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한 다음 3단계의 과정을 거쳤다.

1단계: 전제조건에 부합하는 참여자 모집

- 1) 현재 블로그를 1개 이상 운영
- 2) 블로그를 운영 경력이 3년 이상
- 3) 전체 누적 포스트 수가 1,000개 이상
- 4) 블로그 구독자(이웃, Follower)가 1,000명 이상
- 5)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 가능(컴퓨터, 인터넷 연결망 등 소유)
- 6) 본인/부모 동의하에, 수개월 간 연구 참여(면대면 면담, 채팅, 이메일 등)가 가능
- 7) 특정 분야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비영리 목적의 블로거 대상

이 연구의 목표 모집단은 ‘전문 블로거’이다. 이 조건에 충족하기 위해, 2008-2011년 네이버 파워블로거, Daum 우수블로거, 한국블로그산업협회(KBBA)에서 매년 선발한 100대 블로거를 대상으로 하여, 이 중에 위 7가지 전제조건에 해

20) NAVER의 파워블로거 선정기준(출처: <http://section.blog.naver.com/sub/PowerBlogHelp.nhn>)

1. 활동성: 블로그 운영기간, 포스트수, 포스트 쓰기 빈도, 최근의 포스트 활동성이 포함된다. 모든 방문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전체공개 포스트만을 대상으로 하며, 포스트를 직접 작성했는지 스크랩하거나 수집한 포스트인지를 구별한다.
2. 인기도: 방문자수, 방문수, 페이지뷰, 이웃수, 스크랩수가 포함된다. 같은 방문자가 여러 번 방문하는지 (방문자수와 방문수), 한 번의 방문으로 포스트를 얼마나 보고 가는지(방문수와 페이지뷰)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므로 특정 지표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
3. 주목도: 블로그홈의 주목받는 글과 동일한 주목도 지수를 활용한다. 포스트 내용이 충실하고, 많은 방문자들이 포스트를 읽고, 댓글과 공감을 남길수록 주목도지수가 올라가게 된다. 블로그에 속한 포스트 전반의 주목도 점수를 활용하므로, 포스트 단위의 주목도 지수와는 다르게 반영된다.
4. 인기도: 댓글, 위인글, 공감, 조회, 스크랩 등 포스트 단위의 반응지표를 활용한다. 각각의 반응을 내가 남긴 것인지, 이웃이 남긴 것인지, 타인이 남긴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반영된다. 또한, 다양한 주제별 블로그를 소개하기 위해 주제별로 반응지표의 비중을 달리 계산한다.

당하는 블로거를 1차적으로 선정하였다.²¹⁾ 표집에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 최대 블로거 미디어 그룹인 TNM²²⁾ 소속 회원을 중심으로 접촉을 시도하였으며, 개별 면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를 추가 선정하거나 제외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기초 면담 질문은 대개 과거와 현재의 글쓰기 동기와 과정, 목적 등과 현재 블로그에 대한 기본적 정보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연구문제를 추가/조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면담 후에는 전사 작업을 거쳤으며, 이를 분석하여 차후 더 질문할 사항과 연구자가 관찰해야 할 현상을 도출해 내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최대한 많은 필자들과 접촉하면서 기존에 섭외하였던 필자들을 제외하거나 추가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준을 수정하고 다듬는 작업을 지속하였다. 전문 블로거는 디지털 글쓰기 영역에서는 우리나라 선단에 있는 그룹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온라인보다는 면대 면으로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조언을 구하는 과정을 지속하였다. 인터뷰는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미리 연구자가 준비한 질문지는 다음 표 < 2

21) 우리나라의 전문 블로거 전체 모집단은 앞서 밝힌 대로 약 1,000명 정도이다. 이 가운데 가능한 한 여러 해 전문 블로거로 선정되어 활동하였거나, 수상경력이 있는 필자를 우선적으로 접촉하였다.

22) TNM은 우리나라 최초/최대 블로거 미디어 그룹으로 현재 각 분야 별로 300여명의 전문 블로거가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다.

<표 IV-2> 연구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면담 질문

범주	하위 질문
1. 블로그 일반	가. 블로그 소개 나. 닉네임, 닉네임의 의미, 닉네임을 정한 이유 다.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계기 라. 블로그 주제와 그렇게 정한 이유 마. 블로그 플랫폼/서비스를 선택한 이유 바. 블로그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사. 블로그 이외에 운영하고 있는 다른 SNS 아. 블로그의 메뉴 구성 자. 블로그 글쓰기(블로깅) 빈도
2. 필자로서의 자기 인식	가. 글쓰기 과정 나. 글쓰기 과정 별 고려사항과 주의사항 다. 글의 소개/주제를 정하는 방식 라. 독자에 대한 고려, 인식 마. 글쓰기 흥미/동기/태도 바. 글쓰기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 사.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필자 아. 필자로서의 영향력을 체감했던 계기나 경험

기초 면담 결과, 1단계에서 섭외한 전문 블로거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표 IV-3> 1차 섭외자(가명)

	성별	나이	분야	학력	직업	출신지역
잭바우어	남	30대 후반	여행/맛집	석사	포토그래퍼	서울
블루다크	남	30대 초반	영화	대졸	회사원	부산
첸들러	남	30대 초반	미국드라마	대졸	바리스타	인천
요시히코	남	30대 초반	일본드라마	대졸	회사원	경기
버클리	남	30대 중반	공연	대졸	회사원	서울
아빠사랑	남	40대 초반	제품리뷰	대졸	출판사 대표	서울
레드인생	남	30대 초반	영화	대졸	연극배우	충북

1차 섭외 과정에서는 지역과 블로그 주력 분야를 고려하여 배치하였으며 필자

의 현재 직업도 고려하여 선별하였다. 그러나 1차의 경우, 성별이 편중되어 있고 좀더 다양한 연령, 조건을 가진 필자를 섭외하는 것이 연구의 설득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추가 표집을 진행하였다.

2단계: 기 섭외자를 통한 추천자 표집

- 1) 1단계를 통해 조건에 적합한 목적 참여자를 표집
- 2) 준비 면담 등을 통해 유사한 조건의 참여자 4-5명을 추가로 표집
- 3) 목적 참여자의 소개를 중심으로 전문 블로거 위주로 추가 섭외

1단계에서 접촉한 연구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이들과 대등한 조건을 가진 블로거를 추가 표집하는 과정을 거쳤다. 전문 블로거들은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다른 전문 블로거들과 친분을 맺거나 정기적인 교류를 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로 섭외할 수 있을만한 블로거를 소개 받아 접촉하였다. 마찬가지로 이들과의 면담은 모두 녹음, 전사하였으며 분석을 통해 각 전문 블로거가 가진 변인들을 분류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구문제를 추가, 수정하였다. 이들과의 면담은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허가 받았으며, 초점 연구 대상이 선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문식성 후원자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다.

<표 IV-4> 2차 섭외자(가명)

	성별	나이	분야	학력	직업	지역
잭바우어	남	30대 후반	사진/여행	석사	포토그래퍼	서울
다크블루	남	30대 초반	영화	대졸	회사원	부산
첸들러	남	30대 초반	미국드라마	대졸	바리스타	인천
요시히코	남	30대 초반	일본드라마	대졸	회사원	경기
레드인생	남	30대 초반	영화	대졸	연극배우	충북
버클리	남	30대 중반	공연	대졸	회사원	서울

나옹나옹*	남	30대 초반	영화/지역	대졸	공무원	부산
유코*	여	30대 중반	일상	대졸	회사원	서울
아빠사랑	남	30대 후반	제품리뷰	대졸	출판사 대표	서울
도일리*	여	20대 후반	사진/제품리뷰	대졸	교사	대구
분홍변집*	여	50대 중반	문학	대졸	주부	경기
인생절정*	남	30대 후반	IT/시사	석사제	벤처 CEO	서울

[*표는 2단계에서 추가된 연구참여자]

3단계: 최대 변인 표집

- 1) Snowball sampling을 통해 표집한 참여자들과 추가 면담 수행
- 2) 최종 연구 참여자 선정

1, 2단계에서 섭외한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과 변인을 바탕으로 하여 이들과 다른 특성을 가진 전문 블로거를 추가적으로 섭외하였다. 이 방법은 질적 연구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큰 변이에서의 공통 유형을 찾으므로 사례들의 이론에 대한 설명력을 높일 수 있다(Patton, 2002). 이때 변인으로 잡은 것은, 성별과 나이, 지역, 직업 등과 같은 주요 사회성층과 블로그가 주로 다루고 있는 영역에 대한 항목이었는데, 이는 전문 블로거가 가진 각자의 특성을 다각도로 탐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성장 배경에 대한 학교 내외의 문식 환경에 대한 조사를 한 뒤, 이에 대한 변인 또한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이렇게 1-3차를 거치는 동안 최종 선정/제외된 연구 참여자는 다음과 같다.

<표 IV-5> 최종 섭외자(가명)

	성별	나이	분야	학력	직업	지역
잭바우어	남	30대 후반	사진/여행	석사	포토그래퍼	서울
다크블루	남	30대 초반	영화	대졸	회사원	부산
챌들러	남	30대 초반	미국드라마	대졸	바리스타	인천
요시히코	남	30대 초반	일본드라마	대졸	회사원	경기

레드인생	남	30대 초반	영화	대졸	연극배우	충북
버클리	남	30대 중반	공연	대졸	회사원	서울
나옹나옹	남	30대 초반	영화/지역	대졸	공무원	부산
유코	여	30대 중반	일상	대졸	회사원	서울
아빠사랑	남	30대 후반	제품리뷰	대졸	출판사 대표	서울
도일리*	여	20대 후반	사진/제품리뷰	대졸	교사	대구
분홍변집*	여	50대 중반	문학	대졸	주부	경기
인생절정*	남	30대 후반	IT/시사	석사제	벤처 CEO	서울

(음영: 최종 제외된 연구 참여자)

이렇게 3단계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7명의 연구 참여자를 섭외하였다. 연령대는 20대에서 50대를 고루 배치하였으며, 남자 5명, 여자 2명으로 전문 블로거 통계의 성비를 기준으로 배치하였다²³⁾.

<표 IV-6> 연구 참여자의 매체 보유 및 SNS 이용 현황

	스마트폰	태블릿 PC	DSLR	트위터	페이스북	커뮤니티	기타
잭바우어	○	×	○	'◎	△	○	출판, 방송출연
블루다크	○	○	○	△	○	△	TV출연 '슈퍼 블로거'
챌들러	○	×	○	×	○	△	강연
요시히코	○	×	○	△	○	△	독자적인 App 제작
도일리	○	×	○	△	○	◎	
분홍변집	×	×	○	×	×	○	출판 준비중
인생절정	○	○	×	○	○	△	방송출연, 강연, 출판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면담자들에게 학교에서 받았던 글쓰기 수업

23) 2010년 언론진흥재단에서 발간한 <한국의 파워블로거>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현재 국내 파워블로거의 성비는 남자 78.2%, 여자 21.8%로 남녀 성비는 약 4:1 정도이다.

의 영향과 가정에서의 문식 환경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연구참여자가 선정과 후속 연구과정에 참고하였다.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

- 학교에서 받은 글쓰기 수업이 현재 내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가?
- 교사, 또는 수업을 통해 글쓰기에 대한 강화를 받은 적이 있는가?
- 학교에서 또래집단에게 글쓰기 강화를 받은 적이 있는가?

<가정>

- 가족들이 글쓰기를 즐겨 하는가?
- 가족들에게 글쓰기의 강화를 받는가?
- 가정의 분위기가 글쓰기 좋은 환경인가?

단, 이러한 영향 관계는 기초 면담만으로는 정확한 결과를 산출하기 힘든 사항이므로 참여자 선정 과정의 참고사항으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참여자가 확정된 이후에는 이때의 기초 면담자료를 바탕으로 각 항목에 대한 질문을 구체화하여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3) 연구 참여자

(1) 챗들러

‘챗들러’는 미국 드라마 블로그를 운영하는 30대 초반의 남성 블로거이다. 블로그를 시작한 것은 2007년 4월부터였으며, 2012년 8월 현재, 만 5년째이다. 총 포스트는 2,300여개, 일일 평균 방문객은 5,000명 정도이다. 누적 방문객은 22,500,000명을 상회한다. 고정 독자라고 할 수 있는 블로그 이웃은 11,000여명이다. 네이버에서 매년 말 개최하는 네이버 후드 시상식의 블로그 부문 수상자이며, 2010년에는 블로그 산업협회에서 선발한 100대 블로그에 선정된 바 있다. 2008년-11년 네이버 파워블로그이다.

현재 포털 사이트 네이버 커머스토리의 고정 필진이며, 미국 드라마에 대한 글을 기고하고 있다. 실제 직업은 바리스타로, 수도권 지역(부천)에서 본인의 카페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대학에서의 전공은 신소재 공학이었으며, 바리스타로 일하기 전 마케팅 회사에 근무한 경험이 있다.

‘챗들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인간관계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다. 일단 가족들은 그가 블로그를 운영하는지 알지 못하며, 매우 친한 친구들의 경우도 그가 유명 블로거임을 모르는 이가 많다. 주로 그의 블로그에 댓글을 다는 이들은 온라인 지인들이다. 가족 중에서는 유일하게 ‘챗들러’만이 블로그를 운영한다. 블로그의 제목은 ‘감성 바이러스 팩토리(factory)’인데, 카테고리 이름에도 ‘팩토리’를 넣어 대주제를 구분하고 있다.

포토샵에 능하고 블로그의 디자인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다.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근방 주부들을 상대로 블로그 강좌를 무료로 열기도 한다. 블로그 이외의 SNS로는 페이스북을 자주 이용하며 트위터는 계정만 있고 별다른 운영은 하지 않는다. 스마트폰 사용자이며 L전자의 공식 서포터즈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다. 덕분에 새로운 통신 기기를 접할 기회가 많고, 기기 사용이나 프로그램 조작에 능숙하다.

(2) 요시히코

‘요시히코’는 일본 드라마 블로그를 운영하는 30대 초반의 남성 블로거이다. 블로그를 운영한 건 2007년 12월부터였으며, 2012년 8월 현재 만 5년째가 되었다. 총 포스트는 약 2,200개 정도, 일일 평균 방문객은 5,000명 정도이다. 누적 방문객은 20,500,000명을 상회한다. 고정 독자라고 할 수 있는 블로그 이웃은 12,600여명이다. 네이버에서 매년 말 개최하는 네이버 후드 시상식의 블로그 부문 수상자이며, 2010년에는 블로그 산업 협회에서 선발한 100대 블로거에 선정된 바 있다. 문화/예술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자이다. 2008년부터 2011년 네이버 파워블로그이다.

직업은 회사원이며, 마케팅과 관련한 일을 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했다. ‘요시히코’는 블로그를 통해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으나, 실생활에서는 매우 가까운 지인과만 교류하고 있다. 직장 내에서도 그가 유명 블로거임을 모르는 이가 많다.

그의 블로그는 개인의 공간이기보다는 커뮤니티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다. 그 예로 ‘메모’ 코너는 많은 이들에게 글쓰기 권한을 개방하여, 일본 드라마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일본 드라마 소식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게 하였다. 종종 방문객 대상의 설문을 하여 포스팅에 반영하기도 한다. 독자들의 충성도가 높으며 댓글 참여가 활발하다. 가족은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으며, 가족 중에서는 유일하게 ‘요시히코’만이 블로그를 운영한다. 일본 드라마 전문 블로거이지만 일본어 전공자도 아니며, 일본 거주 경험도 없다.

블로그는 ‘일본 드라마를 살금살금 따라가는 블로그’란 부제를 달고 있다. 메뉴는 간결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용 블로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사람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구독자들은 그의 글을 항상 읽을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배포에 대한 노하우도 블로그를 통해 방문자들과 공유한다. 블로그 이외의 SNS로는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모두 이용하는데, 블로그 포스트에 대한 유입경로로 주로 사용한다. 트위터에서는 일본드라마 모임을 별도로 개설하여, 사람들과 소식을 나누기도 하고 실제 모임을 한 적도 있다.

(3) 다크블루

‘다크블루’는 영화 블로그를 운영하는 30대 초반의 남성 블로거이다. 블로그를 운영한 건 2003년 12월부터였으며, 2012년 8월 현재 만 9년이 되었다. 총 포스트는 약 4,100개 정도, 일일 평균 방문객은 8,000명 정도이다. 누적 방문객은 190,000,000명을 상회한다. 고정 독자라고 할 수 있는 블로그 이웃은 12,000여명이다. 네이버에서 매년 말 개최하는 네이버 후드 시상식의 영화 리뷰 부문 수상자이며, 2010년에는 블로그 산업 협회에서 선발한 100대 블로거에 선정된 바 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네이버 파워블로그이다.

직업은 회사원이며, 현재 마케팅과 관련한 일을 하고 있다. 현재는 수시로 전업 블로거로 이직을 고민하는 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상, 글을 쓰는 것만으로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신문방송학을 전공했으며, 광고 공모전 수상 경력도 있다. ‘다크블루’는 선천적 안면 장애가 있어, 학창시절에는 상당히 폐쇄적인 인간관계를 맺으며 지냈다. 그러나 영화를 좋아하게 되고 이를 통해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면서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인간관계 또한 다양하게 맺게 되었다. 이후, 세계 3대 영화제인 칸느 영화제와 우리나라 부산 국제 영화제 등을 블로거 자격으로 취재한 경력을 갖고 있다. 20세기 폭스에서 선정한 ‘세계 영향력 있는 1인 미디어 50인’에 뽑힌 바 있다.

그의 장래 희망은 영화 전문 기자가 되는 것이다. 블로그는 그때를 위한 포트폴리오로 생각하며 운영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영화 시사회나 기자간담회에 가서 취재 후기를 남기거나 영화 관계자들의 인터뷰도 자주 하고 있다. 한 여배우의 팬으로도 유명하며 이에 대한 블로그 카테고리를 별도로 운영한다.

‘다크블루’는 독자들의 댓글에 꼬박꼬박 답글을 남겨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댓글 확인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사용해 수시로 한다. 부산에서 태어나 자랐고, 가족들 모두 ‘다크블루’의 블로그 활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양한 체험단, 기자단 활동 덕분에 메뉴는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블로그 이외의 SNS로는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모두 이용하는데, 페이스북을 더 활발히 이용한다.

(4) 잭바우어

‘잭바우어’는 여행과 사진 블로그를 운영하는 30대 후반의 남성 블로거이다. 블로그를 운영한 것은 2004년 2월부터였다. 2012년 8월 현재, 총 포스트는 약 1,850개 정도, 일일 평균 방문객은 5,000명 정도이다. 누적 방문객은 4,100,000여명이며, 고정 독자라고 할 수 있는 블로그 이웃은 6,000여명이다. 2008년-11년 네이버 파워블로그로 선정되었다.

직업은 프리랜서 포토그래퍼이다. 대학에서는 전자공학을 전공했으며, 석사과정을 마치고 CFP(국제재무설계사) 시험에 합격하여, 프리랜서로 전향하기 전까지 관련 직종에 근무했다. CFP 자격 시험 강사로도 활동한 경력이 있다.

사진과 여행을 주로 다루긴 하지만, 음식과 맛집, 요리, 공연, 영화 등 관심사에 대한 것도 다양하게 포스팅하고 있어 맛집과 여행 분야에 고루 파워블로그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잭바우어’ 본인은, 자신을 ‘사진 찍는 여행가’라 소개하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 가족은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으나 함께 살고 있지는 않다. 가족 중에서는 유일하게 ‘잭바우어’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들은 그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 주변 사람들도 잘 몰랐으나, 그가 프리랜서로 전향하고 나서 블로그에 본인 사진을 노출한 이후로는 종종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관심사별로 카테고리를 설정해 두었으며, 관심사가 늘어날 때마다 하나, 둘씩 늘어가는 경향성을 보인다. 여행지의 경우 도시별로 각각 정리해두었다. 사진 포스트를 주로 발행하는 블로그이다 보니, 1단 편집을 선택하여 사진을 커다랗게 삽입한다.

사진기를 능숙하게 사용하여 다양한 기종의 사진기로 다채로운 사진을 찍어 블로그를 한다. 블로그 이외의 SNS로는 트위터를 매우 활발히 이용하는데,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는 상시 접속을 하고 있다. 사진과 멘션을 고루 전송하며 이것은 그가 스마트폰 유저란 것도 크게 작용한다. 트위터에서는 약 5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가 이제까지 남긴 트윗수는 2012년 10월 현재 50,000여 건에 달한다. 블로그 활동을 통해 대외 강연이나 도서 출판 등의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CATV의 여행관련 프로그램의 고정 코너 진행자로 출연 중이다.

(5) 도일리

‘도일리’는 일상/제품 리뷰 블로그를 운영하는 20대 후반의 여성 블로거이다. 블로그를 운영한 것은 2009년 1월부터였다. 2012년 8월 현재, 총 포스트는 약 1,050개 정도, 일일 평균 방문객은 약 2,500명이다. 이제까지의 누적 방문객은 약 1,300,000명 정도이며, 고정 독자라고 할 수 있는 블로그 이웃은 1,500여명 이다. ‘도일리’는 네이버에서 정식으로 파워블로거에 선정된 적은 없으나, 일상 생활 속에 지속적으로 포스팅을 해왔고 글쓰기 과정과 방식이 전문 블로거 필자로서 시사점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눈덩이 표집을 통해 ‘도일리’와 접촉하였으며, 최대변인 표집 조건에도 적합한 연구 참여자였다. 대개의 일상 포스트와 제품 리뷰는 일정 정도 홍보성의 포스트가 포함되는 까닭에 포털 사이트의 파워블로거 선정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필자의 면담을 진행하고 글쓰기 과정을 관찰하였다.

‘도일리’의 직업은 특수학교 교사이며 대학에서는 특수교육을 전공하였다. 현재는 특수학교 중학생을 맡아 담임으로 재직하고 있다. 그러나 블로그에서는 그런 그녀의 실제 삶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도일리’는 사진에 취미가 있으며 공모전에 당선될 만큼 수준을 갖고 있다. 그녀는 취미생활이자 부업으로 블로그를 즐기고 있는데, 고료를 받고 글을 쓰는 체협단과 기자단 활동에 주기적으로 임하고 있었다. 이 점은 대개 일정한 분야를 정해 집중적으로 포스팅을 하는 전문 필자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는 부분이다.

대구에서 태어나 대학을 졸업했으며, 지금도 주기적으로 서울과 집을 오가고 있다. 블로그가 생활의 한 부분으로 익숙해진 이후부터 가족들도 그녀의 취미 생활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있다.

메뉴는 일상 블로그답게 다양한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진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1단 편집으로 설정되어 있다.

(6) 분홍번짐

‘분홍번짐’은 문학과 에세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50대 중반의 여성 블로거이다. 블로그를 운영한 것은 2009년 4월부터였다. 2012년 8월 현재, 총 포스트는 약 1,100개 정도, 일일 평균 방문객은 1,500명 정도이다. 누적 방문객은 약 400,000명 정도 되며, 고정 독자라고 할 수 있는 블로그 이웃은 1,300여명이다. 2010년 네이버 파워블로그로 선정되었다.

직업은 가정주부이다. 대학에서는 중문학을 전공했으며, 결혼 후에는 집에서 가정을 돌보는 데 주력해왔다. 현재 대학생 아들과 고3 수험생 딸을 두고 있는 아내이자 어머니이다. 아들이 군입대를 한 것을 계기로 블로그를 시작했다. 그 전에는 대학 동문들이 모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종종 글을 써왔다.

창작 문학을 주로 다루는 블로그로, 틈틈이 써놓은 소설을 연재한다. 요즘에는 보고 온 영화나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도 같이 올리며, 최근에 구입한 사진기로 사진도 찍어 올리고 있다. 예전에는 그녀의 나이와 직업에 대해 독자들이 짐작하기 힘들었으나 가족들의 이야기를 올리게 되면서 사람들이 ‘분홍번짐’의 생활을 짐작 가능하게 되었다. 얼마 전 신춘문예에 기고한 경험이 있으며, 최근에는 출판사나 문예지의 기고 의뢰도 종종 오는 편이다. 전문적으로 문학을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시조 작가인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파워블로거로 선정된 이후에는 자신이 생겨 다양한 소재를 찾아 글을 써보려고 노력 중이다. 아들과 딸은 글의 소재를 주는 중요한 정보원이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 뮤지컬 시상식의 관객 심사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하였다.

블로그의 주 카테고리는 일상 수필과 습작 소설, 그리고 서평 등이다. 최근 영화, 공연 후기 등의 비중이 늘어가고 있다. 독자들의 충성도가 매우 높으며 댓글의 충실도 역시 여느 블로그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매우 길고 진지한 댓글과 답글이 오간다. 그러나 온라인의 지인을 오프라인에서 자주 만나는 편은 아니다.

(7) 인생절정

‘인생절정’은 IT와 시사 블로그를 운영하는 30대 후반의 남성 블로거이다. 블로그를 운영한 것은 2004년 2월부터였다. 2012년 8월 현재, 총 포스트는 약 1,900개, 일일 평균 방문객은 약 1,200명이다. 누적 방문객은 7,600,000명 정도가 된다. ‘인생절정’의 블로그는 설치형 블로그²⁴⁾인 탓에 ‘블로그 이웃’과 같은 시스템이 제공되지 않는으나 그만큼 방문객에 허수가 적다고 볼 수 있다. 검색보다는 직접 구독하거나 즐겨찾기로 들어오는 독자들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인생절정’의 블로그는 올블로그 선정 2006(상반기 3위, 하반기 1위, 총결산 3위), 2007 Top100 블로그로 선정된 바 있으며 IEF 2009 블로거 ‘베스트 오브 베스트 9’에 선정되기도 했다. PC사랑 선정 국내 블로거 Top100에 2008년, 2009년 연속으로 포함되었다. 현재는 블로그를 예전만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외부 원고와 저서 등은 지속적으로 집필하고 있다.

‘인생절정’의 직업은 현재 벤처 CEO이다. 스타트업(start-up)²⁵⁾을 위한 미디어 관련 분야의 벤처를 경영하고 있다. 이전에는 전문잡지와 신문의 IT 전문기자로, 외국계 포털사이트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팀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대학에서는 신문방송학을 전공했으며, 현재 언론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그의 블로그는 철저하게 전문화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단 주요 사안에 대한 그의 생각을 가볍게 적는 것에서부터, 공식적인 지면에 나가는 외고, 즉 칼럼 역시 블로그에 업로드 한다. 현재는 벤처 대표이자 미디어 분야 전문 강연자로 여러 강단에 서고 있으며, CATV IT관련 시사프로그램에 고정 진행자로 출연하고 있다. 현재 가족 중에 블로그는 ‘인생절정’만이 운영한다.

그의 블로그 제목은 중의적인 의미로 사용하였다. 마찬가지로 실제 닉네임 역시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로 만들었다. 이것은 검색 엔진의 검색 결과에 대한 풍자가 담겨있는 것으로, 블로그 개설 당시 블로그 운영 목표를 자신의 닉네임과 블로그 제목이 검색되는 것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인생절정’의 블로그 카테

24) 설치형 블로그는 개인이 자기 서버에 설치하고 운영하는 개인용 블로그를 말한다. 자신의 고유한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고, 글이나 그림 등 콘텐츠가 개인에게 귀속되며, 디자인이나 구조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식경제용어사전, 지식경제부2010)

25) 신흥 벤처기업을 뜻하는 신조어이다.

고리는 상당히 단순화되어 있는데, 대개의 독자들이 카테고리를 골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 순서대로 차례차례 읽는다고 생각하고 지금과 같이 개편하였다.

전직 IT 전문가답게 매체 사용에 매우 능숙하며, 특히 다양한 플랫폼의 특성과 그것이 가진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운용하고 있다. 블로그 이외의 SNS로는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으나 사적인 이야기는 매우 제한적으로 노출하고 주로 대외 활동을 보고하는 매체로 활용한다. 이외에도 SNS나 메타블로그를 블로그의 유입 통로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신매체와 함께 구매체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갖고 있어서 방송 출연과 강연을 자주할 뿐 아니라, 미디어 관련 저서도 꾸준히 출간하거나 감수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자신이 블로거라는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며, 실제 그가 TNM 미디어의 공동 대표로 취임했던 당시, ‘블로거가 대표가 된다.’라고 알려졌을 만큼²⁶⁾ 이 분야의 명성을 쌓아왔다. 한국 블로그 산업 협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4. 자료 수집과 분석

1) 자료 수집 방법

(1) 면담

연구 참여자와 면담은 사전 면담과 심층 면담을 기본 2회 이상 실시하였는데, 모두 면 대면으로 진행하였다. 대개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거주지나 근무지 근처로 이동하여 친숙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담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참여자가 안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면담을 해야 더 다양하고 심도 있는 정보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이 연결된 노트북을 준비하여, 필요한 경우 자신의 블로그를 직접 확인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여자 전원에게 면담을 하기 전,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면담 내용은 모두 녹음하여 전사하였다.

각 참여자 당 총 면담 시간은 평균 2시간 정도이며 사전, 심층 면담을 마치고 텍스트 분석을 하는 중에도 참여자와 수시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추가 면담은 직접 만남 뿐 아니라,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메신저, 안부 게시판 댓글, 트위터,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페이스북 등의 의사소통 매체를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이 경우에도 역시 녹음하여 전사하거나 텍스트를 장면 갈무리하여 파일로 정리하였다.

(2) 블로그 텍스트 분석

텍스트 분석을 위해, 블로그의 전체 이미지를 결정하는 메인 화면과 함께 각 참여자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 포스트 3편을 선정하였다. 대표 포스트는 연구 참여자가 비중 있게 관리하는 카테고리의 텍스트를 위주로 가급적 1년 이내에 생산한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였다. 시일이 지난 텍스트의 경우, 현재 필자가 구현하는 복합 양식 텍스트의 모습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시적인 추적이 필요할 경우, 그 이전의 포스트를 참조/비교하였다. 연구자

26) <http://limwonki.com/422>

와 연구 참여자가 협의하여 연구 목적에 가장 적절한 텍스트를 선정하였으며, 3편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필요에 따라 독특한 양상을 보이는 텍스트를 추가 선정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블로그는 기존의 블로그 연구물을 검토하여 분석 항목을 정리하였다. 이 연구는 복합양식 텍스트를 생산하는 필자들의 문식성 후원자를 도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삼고 있으므로, 그에 적합한 분석 항목을 찾기 위해 기존 문식성 후원자 연구물과 같이 검토 작업을 진행하였다.

(3) 컴퓨터 화면 녹화

각 연구 참여자의 텍스트 생산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캡타시아7.0 프로그램으로 스크린 촬영을 진행하였다. 각각의 연구 참여자에게 텍스트를 생산하기 시작하는 것부터 포스트를 업로드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부탁하여 촬영하였으며 촬영분은 영상 파일로 저장하여 시간대별로 분할하여 분석하였다.

인터넷 온라인 맥락에서 생산되는 복합양식 텍스트의 경우, 사고구술로만 연구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자료의 수집과 선택이 종종 글쓰기와 같은 공간에서 일어나며, 복합양식 텍스트의 특성상 다양한 형식의 자료들이 한데 혼합되어 제작되기 때문이다. 담-젠슨과 카르멘(Dam-Jensen & Carmen, 2009)은 컴퓨터 화면 촬영 방법의 장점으로 글쓰기에 방해 없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생태학적 타당도가 높으며, 세밀한 필자의 동작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들었다. 하지만, 분석 기준을 적용하기 애매하고, 컴퓨터 밖의 행위는 관찰이 어려우며, 연구자가 원하는 자료를 초점화하여 얻기 힘들다는 점 등을 잠재적 문제점으로 들었다.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컴퓨터 화면을 촬영한 영상과 텍스트를 필자와 같이 보면서 확인 질문을 진행하였으며, 일정 시간 단위로 영상을 분할하여 필자의 행동을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텍스트 생산 과정을 미시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캡타시아7.0 버전의 경우, 스크린 촬영과 함께 필자의 행동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바, 필요한 경우엔 필자의 글쓰기 과정을 재촬영하여 글쓰기 중 필자의 움직임(자리 이탈, 눈동자/표정 움직임)을 분석하였다.

먼저 필자의 글쓰기 과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캡타시아 프로그램을 각 연구 참여자가 텍스트 생산에 사용하는 기기에 설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각의 필자의 글쓰기 과정을 촬영하였다. 촬영 기간은 참여자에 따라 차이를 두었으나, 대개 2-3주간의 시간 여유를 두고 파일럿 촬영과 본 촬영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의 구동에 여의치 않은 참여자의 경우는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참여자의 글쓰기 과정 촬영을 도왔다.

각 참여자가 평균 1주일에 2-3개의 포스팅을 하고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구동하고 자연스럽게 글쓰기 과정을 촬영할 수 있는 시간여유를 두었다. 필요한 경우, 파일럿 촬영본에 대한 사전 평가를 해주고, 재촬영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촬영을 위해 연구자는 각 참여자별로 사전 미팅을 갖고 프로그램 구동에 대한 시연을 거쳤으며, 촬영 기간 동안 각 참여자의 진도에 대한 점검을 계속했다. 촬영할 포스트는 연구 참여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글을 쓰고 촬영하도록 하였다. 촬영한 영상은 avi 파일로 변환하여 저장하였다.

(4) 연구 노트(Field Note) 작성

면담, 텍스트, 스크린 촬영 자료와는 별도로 연구 과정 동안 연구 일지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과 연구 아이디어 등을 별도로 정리하였다. 연구 환경이나 분위기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연구 참여자들 개개인의 관찰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하였다. 가급적이면 연구와 관련된 생각들을 자세하고 세밀하게 모아두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기록은 에버노트(Evernote)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정리하였다. 연구자가 연구 노트 작성을 위해 에버노트 프로그램을 선택한 것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한 자료가 엔비보10(Nvivo10)과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은 PC용과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둘 다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점을 이용하여 연구자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 모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연동하여 두었다. 어느 장치에서 기록하든지, 동기화를 통해 동일한 자료를 어느 곳에서나

신속하게 입출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문서 텍스트는 물론, 이미지, 음성녹음, 사이트 링크 등의 저장이 가능하여 기록물을 저장하는데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이라 판단하고 연구 기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기록의 저장과 보관 등에서 편의성과 호환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 노트는 전체적인 연구 과정 가운데 틈틈이 작성되었다. 그리고 이 기록들은 작성일자 별로 연구 관련 텍스트 자료, 연구자의 메모 뿐 아니라 사진 자료와 사이트 링크, 음성 녹음자료 등도 함께 모아 정리하였다. 그리고 연구 노트에 기록된 자료는 양쪽 디바이스에 연동, 동기화 되었으며 자료 분석/검토 과정 중에 필요에 따라 삼각검증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5) 기타 자료

이외에도 연구 참여자들의 SNS 장면 갈무리 자료와 메신저 대화 자료 등을 수집하여 검토하였다. 필요할 경우, 몇몇 연구 참여자들과 함께 대화방을 열어 공통의 화제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주요 포스트 뿐 아니라, 그 글에 해당하는 댓글도 수집하여 검토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댓글을 단 독자에게 절박한 질문을 보낸 후, 받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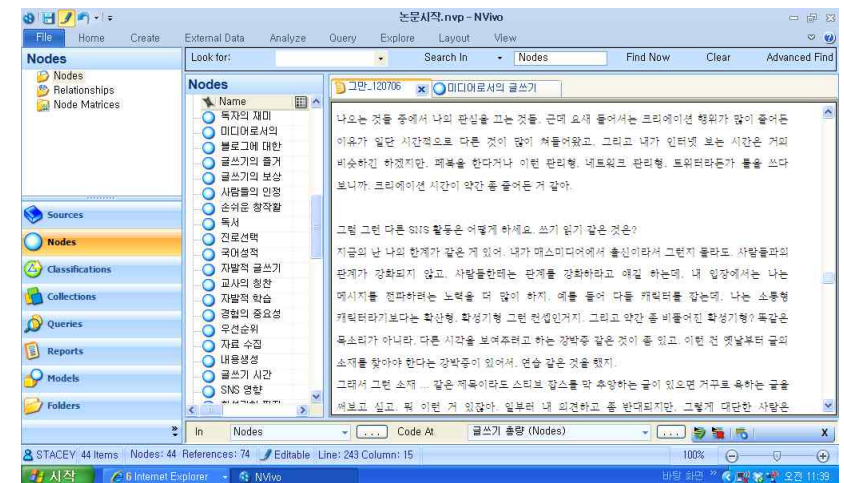
2)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각종 데이터의 분석에는 근거 이론(Grounded theory, Glaser & Strauss, 1967)을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 비교 방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을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사전 면담과 블로그 텍스트를 바탕으로 분석틀을 세우고 새로운 면담, 텍스트 데이터가 추가로 수집될 때마다 반례에 대한 분석(Negative case analysis)을 통해 분석의 틀을 수정·보완하였다. 그리고 나선형 심화 확인 모형(Developmental Research Sequence)에 따라 수집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였다(Spradley, 1980). 그리고 연구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엔비보10으로 처리하였다.

엔비보10은 2012년 6월말 엔비보9의 확장형으로 새롭게 출시된 것으로, 이전

버전과 달리 SNS 자료 분석과 에버노트 자료를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질적 연구에서 수작업으로 자료를 처리할 경우 발생하는 자료 분석 과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진이성을 확보하기 위해 컴퓨터를 응용하는 질적 자료 분석 체계이다(박종원, 2012). 이 프로그램으로 연구 자료의 수집과 분석 작업 중에 연구자가 수행하는 코딩 과정과 자료 간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 연구 과정의 논리성을 확보, 검증할 수 있다.

아래 [그림 IV-2]은 면담 전사 자료를 프로그램에 넣어 코딩을 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참여자와 면담한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전사하였으며, 각 연구자별로 폴더에 넣어 이를 정리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각 코딩 항목을 노드(Node)라고 일컫는데, 연구를 진행하면서 유사한 노드 별로 항목을 묶고 이를 범주화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코딩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상위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다.



[그림 IV-2] 엔비보10 코딩 화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근거 이론 자료 분석 방법론의 흐름에 따라 자료를 분해하고, 개념화하고 이론을 형성하도록 통합시키는 분석과정(Strauss & Corbin, 2001)인 코딩(coding)작업과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우선, 블로그에 올린 글과 심층 면담 자료를 구성 요소별로 면밀히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개념을 명명화하였다. 그리고 개념적으로 비슷한 것끼리 모아 그 특성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범주화하는 개방적 코딩 작업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개방 코딩 과정에서 나타난 범주들을 한 단계 더 추상화하여 상위 범주를 찾아내고 상황, 맥락, 중재 상황, 전략, 결과로 분류한 다음, 이들의 속성과 정도의 영역을 매개로 서로 연결하는 축 코딩을 하였다. 선택 코딩 단계에서는 연결 부호화 과정에서 다른 모든 범주들이 연결되어질 수 있는 중심적인 현상인 핵심 범주를 찾아내고 각 범주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축 코딩 단계에서 얻은 핵심 범주를 다른 범주들과 관련지어 비교, 적용해 보면서 그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상관관계를 그림으로 도식화한 후 각 범주 사이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관계를 정형화하는 유형 분석을 하여 전문 블로거의 문식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문식성 후원자에 대한 모형을 설계하였다.

V. 디지털 필자의 블로그 텍스트의 분석

이 장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생산한 블로그 텍스트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각각의 현상이 문식 실행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그들이 각각의 구성 요소를 제작하고 배치하고 디자인할 때에 무엇에 영향을 받았으며 무엇이 그들의 결정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인터뷰와 관찰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 영향 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브랜트(1998)의 ‘문식성 후원자(literacy sponsors)’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 기제로 사용하였다.

텍스트 분석을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7인의 텍스트를 각각 3, 4편을 선정하였다. 이 텍스트는 연구 참여자들이 1년 이내에 제작한 것으로, 연구자는 참여자와의 협의를 통해 분석에 적합한 텍스트를 선정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선정한 텍스트를 블로그가 가진 장르적 특성에 따라, 블로그 메인(main)과 개별 포스트(post)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블로그 메인 분석에는 전체 디자인과 구성요소를 중심축으로 하여 각 부분의 기능과 필자의 의도를 유추하는 이미지 분석 방법(image analysis)을 사용하였다. 개별 포스트 분석에는 복합양식 텍스트 분석 방법(multimodal text analysis)을 적용하였다. 메인 화면을 블로그 텍스트와 분리하여 다른 층위로 분석한 이유는, 메인은 개별 링크마다 다른 텍스트가 출력(loading)되는 포스트 영역과는 달리 독자가 블로그에 머무는 동안 항상 고정되어 보이는 틀(frame)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복합양식 텍스트 가운데서도, 문자 텍스트보다 이미지 텍스트의 성격을 강하게 보이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블로그 포스트와 같은 분석틀을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연구자의 판단 아래, 둘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두 영역 분석 모두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면담과 타 SNS 자료, 분석 대상 포스트 이외의 블로그 포스트 자료를 부분적으로 활용하였다.

1. 블로그 메인 화면 분석

블로그 메인은 텍스트가 가진 성격 상 이미지 분석 방법을 중심으로 하되, 크레스와 반 리우웬(1998)이 사용했던 서술적 분석틀(descriptive framework)과 존스(Johns, 2009)가 웹사이트 분석에 쓴 분석틀을 참고,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크레스와 반 리우웬(1998)은 ‘정보의 가치, 돌출성(salience), 구조틀(framing)’을 분석 기준으로 삼아 각국의 유력 일간지 신문 1면을 분석한 바 있다. 블로그 메인은 신문의 1면과 마찬가지로 독자들이 가장 처음 접하는 페이지(면, page)²⁷⁾이다. 그런 특성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이 틀을 사용하여 블로그 필자가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각 구성 요소를 메인 화면에 어떻게 배치하고 독자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어떤 전략을 구사하여 블로그를 디자인하며 이러한 의도적인 구성요소의 배치가 어떠한 규칙성을 띄고 있는지, 또는 각 구획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신문과 블로그는 레이아웃(layout)의 편집방식이 다르다. 신문 텍스트는 가로, 세로의 폭이나 단의 개수가 정해져 있으나, 블로그의 경우, 기본적인 요소는 고정되어 있으나, 필자 본인이 디자인하고 다양한 요소를 추가 배치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뿐만 아니라, 세로 폭은 무한히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신문 지면의 편집보다 필자의 자유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블로그는 기본적으로 지면이 아닌 새로운 글쓰기 공간의 특성을 지닌 ‘웹기반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신문지면 분석틀과 함께 웹사이트 분석틀을 수정 반영하여 본 분석에 참고하였다.

존스(2009)는 복합양식 분석(multimodal analysis) 방법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인터넷 사이트 배치(display)와 디자인(design) 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 그는 이 연구를 위해 Fridae.com이란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를 메인 화면 구성요소별로 나누어 탐색하고 이들의 상호작용성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틀을 참고하여

각 연구 참여자의 블로그 메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미리 조사, 정리하여 제시한 다음, 각 항목들이 필자의 어떠한 의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기존의 인쇄 텍스트와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블로그는 이미지와 링크를 중심으로 하는 홈페이지보다는 문자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복합양식 텍스트의 성격을 두드러지게 갖고 있으므로 존스(2009)의 분석틀을 수정하여 웹기반 텍스트에서 가능해진 부가적인 기능(음악, 색깔, 글씨체, 댓글, 공지 등)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였다. 이렇게 연구자가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수시로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이렇게 삼각검증의 과정을 통해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다음 [그림 V-1]은 블로그 메인 구성 요소를 나타낸 그래픽이다.



[그림 V-1] 블로그 메인의 구성 요소(2단)²⁸⁾

27) 온라인에서는 텍스트의 구획을 인쇄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페이지(page)’로 구분한다. 그러나 온라인의 페이지는 하나의 글이 여러 쪽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글 하나당 고유한 URL 링크 주소를 갖는다. 즉, 너비(가로)는 정해져 있으나 폭(세로)의 한계가 없다.

28) 블로그 화면 구성은 블로그 필자가 자신의 기호에 따라 달리 설정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2-3단을 많이 사용하며, 사진을 크게 게시하고자 하는 필자들은 1단 구성을 선호하는 편이다.

다음 <표 V-1>는 연구 참여자 7인의 메인화면 구성요소를 정리한 것이다.

<표 V-1> 연구 참여자 별 메인 구성요소

	잭바우어	도일리	요시히코	분홍변집	다크블루	첼들러	인생절정
단 구성	1단	1단	2단	2단	3단	3단	3단
메인 타이틀	직접촬영 (사진)	직접 촬영/제작	직접제작 (그래픽)	일러스트	직접제작 (캐릭터)	직접제작 (그래픽)	그래픽
배경 음악	있음	없음	있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프로필 이미지	본인사진	없음	없음	일러스트	캐릭터	캐릭터	그래픽
방문객 카운터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타SNS 연계	트위터	없음	트위터 페이스북	없음	페이스북	페이스북	트위터 페이스북
공지	있음	있음	있음	없음	있음	있음	있음
광고 배너	없음	있음	없음	없음	있음	있음	있음
기타	여행지 리스트				최근 글 리스트	이웃 커넥터	트위터 RT리스트

[그림 V-1]과 같이 블로그 메인 구성은 대개 중앙에 블로그 포스트가 자리하고 옆에 카테고리 메뉴나 배너(banner)광고²⁹⁾, 위젯(widget)³⁰⁾ 등이 배열된다. 블로그 메인 디자인은 고정된 것으로, 독자가 블로그 내 여러 포스트를 옮겨 다니며 읽어도 이 부분은 변하지 않는다. 메인화면 디자인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구성 요소를 조사하여 정리한 것은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즉, 블로그의 독자들은 연구 참여자의 블로그에 머물러 있는 동안, 위에 정리해 놓은 필자 각각의 메인 구성 요소들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필자가 자신이 글을 쓸 플랫폼을 선택할 뿐 아니라, 선택한 플랫폼의

29) 인터넷 홈페이지에 떠 모양으로 만들어 부착하는 광고. [출처: 두산백과]

30) PC, 휴대폰, 블로그·카페 등에서 웹 브라우저를 통하지 않고 날씨·달력·계산기 등의 기능과 뉴스·게임·주식정보 등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미니 응용프로그램이다. [출처: 두산백과]

디자인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필자의 구상하고 운용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필자가 문식실행을 하게 될 공간이 다각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어진 절에서는 앞에서 정리한 구성요소별 분석과 함께 각각의 연구 참여자가 구성 요소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이를 운용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한편, 각 요소별 상호작용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서술할 것이다.

1) 메インタ이틀(main-title)³¹⁾

블로그의 메インタ이틀은 블로그의 상단에 위치한다. 블로그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노출되는 부분이다. 신문의 경우, 1면의 큰제목(헤드라인, headline)이 배치되는 곳으로, 사람들의 주목도가 가장 높다. 인터넷 텍스트의 경우는 웹브라우저(web browser)의 스크롤바(scroll bar)를 내리지 않고 바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웹브라우저에서 스크롤바를 내리는 행위는 책이나 잡지 등 인쇄 매체의 책장을 넘기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 즉, 독자가 스크롤바를 내리지 않고도 블로그의 메인 이미지를 바로 볼 수 있다 사실은 책의 표지나 신문의 1면처럼 별도의 작업이나 수행이 없이도 바로 접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빨리, 그리고 쉽게 눈에 띄고 기억되는 위치인 것이다.

또한 블로그에서 메인 이미지는 독자들이 블로그에 머무는 동안 계속 노출되는 레이아웃 중 하나이다. 블로그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한편, 블로그의 제목(title)도 바로 이곳에 위치한다. 즉, 블로그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고 노출빈도가 잦은 구성요소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블로그 필자들은 이곳에 블로그의 제목, 분야, 전반적인 분위기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이미지를 신중하게 선택하여 배치한다.

사진/리뷰 블로거인 ‘도일리’는 다음 [그림 V-2]과 같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활용하여 메인 이미지를 디자인하였다. 이는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관심사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녀는 이 메인 타이틀을 통해 ‘자신이 DSLR 사용자’라는 것과 현재 계절이 ‘가을’이라는 것을 나타

31) 이 부분은 블로그 전체 분위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흔히 블로거들은 이 부분과 전체 배경화면 디자인을 통칭하여 ‘블로그 피부’ 즉, ‘블로그 스킨(skin)’이라고 지칭한다.

내고 있다. 계절에 따라 집을 꾸미고 단장하는 것처럼, 블로그 역시 필자의 기호에 따라 자유롭게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자신의 사진을 재료로 손수 제작한 이미지를 메인타이틀에 배치하는 것은, 은연중에 필자가 ‘메인 이미지를 디자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V-2] ‘도일리’ 블로그 메인 타이틀 일부

마찬가지로 사진/여행 블로거인 ‘잭바우어’의 경우, 자신이 직접 찍은 일본의 기차역 사진을 배경에 삽입하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여행지 리스트를 메인 화면에 배치함으로써 자신이 여행 블로거임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독자들이 형성하게 될 블로그 필자에 대한 이미지는 ‘경험이나 상상력을 통해서 형성된 감각이 마음속에서 재생된 것(주창윤, 2003)’으로, 독자들은 블로그 필자들이 제시한 사진 등을 통해 나름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만일 필자가 일본에 간 적이 없고, 카메라를 다룰 수 없다 하더라도 독자들은 제시된 단서를 바탕으로 하여 상대방의 특징을 추측하고 모종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필자들은 글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블로그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나 그 정보들은 정교하게 계획되고 통제된다. 특히, 전문 필자의 경우 정보의 노출 정도를 더 능숙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이 지점이 인터넷 공간에서 활동하는 필자의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 중 하나가 되기도 한다.³²⁾

32) 상대적으로 SNS 사용에 익숙한 어린 연예인들이 SNS를 통해 의도하지 않게 사생활을 노출하고 이로 인해 곤혹스러운 일을 당한 경우가 우리나라에도 여러 차례 있어왔다.

필자들은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블로그에 투영한다. 이미지는 개별적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기(주창윤, 2004) 때문에 블로그에 표현된 필자의 상(像)은, 필자가 그동안 겪어온 삶의 과정에서 이상적으로 추구하게 된 모습을 띄고 있는 경우가 많다. 타인에게 보여 지고 싶은 모습을 구현하는 것이다. ‘잭바우어’의 경우, 포털사이트에서 ‘맛집’ 전문 블로거로 여러 차례 선정되었으나, 그는 줄곧 ‘사진/여행 전문 블로거’로 보이길 희망해 왔다. 심지어 자신이 직접 해당 포털사이트에 정식으로 항의하여 선정 분야를 변경한 경험도 있다. 그러나 그의 블로그는 ‘맛집 리뷰’ 포스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고,³³⁾ 해당 포스트에 대한 독자들의 호응도 활발한 편이다. 즉, 그가 생각하고 있는 ‘사진 찍는 여행자’라는 이상향은 그가 생산해내고 있는 텍스트들의 경향과 다소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실재하는 나’와 ‘보여지고 싶은 나’의 격차가 생긴 까닭은 그가 전문 블로거라는 지위가 아닌, ‘어떤 분야’의 블로거라는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있으며, 그 ‘분야’에 대한 ‘잭바우어’만의 선호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선호도는 그가 이제까지 받아왔던 교육과 만났던 사람들의 가치관과 평가, 그로 인해 그가 갖게 된 특정 영역에 대한 선호도와 선입견이 종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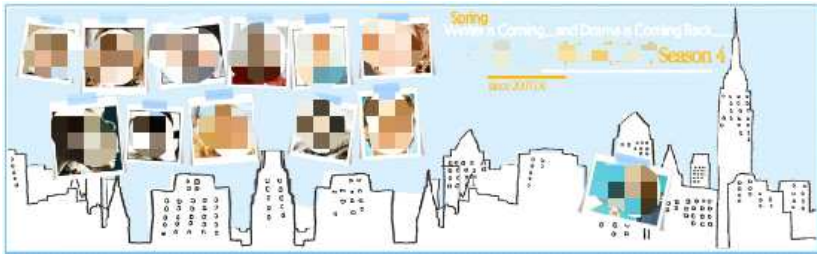


[그림 V-3] ‘다크블루’ 블로그의 메인타이틀 일부

영화 블로거인 ‘다크블루’는 평소에는 자신의 캐릭터가 들어간 메인타이틀을 사

33) 2012년 10월 현재, 전체 2041편의 포스트 가운데 451편으로 단일 카테고리로는 가장 많은 포스트 수를 기록하고 있다.

용하는데, 자신이 추천하는 영화가 개봉 중이거나 모처에서 관심 있는 영화제가 열리고 있을 때면 그와 관련한 이미지를 메인 이미지에 배치하곤 한다.³⁴⁾ ‘요시히코’와 ‘첸들러’는 각각 그들의 블로그 주제인 일본 드라마와 미국 드라마의 주요 장면과 인물들을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제작하여 이를 게시하고 있다. ‘첸들러’의 메인타이틀은 다음 [그림 V-3]³⁵⁾과 같다.



[그림 V-4] ‘첸들러’ 블로그의 메인타이틀

앞서 언급한 ‘도일리’와 ‘다크블루’, 그리고 위의 ‘첸들러’는 자신의 사진을 이용하거나 스스로 선택한 사진으로 메인타이틀을 디자인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도일리’의 경우, 자신이 찍은 사진으로 다양한 메인 이미지를 만들어 블로그에 들어오는 이웃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일종의 ‘재능기부’도 하고 있었다.³⁶⁾ 이렇게 전문 블로거 중에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를 스스로 제작하여 디자인하는 모습이 발견되는데, 이것은 다양한 사진과 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어울리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창의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단순히 자신의 사진만을 게시하거나, 또는 글로 적어 표현하는 것과는 달리 다양한 양식의 자료를 가공, 배치, 조합하여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느낌과 의도를 전달한다. 즉, 단일양식 텍스트와 달리, 복합양식 텍스트로서의 블로그 콘텐츠는 문자화된 정보

를 디자인적 기본요소를 통해 가시화하는 것으로서, 색채나 형태 등의 그래픽 요소를 활용하여(김병욱·두경일, 2005) 자신의 메시지를 표현하는 작업인 것이다. 매스미디어 시대에서 영상 이미지가 제시하는 신화 중 하나는 대상을 끊임없이 매혹적으로 보이게 한다는 것이다(Berger, 1987). 사진이 등장한 초창기에 사진이 가진 의미는 자신의 계급상승을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고 사회적 평판을 누리는 계층 속에 스스로를 귀속시키는 상징 행위로 기능하였다. 그런 초기 초상사진의 상징적 의미는 현대 사회에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이것은 바로 대상이 사진으로 찍혔을 때 혹은 영상이미지로 제시될 때, 일상적인 대상이 선망의 대상으로 바뀌어 보인다는 것이다(주창윤, 2003). 블로그 메인에 제시되는 이미지는, 블로거 필자의 이미지로 치환되며, 이 이미지가 더 화려하고 세련되게 제시될수록 필자의 이미지 역시 한층 이상적으로 포장된다.

연구자: 블로그 메인 화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첸들러: 첫인상이죠. 마치 얼굴 같은. 그래서 전 가끔씩 메인 화면을 화려하게 꾸며요.

[12-10-07 ‘첸들러’ 면담자료]

웹의 개인 공간에 글을 쓰는 필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또 표현한다. 그런데 그것은 기존의 면 대면에서 이뤄지는 동시적인 상호작용이 아니라, 필자들이 구축해 놓은 다양한 장치(Chandler, 1998)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메인타이틀 역시 그러한 ‘장치’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글쓰기의 공간이 새롭게 변화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이러한 새로운 글쓰기 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은 PC통신이 유행하던 시절부터 다양한 분야의 연구 주제가 되어왔다. 그 당시의 청소년들이 겪었던 자아정체성의 인식 변화에 대해 황상민(1997)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현실에서 자신의 모습이나 역할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과는 달리, 사이버 공간의 경험은 자신의 관심에 따라 새로운 자아를 표현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은 직접적인 참여를 요구하지 않는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익명적 요소는 바로 사이버 공간이 새로운 자아의 모습을 탐색할

34) 부산 국제 영화제(PIFAN) 기간에도 영화제 기간을 나타내기 위해 본인이 특수 제작한 메인 이미지로 블로그 메인 화면을 교체하였다.

35) 초상권 보호를 위해 인물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였다. -연구자 주

36) 모든 블로거가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직접 디자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경우 이렇게 전문 블로거가 공유하는 이미지를 ‘퍼가서’ 자신의 블로그에 사용하곤 한다.

수 있는 사회적 실험장소로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p.41)”

‘첼들러’가 가진 큰 장점은, 포토샵 등의 이미지를 잘 다룰 수 있는 필자라는 점이다. 이 부분은 글쓰기의 의미가 ‘작문(writing)’만이 아닌 ‘디자인(designing)’의 의미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새로이 생겨난 필자의 자질이다. 그러나 모든 필자가 이미지를 직접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이 직접 디자인이 가능한 프로그램 활용 능력을 가진 필자가 아니라면, 타인이 만든 이미지를 차용하는 방법을 쓰게 된다. ‘분홍번짐’이 그러한데, 이 경우 개인의 취향에 따라 적절히 이미지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작업이 뒤따른다.³⁷⁾ 이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도일리’와 같은 전문 블로거와의 자료 공유와 소통이 발생하게 된다. ‘분홍번짐’은 자신에게 적절한 이미지를 고르기 위해 여러 자료 공유 카페를 둘러보았으며, 그 결과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배경, 프로필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말과 문자를 넘어 점차 다양해지는 것이다.

‘다크블루’는 2009년 이후, [그림 V-3]과 같이 메인 이미지와 포스트에 자신의 캐릭터를 독자적으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캐릭터는 그가 직접 웹툰³⁸⁾ 작가에게 주문 의뢰하여 제작한 것이다. 예전에는 웹에서 제공하는 무료 이미지를 적절하게 조합하여 사용해왔다. 그러나 많은 독자들이 블로그를 들어오고 영화 블로거로서의 영향력이 확장되자³⁹⁾ 자신만의 독자적인 캐릭터를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아래, 적극적으로 캐릭터를 구안하게 되었다. 이것은 그가 예전부터 컴퓨터 게임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경험에서 나온 아이디어라 볼 수 있다. 또한 그는 애니메이션을 무척 좋아하여 즐겨보고 있는데⁴⁰⁾, 그러한 개인의 선호도

역시 캐릭터 개발하는 것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후 ‘다크블루’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캐릭터를 노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종종 새로운 표정이나 포즈를 웹툰 작가에게 의뢰하여 제공 받고 있다. 이러한 캐릭터는 사진보다 더 친근하고 귀여운 이미지를 줌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필자를 더 편하고 가깝게 느끼도록 한다. 다양한 행사나 단체에서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마스코트’나 ‘캐릭터’를 만드는 이유도 같은 목적이다. 사람들은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허구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물이 갖는 친근감, 유사성, 호감 등 감정적인 반응을 경험(김운한·이현우, 2009)하기 때문이다.

‘다크블루’의 독자들은 댓글을 통해 그의 캐릭터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내왔으며, 적극적인 독자들은 새로운 악세서리, 소품 등(넥타이, 모자 이니셜 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인터넷 매체는 이전과 달리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이 강한 특징을 갖는다(Moris & Organ, 1996). 이러한 상호작용성은 의사소통 측면에서 살펴볼 때 세 가지 층위, 즉 사용자(독자)와 메시지, 사용자(독자)와 기계, 송신자와 수신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Cho & Leckenby, 1997). 이 가운데 ‘다크블루’가 자신의 캐릭터를 제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상호작용성의 긍정적 효과는 바로 세 번째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전문 블로거의 상호작용성이 강한 이미지 메이킹은 장기적으로 독자들의 충성도(loyalty)⁴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소영·주영혁, 2001). 그리고 이러한 독자의 충성도는 그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있어 자신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앞선 연구 참여자들과는 달리 ‘인생절정’의 경우는, 간결하고 간명한 그래픽 디자인을 메인타이틀에 배치하고 있다. 그의 블로그 주제는 ‘IT/시사’로, 호불호가 강하고 논리성이 강한 분명한 어조의 글을 주로 업로드하고 있다. 그는 그러한 자신의 이미지를 강렬하게 보여주는 디자인을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만일, 앞서 언급한 ‘다크블루’와 같이 귀여운 만화 인물을 그의 블로그에 적용했다면, 그가 블로그에서 구현하고 있는 이미지(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정보력

37) 현재 ‘분홍번짐’의 배경화면과 프로필 이미지는 전문적으로 배경화면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카페에서 가져온 것이다.

38) 웹툰(webtoon)은 웹(web)과 카툰(cartoon, 만화)의 합성어로, 인터넷에 출판되는 형식의 만화를 의미한다. 만화계 역시 인터넷의 발달로, 펜과 스크린톤으로 그림을 그리던 예전과 달리, 타블렛 PC를 활용한 그래픽 만화가 발달하게 되었으며, 현재 포털 사이트 등에서는 독자적으로 웹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39) ‘다크블루’는 네이버에서 연말에 개최하는 시상식에서 영화 리뷰 부분의 연속 2회 수상자이고 현재 네이버 포털 메인에 게시되는 커비스토리 필진이다.

40) 그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사는 ‘픽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스스로를 ‘픽사 마니아’라고 지칭할 정도로 이곳에서 내는 애니메이션 작품을 좋아하고 챙겨보고 있다.

41) 웹 사이트의 충성도는 체류시간(duration time)과 방문빈도로 구성된다(Hoffman & Novak, 1996; Cho & Leckenby, 1997).

을 갖춘 전문 필자)에 어울리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인생절정’은 메인타이틀을 간결한 그래픽으로 디자인된 무채색 이미지로 설정하였는데, 이것은 앞서 말한 다양한 이미지의 결합을 통해 의도해낸 것이라기보다는 독자가 느끼는 ‘1차원적인 느낌과 감정’을 활용하여 만들어 낸 감각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주창윤, 2003).

2) 배경음악(Back Ground Music)

‘요시히코’는 일본 드라마 블로그임을 나타내기 위해 블로그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일본 가요가 자동 재생되도록 설치해 두었다. 이것은 미국 드라마 블로그를 운영하는 ‘첼들러’에게도 드러나는 공통적인 특성이다. 이 블로그에 방문하는 독자들은 자동적으로 이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음원을 감상할 수 있게 되어있다.

연구자: 독자들이 배경 음악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하나요? 본인의 의도대로 독자들이 좋다는 반응을 해주나요?

첼들러: 예, 많이 하죠. 신경 써서 선곡을 해서 올리면, 댓글이나 안부게시판 등에 배경음악 좋다는 반응을 해주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 (중략) ... 예전에는 (음원을 선물로 주는) 이벤트도 많이 했었어요.

연구자: 그럼, 배경 음악을 개별 포스트에 넣는 이유는 다른가요?

첼들러: 메인 화면에 넣는 배경 음악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같이 듣자는 팬 서비스, 또는 분위기 조성의 성격이 강하다면, 개별 포스트에서는 의도하는 효과가 정확하게 있지요. 뭐랄까. 그냥 글을 읽는 것보다 음악이 있으면 내용이 심정적으로 더 와 닿을 거란 그런 생각을 해요. 감정의 동화를 돕는 보조텍스트라고 하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그레이 아나토미>⁴²⁾에 대한 글을 쓸 때도 그 작품의 배경음악을 넣었어요. 비장미 넘치는 분위기의 곡으로요.

[12-10-07 ‘첼들러’ 면담 자료]

필자가 자신의 독자들이 문자 텍스트 외에도 시청각으로 받아들이게 될 이미지에 대해서도 고려한다는 사실은, 이전의 필자들이 글쓰기 과정에서 고려했던 요

42) 미국의 유명 의학 드라마

소들과는 확연히 다른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이러한 행동을 블로그 글쓰기의 행동유도성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⁴³⁾

행동유도성은 표상 양식과 미디어에 따라 달라지며, 텍스트가 사용되는 방식, 반응을 일으키는 방식, 검토되거나 다시 읽히는 방식, 그리고 텍스트가 조직되고 구성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Bearne, 2004). 마찬가지로, 블로그와 같이 복합양식 텍스트적 특성을 강하게 지닌 장르의 필자는 해당 글쓰기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행동유도성을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동원한다. 앞서 ‘첼들러’가 언급한대로, 특정 글에 넣는 음악은 독자들이 글을 읽는데 ‘심정적으로 더 다가오기를’ 바라는 의도로 삽입된 것이다.⁴⁴⁾

‘요시히코’와 ‘첼들러’가 다루고 있는 ‘드라마’는 영상과 음악, 그리고 배우들의 대사, 행동 연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복합양식 텍스트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고 있는 장르에 대한 정보와 느낌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고 싶어 한다. 이러한 글쓰기의 목적은 둘의 인터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 둘 다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니홈피 플랫폼에서 좀더 공개적으로 운영되는 블로그로 옮겨왔으며, 그 이유가 바로 ‘더 많은 사람들과 관심사를 소통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드라마를 다루고 있는 두 사람의 참여자가 동일하게 배경음악을 자신의 관심사에 적절한 국적의 노래를 선정하여 독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설치해 놓았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얼마 전까지 배경 음악을 설치했었다는⁴⁵⁾ ‘다크블루’까지 포함한다면, 필자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접하고 있는 매체와 콘텐츠가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복합양식 텍스트의 유형과 종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유추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전문 블로거가 자신이 생산한 텍스트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배경 음악을 삽입하는 행위는 사피로와 휴스(Sapiro & Hughes, 1996)가 제

43) 행동유도성에 대해서는 II장의 선행연구 검토에서 상술하였다.

44) 블로그의 배경음악은 텍스트에 삽입된 음악과는 다소 다른 목적을 갖는데, 후자에 대한 분석은 다음 절에서 하도록 한다.

45) 음악을 설치할 경우, 블로그 로딩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독자들의 편이를 고려하여 ‘다크블루’는 얼마 전에 음악 설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시한 ‘정보화 시대에 요구되는 문식 능력’ 가운데, 도구 문식성, 출판 문식성과 관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전에는 텍스트의 읽기가 시각에 머물러 있었다면, 배경음악을 블로그에 머무는 동안 틀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특정 내용의 글을 읽을 때 분위기에 맞게 제공하는 것은 예전과는 달라진 쓰기 행위로 볼 수 있다.

블로그 배경음악은 음원 사이트에서 음원을 본인이 직접 구매하여 비치하는 형태로 되어있다. 음원 파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닌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블로그의 배경 음악은 필자 본인이 음악을 소유하고 감상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블로그 전체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하게 된다. 곧, 이러한 배경음악은 음악 자체로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아도르노(Adorno, 1941)가 이야기한 ‘사회적 접착제(p.460)’로 기능하는 것이다. 그는 일찍이 대중음악의 이런 특성 때문에 ‘현대의 삶의 방식에 심리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회적 접착제’로서의 배경 음악의 기능은 ‘잭바우어’, ‘분홍번짐’에서 역시 확인할 수 있는 특성이다. 이 두 참여자는 각각 여행자와 소설 작가로서 블로그를 운영하는 필자들로, 이들은 드라마나 영화와 같이 특정 장르의 문화 콘텐츠를 중심에 두기 보다는 개인의 기호와 성향, 그리고 개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글을 발행해 왔다. 그들은 블로그에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설치해 놓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자신의 블로그 장르 중심으로 선곡을 한 ‘채들러’와 ‘요시히코’와는 달리 ‘잭 바우어’와 ‘분홍번짐’은 자신이 선호하는 곡의 목록을 비치하였다는 점이다. 그들은 이를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블로그 방문객에게 알리는 목적과 함께 자신의 블로그가 글을 저장하고 쓰는 공간으로서 필자와 독자 모두에게 친화적인 곳이 되기를 바라는 의도가 있었다. 그것이 필자 스스로에게도 ‘나다운 글’을 생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필자의 태도는 분명 독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그 증거로 그들의 블로그에서 음악에 대한 독자들의 긍정적 피드백을 종종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음악을 통해 우호적인 글 읽기의 맥락을 조성함으로써 해당 블로그 필자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광고에서의 배경 음악은 브랜드에 대한 감정적 영역을 건드림으로써 말보다 더 오래 남는 특징이 있다(정승혜, 2011). 이것은 텍스트와 음악이 동시에 제공되었을 때 음악이 갖는 강점이다. 복합양식 텍스트의 성격을 갖고 있는 블로그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그대로 적용된다. 독자들은 블로그의 글을 읽기에 앞서 배경음악을 먼저 접한다. 이것은 블로그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과 동시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호소력을 높일 뿐 아니라, ‘빠른 흡수력과 장기간의 기억(양영중, 1991)’을 가능하게 한다.

블로그 필자들은 특정 글이 많이 읽히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보다 자신의 블로그에 고정적으로 와서 반응해주는 독자들이 늘어나기를 원한다. 그런 측면에서 블로그의 배경 음악은, 독자들에 대한 잠재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블로그에서 다루고 있는 장르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사진과 함께 제품 리뷰를 주로 다루고 있는 ‘도일리’와 비평적 시각을 담은 글을 주로 쓰는 ‘인생절정’은 배경음악을 삽입하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들이 주로 생산하는 텍스트의 성격을 미루어 볼 때, 스트리밍 서비스의 주 대상인 인기 가요나 팝송이 도리어 독자의 읽기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필자의 이와 같은 선택은 텔레비전 시사 프로그램이나 정보 프로그램에서 채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배경음악과 효과음은 메시지 수용자의 감성적 소구를 일으킬 수 있는 부정적 기법으로 평가되어(최민재, 2009), 사람들의 사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의 간단한 효과음이나 간결한 배경음악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3) 프로필 이미지

블로그 메인에는 블로거의 닉네임과 본인의 사진 또는 이미지를 넣을 수 있게 되어있다. 연구 참여자 가운데 ‘잭바우어’⁴⁶⁾만이 본인의 얼굴 사진을 넣었고, ‘요시히코’는 닉네임만을 노출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는 프로필 이미지에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별도의 캐리커처나 인물 이미지를 넣고 있었다.

46) ‘잭바우어’ 역시 프로필 이미지에 본인의 얼굴을 밝힌 것은 극히 최근 일이라고 밝혔다. 불과 1년 전만해도 좋아하는 이미지를 대신 게시했다고 한다.

이성준 외(2011)는 마이크로 블로그 연구에서, 필자의 자기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노출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위 통제를 들었다. 마찬가지로 이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개개인마다 자기노출에 대한 태도가 매체에 대한 지식과 능숙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개별 심층 면담을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초기에 형성된 태도나 규범이 블로그에 글을 쓰고 다수의 독자를 확보하게 되면서 점차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챌들러’와 ‘다크블루’의 경우, 자신의 얼굴을 노출하는 대신 친근한 느낌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었고, ‘인생절정’과 ‘분홍변집’은 일러스트를, ‘도일리’와 ‘요시히코’는 프로필 사진을 넣지 않았다. 블로그의 메인 이미지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결정한다면, 프로필 이미지의 경우 블로거 본인의 이미지를 좌우한다. 연구 참여자 7인의 자기 노출의 정도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V-2> 연구 참여자의 자기노출 정도(2012년 10월 현재)

	요시히코	도일리	분홍변집	챌들러	잭바우어	인생절정	다크블루
본명	×	×	×	×	○	○	○
직업	×	×	○	○	○	○	○
나이/성별	×	○	○	○	△	○	○
학력/경력	×	×	×	×	×	○	○
얼굴	×	○	×	×	○	×	○
SNS	×	×	×	○	○	○	○
가족담화	×	×	○	△	×	×	○

블로그를 통해 본명이 노출된 사람은 3명이었다. 물론, 이들이 처음부터 자신의 본명을 노출한 것은 아니었다. 가장 정보 노출 정도가 큰 ‘다크블루’의 경우, 블로그를 처음에 시작할 당시엔 상당히 폐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포털 사이트에서 ‘파워블로거’에 선발이 되고 이를 통해 국제 영화제 등에 참여하게 되며 이러한 노출 정도가 늘어났으며, 결정적으로 작년에 공중파 TV 출연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사적 정보 대부분이 노출되었다. 현재는 조카, 형제 등에 대한 이야기

도 간헐적으로 업로드할 정도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대척점에 있는 ‘요시히코’의 경우는 상당히 다양한 경로의 SNS를 이용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오픈 캐스트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개인적인 정보 노출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 연구자는 참여자 별 자기 노출에 대한 태도가 프로필 이미지를 선택하고 게시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란 가정 아래, <표 V-1>의 프로필 이미지 관련 부분을 더 상세화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자기 정보 노출과 관련해서는 블로그와 타 SNS 연동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아래 해당 내용도 같이 비교, 정리하였다. 필자가 블로그 글쓰기 공간과 다른 플랫폼의 글쓰기 공간을 연결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에 대한 정보가 한 단계 더 공개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 장치는 한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독자를 유입하기 위한 확산의 의도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타 SNS의 프로필 이미지 역시 같이 조사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표 V-3> 연구 참여자의 블로그와 SNS의 프로필 이미지

	블로그	타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
요시히코	없음	반려동물(고양이, 개 등)
도일리	없음	사진(본인 사진, 신체 일부 사진 등)
분홍변집	일러스트	이용 안 함
챌들러	캐릭터	캐릭터(블로그와 동일)
잭바우어	본인사진	본인사진(자주 교체)
인생절정	그래픽	본인사진(자주 교체)
다크블루	캐릭터	캐릭터(자주 교체)

위의 표를 보면, 필자들이 다른 플랫폼에서 자신의 프로필 이미지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블로그 이외의 SNS를 이용하지 않는 ‘분홍변집’과 캐릭터를 사용하는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필자들은 각기 블로그와 다른 프로필 이미지를 취하고 있었다. 물론 SNS를 활용하는 대부분의 필자가 블로그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한다면 대부분의 독자들이 그들의 SNS 프로필 이미지를 볼 수 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전문 필자들은 글이 공개되는 수위와 범위를 고려한 다음,

자신의 정보를 어느 수위까지 노출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그 기준에 따라 지인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SNS에서의 자기 노출이 블로그보다 더 강해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2>와 <표 V-3>을 연관 지어 해석해 보면, 필자들이 프로필 이미지를 각 플랫폼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은 그에 따른 자신의 입장과 태도를 달리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SNS는 모바일 이용 빈도가 잦아지면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바로 프로필 이미지를 교체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할 수 있었다. 편집과 교체가 용이하다는 것은 그만큼 활용 가치를 크게 만든다. 자신을 잘 드러내는 이미지를 찾아 프로필에 배치하는 것은, 복합양식 텍스트가 활성화 된 인터넷 공간에서 새롭게 필자가 선택해야하는 조건 중 하나가 되었다. 개인의 프로필 사진을 찍어 게시하는 것이 예전에는 유명 인사들이나 정치가, 연예인들의 전유물이었다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통해 타인과 소통하는 것이 보편화되었음의 의미한다.

4) 방문객 카운터와 타 SNS와의 연동 시스템

연구 참여자의 상당수가 자신의 SNS 계정을 블로그와 연동시켜 두었다. 그리고 그중 몇몇은 메인화면에 SNS 계정으로 연결된 배너를 배치하고 있다. <표 V-1>을 참고하면, 이들이 블로그 이외에도 다양한 SNS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의 경향성은 VII장에서 더 깊이 다룰 것이다. 전문 블로거가 얼마나 다양한 플랫폼에 친숙한가는 그들의 행동유도성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행동유도성은 그들의 문식실행을 하는 과정 중에 받은 다양한 요소에 영향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블로거들이 자신의 블로그와 다른 SNS를 연동해 놓는 것은, 이를 통해 블로그로의 유입통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곧,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독자를 블로그로 유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메인 화면에 블로거들이 방문객 수를 게시해놓은 것은 그만큼 자신의 블로그 방문자 수에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들은 자신의 메시지가 많은 독자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한다. 전문 블로거처럼 공개적인 글쓰기 공간에 글을 쓰는 필자들이라면 더욱 그렇다. 블로그가 영향력을 갖기 위한 선행조건은, 더 많은 독자들에게 글이 읽혀지는 것이다. 블로그레벨(BlogLevel) 사이트⁴⁷⁾의 평가 요소들을 살펴보면, 영향력(influence), 인기도(popularity), 참여도(engagement), 신용도(trust)의 네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중 영향력의 평가 항목에 대해, 검색사이트에 링크되어 있는 페이지의 수, 블로그 링크에 유입되는 독자 수, 블로그의 고정 독자 수, 트위터 등 SNS에 링크, 인용 횟수를 측정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은 결국 인기도, 즉 블로그 방문객, 링크의 확산/유통 정도에 영향을 받음을 밝히고 있다. 결과적으로 블로그의 영향력은 인기도와 정적 상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 방문객 수에 대해서 의식 하세요?

책바우어: 의식할 때 있죠. 제가 힘들어서 쓴 것이니까요. 정말 공들여서 썼는데 댓글이 없잖아요, 방문객 수도 적고. 그럼 의기소침해지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싫어요. 물론 정말 성의 없이 썼는데 갑자기 대박이 날 때가 있어. 포털 메인에 오르거나 하는. ‘그럼 이게 뭐지?’ 싫어요. ‘그동안 내가 잘못된 건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힘을 안 들었는데, 오히려 잘 되면 반대로 내가 그동안 잘못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물론 기쁘기도 하지만 자책을 해보는 거죠.

[2012-09-12 ‘책바우어’ 면담자료]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자신들의 글이 양질의 정보로서 좋은 평가를 받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고 있다. 그것이 블로그 글쓰기에서는 그것이 강력한 글쓰기의 동기로 작동하고 있었다. 필자들이 글의 반응에 대해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는 바로 방문객의 수, 포스트의 확산 정도(스크랩, 리트

47) <http://bloglevel.edelman.com/> 글로벌PR 컨설팅 업체 에델만이 개발한 서비스로, 40여개 메트릭을 이용하는 지수 알고리즘을 통해 블로거와 트위터 이용자의 영향력을 측정해 기업과 브랜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블로그와 트위터 각각 서비스 되고 있으며, 이 결과는 현재 미국 언론사에서 영향력 있는 블로거, 트위터를 선발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2012년 10월 현재, BlogLevel에서 공시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블로그는 미 방송국 CNN의 ‘Top Sroties’이다.

윗 등)이다. 이것은 독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즉, 전문 블로거들이 방문객 수를 측정하는 카운터를 메인화면의 눈에 띄는 곳에 배치한다거나 블로그 스크랩이나 구독자 수 이외에도 마이크로 블로그나 페이스 북과 같은 단문형 SNS 배너를 배치하는 것은, 자신의 글이 좀 더 많은 독자들에게 신뢰롭게 읽히지도록 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인 것이다. 그리고 이는 지금의 필자가 텍스트의 생산 뿐 아니라, 자신이 생산한 텍스트의 유통과 수용까지 고려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즉, 인터넷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디지털 필자의 글쓰기 과정은 글의 수정에서 종결되는 이전의 글쓰기 과정에서 더 나아가, 출판과 유통, 그리고 독자의 반응에 따른 재수정과 재출판의 과정을 더한 확장된 새로운 글쓰기 맥락에서 문식 실행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카테고리

블로그 메인 화면에 반드시 존재하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해당 블로그의 카테고리이다. 이것은 블로그에 모아놓은 글을 분류하는 기능을 한다. 블로그는 개인의 글이 시간 역순으로 업로드 되기 때문에(Blood, 2002), 필자가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글을 분야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병행해야만 한다. 이러한 분류 작업은 정해놓은 틀이 없으므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필자의 의도에 따라 자유롭게 명명되고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작업은 인쇄 매체 글쓰기의 ‘목차 짜기’와 유사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즉, 책의 목차에서 재매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독자는 이 카테고리를 통해 자신이 찾고자 하는 내용의 글을 손쉽게 찾아갈 수 있게 된다.

블로그의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해당 블로그에 어떤 소재, 유형의 글이 올라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카테고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블로그를 운영하는 필자가 그와 관련한 텍스트를 생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책바우어’는 대륙별/국가별로 여행기 카테고리를 만들어 두었으며, ‘분홍번짐’의 경우 창작물의 분량별(단편, 장편), 장르별(수필, 시, 소설 등)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카테고리는 블로거의 개성에 따라 자유롭게 명명되고 생성, 통합, 삭제될 수 있다.

관심사에 대한 나의 생각을 기록해 두기 위해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계속 카테고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각각의 카테고리를 소개하는 매뉴얼을 작성해서 공지사항으로 띄워놓을까 생각 중이에요.

[2012-09-12 ‘책바우어’ 면담 자료]

‘책바우어’는 각 카테고리에 대한 설명을 적어놓은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의 블로그 독자들은 정보를 찾기 위해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항목을 상세화하여 독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여행기나 맛집 리뷰 등의 정보 텍스트 중심의 글을 생산, 유통하는 그의 블로그 성격에 적합한 행동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시사평론 중심의 글이 올라오는 ‘인생절정’은 예전의 글을 검색하여 오는 독자보다는 현재 이슈가 되는 쟁점에 대한 그의 의견을 알아보러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이유로 그는 카테고리의 수를 간결하게 정리하여 메인 화면에서 카테고리가 차지하는 비중을 최소화시켰다. 이러한 조정행위는 자신의 글을 읽으러 찾아오는 유입 독자들의 유형과 성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루어진 결과이다.

인터넷이란 새로운 글쓰기 공간에서 활동하는 디지털 필자들은 종이, 책 등의 실물이 아닌 가상공간에 자신의 글을 위치시킨다. 이때 생성되는 글의 좌표를 ‘URL 주소’라 한다. 이 주소만 있으면, 인터넷 공간 내에서는 하이퍼링크를 통해 어느 곳에서든지 바로 글에 접근할 수 있다. 인용된 문서를 찾기 위해 책을 빌리거나 구입해야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그만큼 변화된 글쓰기 공간 내 글의 유통과 확산은 이전의 글쓰기 환경과 가장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블로그에 직접 접속한 독자들은 책에서 목차를 보고 글의 내용을 예측하여 찾아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로 블로그 내 검색창이나 색인을 통해 글을 찾거나 또는 필자가 분류해 놓은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글을 골라 읽는다. 즉, 블로그의 카테고리는 블로그 필자의 글 모음집 목차와도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블로그의 목차는 블로그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색다른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블로그의 제목과 카테고리에 ‘팩토리(factory)’를 넣고, 자신을 스스로 ‘공장장’이라 부르는 ‘첸들러’의 예가 대표적인 것이다.

연구자: 블로그 카테고리에 ‘팩토리(factory)’를 모두 넣어 정한 이유는요?

첸들러: 앤디 위홀의 영향이에요. 그가 이야기한 팩토리라는 개념이 좋아서요. 그리고 ‘공장장’이란 어감도 맘에 들어요. 뭐랄까. 예전에 문화를 인텔리들이 독점했던 그런 시대가 있잖아요. 그런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문화의 대중화를 이야기했던 게 앤디 위홀의 공헌이라고 생각해요.

연구자: 앤디 위홀의 이야기는 어디에서 접한 거예요?

첸들러: 사실 책을 읽은 건 아니고요. TV를 통해 봤어요. 그걸 보고 관심을 갖게 되어서, 지난번에 전시회도 다녀왔어요. 그리고 그냥 앤디위홀의 그런 생각이 좋아서 블로그 만들 때 가져다가 썼어요.

[2012-10-07 ‘첸들러’ 면담 자료]

독자들은 포털 사이트의 검색을 등을 통해 블로그에 처음 찾아온다. 블로거들에게 제공되는 블로그 통계를 보면, 방문객 수와 함께 ‘페이지 뷰(page view)⁴⁸⁾’의 수치도 제공이 된다. 방문객 수와 페이지뷰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독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 한 블로그에 들어와서, 단지 하나의 글만 읽고 가는 것이 아니라, 블로그에 축적된 자료와 다른 포스트를 읽고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을 미루어 볼 때, 블로그 필자들이 블로그 카테고리를 독자들의 편의에 맞게 구성해 놓는 것은 블로그의 가독성과 체류시간 측면에서 볼 때, 의미 있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6) 엠블럼⁴⁹⁾

2007년 즈음부터 생겨난 국내 각종 사이트의 파워블로거 제도는, 추상적으로 짐작만 하던 개별 블로그의 영향력을 공인하는 역할을 하였다.⁵⁰⁾ 연구 참여자 가운데 각 기관에서 파워블로거로 선발된 사람들은 모두 공식적으로 제공된 엠블럼

48) 페이지 뷰=총 포스팅 페이지수+목록수

49) 메달이나 로고 모양의 이미지. 대개 수상 이력이나 모 기관에서 선발된 공식 블로그에 달아주는 표식이다. 이를 통칭하여 ‘엠블럼’이라고 일컫는다. 일종의 배지의 역할을 한다.

을 메인화면에 게시하거나 프로필에 명시하고 있었다.

엠블럼은 대개 사람들의 눈에 매우 잘 띄는 프로필 부근에 배치되어 있다.⁵¹⁾ 블로거가 탈부착을 결정할 수 있으나 위치 결정은 할 수 없다. 즉, 방문객이 해당 블로그에 들어왔을 때, 메인 이미지와 프로필 사진과 함께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위치에 엠블럼이 놓인다는 것이다.

포털에서 선발된 블로거가 몇 년도 어느 분야 파워블로거라는 엠블럼을 블로그 메인에 게시하는 것은, 블로그에 방문하는 독자에게 자신의 글이 가진 인지도와 신뢰도를 인지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적어도 사람들에게 내 글을 신뢰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때때로 그런 증거들을 요구하거든요. 아마도 다른 블로거들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인지, 저 역시 이 엠블럼이 있는 블로그의 글은 좀더 신뢰하게 되더

35) 민간 영역의 파워블로그 프로그램(한국언론재단, 2010)

블로그 운영기업	운영 내용
네이버 (파워블로그) 	2008년부터 실시 - 선정 기준: 블로그 활동성 지수, 인기도 지수 및 포스트 주목도, 인기도 지수 - 지원 프로그램: 파워블로그 엠블럼과 퍼스나콘 제공, 블로그 페이지에서 소개
다음 (우수블로그) 	2007년부터 실시 - 선정 기준: 미공개, 매년 100명씩 발표(‘블로그를 통해 양질의 정보를 공유하고 방문자 분들과 소통이 활발한 블로그’로 정의) - 지원 프로그램: 엠블럼, 다음 뮤직이용권, 다음 홈페이지 내 홍보, 신규 베타서비스 체험단
야후 (Top블로그) 	- 선정 기준: 미공개, 1주일 단위, 2009년 12월까지 운영 - 지원 프로그램: 엠블럼, 야후 블로그 홈페이지 상단에 노출
티스토리 (파워블로그) 	2007년부터 실시 - 선정 기준: 블로그의 포스팅, 댓글이나 방명록, 트랙백과 같은 활동성, 다른 블로거와 소통 정도,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는지 등 15가지 정도의 내부 평가 기준(3회 연속 선정되는 경우 Best of Best로 별도 선정) - 지원 프로그램: 엠블럼, 검색 노출도 상위 제공
올블로그 (파워블로그) 	2007년부터 실시 - 선정 기준: 미공개, 매년 100명 발표 - 지원 프로그램: 엠블럼, 검색 노출도 상위 제공

51)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엠블럼의 위치가 프로필 사진 바로 하단으로 고정되어 있다.

라고요.

[2012-10-07 '채들러' 면담 자료]

파워블로그 엠블럼은 포털 사이트에서 정한 몇 가지 기준에 충족하는 필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표식이다. 일종의 '훈장'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독자들이 읽는 글을 쓰고 있는 필자라는 공인된 자격으로도 기능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엠블럼과 같이 공식 선발 이력이나 수상 경력 등을 자신의 글쓰기 공간의 가장 주목도가 높은 위치에 배치하는 것은, 일반인 필자가 권위를 획득하는 일종의 수단인 셈이다. '다크블루'는 이런 장치에 대해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영화가 포스터에 수상기록을 넣어 홍보를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블로그의 메인화면은 블로그의 전체 디자인이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각 연구 참여자의 복합양식적 감수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전문 필자들이 생산한 텍스트 분석에 앞서, 각 필자들이 구성한 메인 화면의 구성틀을 분석한 것은 각 필자들이 자신들의 글이 발행될 지면을 어떻게 구성하고, 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탐색해 보기 위해서다.

독자는 블로그의 메인화면에서 해당 블로그에 대한 첫인상을 갖게 된다. 필자들은 이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런 이유로 블로그 메인의 미적인 디자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또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와 이제까지 쌓아온 글쓰기 경력, 또는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었다. 이전과는 달리, 디지털 필자들이 텍스트의 유통과 소통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블로그 방문자 수나 유입경로 등에 대한 관심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은 필자 스스로 플랫폼을 선택하고 이를 운영하게 된 글쓰기 공간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생산하는 텍스트의 양상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이어진 장에서 기술하도록 한다.

2. 블로그 포스트 분석

블로그 포스트는 복합양식 텍스트의 성격을 가진 대표적인 텍스트이다. 특히,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최소 3년 이상 동일한 매체에 지속적으로 텍스트를 생산해 온 전문 필자로서 매체 친숙도가 일반 필자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분명 현재 생산되고 있는 텍스트에 점차 다양한 양식의 표현이 쓰이고 있는 것은 확실하나 이것은 모두 독자의 의미구성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변화된 외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각각의 장치가 필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어떻게 조력하는지를 구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창윤(2003)이 지적한 대로, 문자 언어와 영상 언어가 함께 포함된 텍스트를 분석할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한 복합양식 텍스트가 갖는 전체의 의미와 각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수월치 않기 때문이다. 그는 각 요소의 합이 반드시 전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오히려 각각의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경우가 지배적이며 이는 부분적 요소들의 의미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면서도 전체의 의미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확대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장에서는 앞의 메인 화면과 마찬가지로, 크레스와 반리우웬이 제안한 서술형 구조틀(description framework, 1998)을 통해 텍스트의 레이아웃을 분석하되, 이를 블로그 포스트의 형식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블로그는 복합양식 텍스트의 성격을 잘 구현하고 있는 플랫폼이긴 하나, 긴 글쓰기에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 이전의 인쇄매체 쓰기와의 재매개(Bolter, 2006)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블로그는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상호작용성이 강한 플랫폼임을 고려하여 전문 블로거의 독자고려 양상을 별도로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PAIR 전략(정혜승 & 서수현, 2009)⁵²⁾의 틀을 참고하였다.

52) PAIR 전략은 구체적으로 위치정하기 전략, 끌어들이기 전략, 정보 조절하기 전략, 반응에 응답하기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글을 쓸 때에 필자가 동원하는 독자 고려 전략을 언어 표현 수준(위치 정하기), 내용 수준(정보 조절하기), 독자와 텍스트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수사적 수준(끌어들이기, 반응에 응답하기)의 차원에서 구현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서수현&정혜승, 2009)

앞서 밝힌 대로, 이 장은 각 참여자의 대표 포스트를 협의 하에 최소 3편씩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⁵³⁾ 필요에 따라 연관된 포스트를 참조하였으며, 삼각검증을 위해 면담과 연구 노트를 활용하였다. 블로그는 독자들의 댓글과 이에 대한 필자의 댓글이 자유롭게 게시될 수 있는 바, 댓글 자료 역시 분석에 참고하였다.

‘양식(mode)’은 의미 구성에 대한 다양한 잠재성을 가진다. 예를 들어, 인쇄매체 텍스트의 경우, 쓰기(writing)는 문법적으로 결합한 단어와 구, 문장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이곳에도 ‘그래픽(graphic)’ 요소가 존재한다. 바로 글꼴, 글씨 크기, 진하기, 띄어쓰기 등이다. 여기에 문장단위, 문단, 갈래와 같은 형식(frame)도 개입된다. 또 인용부호나 줄 간격과 같은 그래픽 요소가 첨가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 더 확대되어 레이아웃(layout)의 요소를 넣어 텍스트에 ‘구역(block)’을 설정할 수도 있다. 이것은 문화적 배경에 따라 각기 다른 양태로 존재하며, 해석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내포(Kress, 2009)한다.

이 장에서는 블로그 텍스트의 복합양식적 특성을 전문블로거의 실제 텍스트 분석을 통해 도출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텍스트의 복합양식성의 정도에 따라 7명의 블로거를 크게 문자 텍스트 중심형(인생절정, 분홍번짐), 이미지 텍스트 중심형(책바우어, 도일리), 융합형(다크블루, 캔들러, 요시히코) 이렇게 셋으로 분류하였다. 물론 한 필자가 생산한 텍스트가 일제히 동일한 정도의 복합양식성을 띠는 것은 아니다. 다루고 있는 내용이나 주제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경향성은 필자마다 드러나며,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경향성을 근거로 하여 블로거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논의하여 선정한 분석 대상 텍스트를 중심으로, 문자 텍스트와 이미지 텍스트가 차지하는 비율을 메시지 중요도와 면적 단위로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이미지 텍스트를 사용하더라도 이미지 원형을 중시하는 경우와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적으로 이미지를 활용하는 경우를 구분하였다. 그리하여 문자 텍스트의 비중이 큰 경우를 ‘문자 텍스트 중심형’ 필자로, 이미지 텍스트의 비중이 큰 경우를 ‘이미지 텍스트 중심형’ 필자로 분류하였으며, 이 둘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변형,

편집하여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 필자를 ‘융합형’ 필자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렇게 필자를 분류한 이유는 블로그가 필자가 복합양식성을 구현할 수 있는 표현 범위가 높은 플랫폼이긴 하나, 필자의 행동유도성과 관심 분야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정한 분석 기준을 적용하는 데에 다소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일한 분석틀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중요한 강조점을 놓칠 수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문자 텍스트 중심형’은 기존의 매체와 재매개가 높은 경향을 보이므로 기존의 텍스트 분석틀을 참고하는 것이 더 적절하며 ‘이미지 텍스트 중심형’은 이미지 분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연구자는 판단하였다. 블로그 텍스트의 진화형인 ‘융합형’은 문자 텍스트와 이미지 텍스트가 혼합된 경우로 볼 수 있으나 대개 디지털 기기의 행동유도성이 높은 필자들이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각기 다른 복합양식성을 가진 텍스트가 조력하는 형태가 두드러진다고 보고 각 요소 별 상호관계성에 주목하여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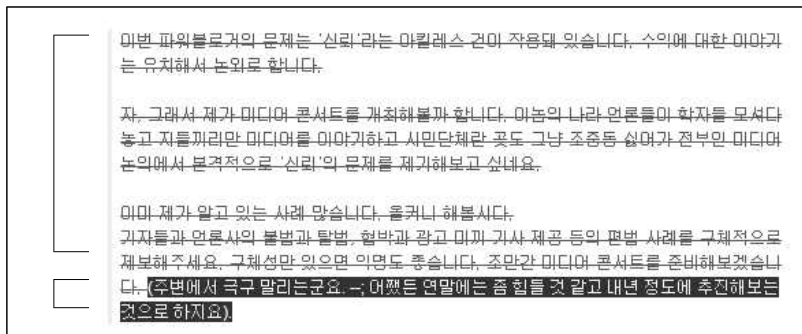
이어질 절에서는 앞선 절과 마찬가지로 Kress(2009)가 이야기한 고정성(fixing)과 구성틀(framding)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각 필자들이 속한 유형에 따라 분석의 틀을 적절히 조정하여 강조점을 달리 두고 기술할 것이다.

1) 문자 텍스트 중심형: ‘인생절정’, ‘분홍번짐’

문자 텍스트 중심형의 필자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문자 텍스트로 구현하는 필자’를 말한다. 이 분류에 해당하는 ‘인생절정’은 IT/시사 영역, ‘분홍번짐’은 문학/에세이 영역의 전문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다. 이 둘의 공통점은 텍스트 길이가 긴 문자 텍스트 위주의 글을 발행한다는 것이다. 사진, 그래픽, 동영상 등의 이미지 자료를 사용하는 대신, 문자 텍스트 생산에 주력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 둘에게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인생절정’의 경우 높은 수준의 행동 유도성을 가진 필자인 반면, ‘분홍번짐’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체 활용도가 낮은 필자라는 것이다. 이러한 둘의 차이를 텍스트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53) 분석 대상 포스트 목록은 [부록] 참조

‘인생절정’의 “파워블로거 문제, 대답하기 지겨워 정리함” 포스트를 워드로 옮기면 분량이 원고지 118매에 달한다. 긴 글임에도 불구하고, 이 포스트의 댓글은 64개, 트랙백은 7개이다. 댓글 반응하지 않은 독자들을 감안하였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었다고 할 수 있다. 블로그 포스트를 복합양식 텍스트라고 하는 일컫는 것은, 이미지와 음성, 영상 등의 다양한 양식의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생절정’의 경우, 문자 텍스트 중심의 포스트를 발행하면서도 다양한 복합양식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그림 V-5> 문자텍스트에서 구현하는 복합양식성의 예

이것은 본 포스트의 서두이다. 문단 왼편에 열은 톤의 세로 선을 삽입하고 들여쓰기를 함으로써, ‘글을 읽기 전에’와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 이것은 잡지나 신문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편집 방식으로, 대개 편집자 주를 삽입할 때 사용하는 디자인이다.

이 부분의 흥미로운 점은 텍스트의 ‘취소선’을 활용(①)하였다는 것이다. 블로그 포스트의 특성 상 삭제해야 하는 내용이었던 사후 완전 삭제도 가능한데, 필자는 이 부분을 그대로 남겨 둔 상태에서 취소선을 삽입하였다. 현재 유효한 내용이 아님에도 문장을 남겨놓은 것은, 이후에 들어와 글을 읽을 독자들에게 처음 포스트를 발행할 때와는 다른 사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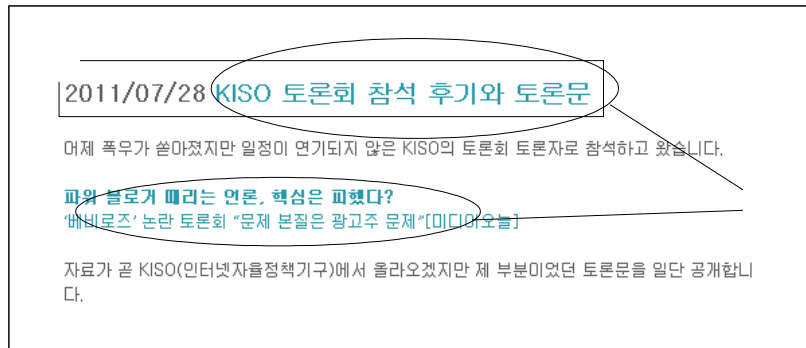
다. 반전 처리된 부분(②)에서 앞의 내용에 취소선이 그어진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강한 대비를 보이는 색을 사용함으로써 인쇄 매체에서 형광펜이나 사인펜으로 표시하는 것과 유사한 ‘강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Kress, 2009). 이러한 표현은 양식에 관계없이 통용되는 전략으로, 인쇄매체 쓰기에서 재매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블로그와 같은 인터넷 글쓰기의 장점은, 발행한 뒤 필요에 따라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위 글의 내용을 읽어보면, 시간에 따라 텍스트의 형태가 변화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애초의 텍스트는 취소선(①)이 없는 상태의 텍스트였다는 것이다. 포스트 발행 후에도, 필자가 독자의 반응을 살피고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강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반전 처리된 부분(②)은 이 포스트를 발행한 이후, 독자와 주변 지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사후 보고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독자들은 이를 통해, 필자와 상호 소통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문단이 나뉘는 때마다 한줄 여백을 두는 것 역시 블로그 텍스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글의 세로축이 길어지면 독자가 스크린(스크롤54)을 내려야하는 부담을 감수해야만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글자 행간 여백을 크게 주면 눈의 피로를 덜어 가독성을 높이는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한정된 지면을 기반으로 하는 신문이나 잡지에서는 실현하기 힘든 편집 방식이다.

이렇게 ‘인생절정’의 텍스트는 문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선과 명암, 여백, 구역 나눔을 활용하여 텍스트에 다양한 복합양식성을 구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층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것을 크레스(2009)는 쓰기(Writing) 양식에서 구현되는 복합양식성이라 표현하였으며, 구 매체의 쓰기에서 재매개되는 능력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실천은 ‘인생절정’이 자신의 텍스트에 적절한 복합양식성을 적용(適用, fitting)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글쓰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의 활용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한다.

54) 인터넷 텍스트는 페이지를 넘기는 대신, 우측의 Drop Bar를 조정하여 진도에 맞춰 글을 읽는다. 이 작업을 ‘스크롤(scroll)’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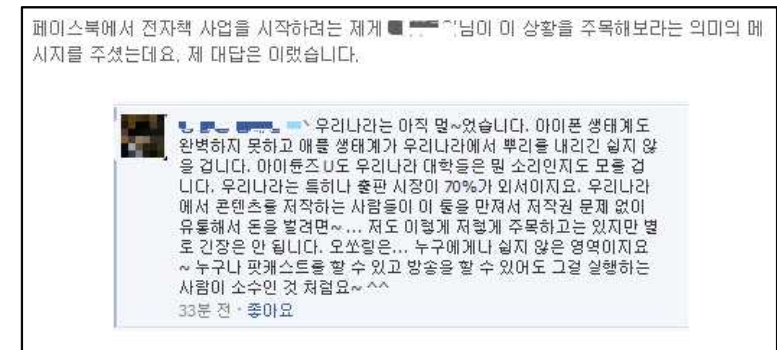


[그림 V-6] 블로그 텍스트에서 하이퍼링크의 활용 예

글자 크기를 변형하는 것(①)은 문자 텍스트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강조 기법 중 하나로 앞에서와 같이 인쇄 텍스트에서 채택된 것이다. 또한 이 부분엔 다음과 같은 하이퍼링크(②)가 포함되어 있다. 이 글에서 담지 못하거나 더 읽어야 할 내용이 다른 도메인에 위치할 경우, 해당하는 글을 소환해 오는 것이다. 하이퍼링크는 이전과 변화된 인터넷 글쓰기 공간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로, 이러한 하이퍼링크를 통해 글쓰기 공간은 무한하게 확장될 수 있다. 인쇄매체에서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참고문헌’ 목록이나 ‘각주’인데, 이것은 독자가 다시 해당 문서를 찾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하이퍼링크의 경우 클릭만으로 관련된 문서를 바로 찾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프로울리(Frawley, 1987)는 이를 문식성(literacy)의 시대를 넘어서는 극문식성(하이퍼리터러시, hyperliteracy) 시대의 특징 중 하나로 분석하였다. 어떠한 분야의 지식이 텍스트로 축적되어 있다면, 새로운 지식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구축된 텍스트의 일부를 전복하는 작업, 또는 해체하는 작업이 뒤따라야만 한다. 이 경우, 새로운 지식은 특정한 담론이 이루어지는 공간 내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권위를 가진 절대적인 텍스트를 중심으로 위계적으로 정렬된 것이 아닌 여러 개의 텍스트가 평평한(plurality) 담론의 공간에 나란히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진중권(2012)은 이러한 사고방식의 표현을 ‘몽타주’에 비유한 바 있는데, 다

양한 텍스트가 하나의 블로그 포스트 안에 다양한 위계를 가지고 각 부분이 섞여 새로운 텍스트로 재조합되고 정렬되는 작업을 일컫는 것이다. 실제 ‘인생절정’의 분석 포스트는 하나의 주제에 따라 법조문의 링크와 신문기사, 좌담회 토론문 등이 하이퍼링크를 통해 조합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로다른 부분이 얹혀 새로운 작품이 되는 ‘몽타주식 글쓰기’로 볼 수 있다. 우리는 해당 포스트를 통해 각 부분의 모습뿐 아니라 그 부분이 포함된 전체를 연결된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은 하이퍼링크 말고, 장면 갈무리 이미지를 삽입함으로써 대체할 수도 있다. 다음 [그림 V-7]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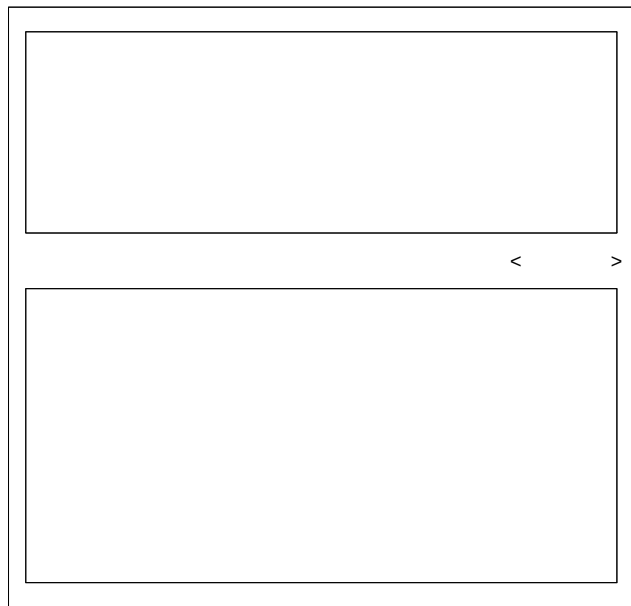


[그림 V-7] 블로그와 페이스북의 절충적 사용

블로그에 자신의 페이스북 댓글을 장면 갈무리하여 삽입하였다. 글을 복사해서 넣거나 아니면 해당 글의 독자적 링크를 가져올 수도 있으나, ‘사진’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독자가 거쳐야 할 몇 가지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하고 있다. 이것은 복합양식 텍스트 활용의 예로 보기보다는, ‘문자 텍스트의 인용’에 더 가깝다. 즉, 교과서 등에 실리는 지도나 삽화 등의 기능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인생절정’은 이 부분에 자신의 페이스북 댓글을 장면 갈무리하여 삽입함으로써, 독자들이 1)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링크를 클릭하여 읽기 공간을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 피하면서, 2) 다른 공간(페이스북)에서 이뤄진 대화 가운데 자신의 발언을 반복 없이 그대로

옮겨올 수 있으며, 3) 이 대화가 ‘페이스북’에서 실제로 이뤄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위와 같은 경우는 논문과 언론기사 등지에서 자주 사용되는 ‘참고문헌’ 또는 ‘인용’의 사례와 유사하다. 이와 같이 ‘인생절정’은 자신의 블로그를 ‘문자 텍스트’ 중심의 콘텐츠로 구성하는 한편, 다양한 매체에서의 대화와 발언들을 첨부함으로써, 내용의 신뢰도를 획득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그가 블로거로 활동하기 이전부터 언론사의 기자로 10여 년 간 근무했던 경험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대중 글쓰기에 대한 높은 ‘행동유도성’을 가지고 그때 습득한 매체 지식을 적절하게 ‘재매개’하는 필자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생절정’은 1인 미디어로서의 블로그 공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강력하게 자신의 주장을 어필하는 전략에 익숙한 ‘훈련받은 필자’인 것이다.



[그림 V-8] 문자 텍스트와 이미지 텍스트의 단순 결합

반면 ‘분홍번짐’의 경우는 보다 ‘문자 텍스트적 요소’가 강한 양상을 보인다. [그림 V-8]은 ‘분홍번짐’의 포스트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텍스트 구성틀(Framing, Kress, 2009)로 상단에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사진과 사진을 가져온 사진 출처, 그리고 문자 텍스트가 삽입된다. 글자체, 모양 등도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문단 사이에 행의 띄어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인쇄매체에서 볼 수 있는 텍스트 양식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분홍번짐’의 글쓰기 과정 역시 일반적인 인쇄매체 텍스트 생산 과정과 비슷하다. 텍스트를 워드 파일에 작성한 다음, 블로그 편집기에 옮겨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발행하는 플랫폼이 블로그와 같은 인터넷 공간이나 종이 인쇄냐의 차이만이 존재한다.

그러나 ‘분홍번짐’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차이는 이러한 편집양식의 차이보다는, ‘소통관습의 차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문학 작가들은 문예지나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고 나서, 일정 정도의 지면을 확보하고 나서야 그들의 작품이 독자들에게 읽힐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의 인지도를 얻은 작가들이 단편집이나 장편소설의 단행본 출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이런 디지털 글쓰기가 발달하게 되면서 창작을 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굳이 출판사를 거치지 않아도 많은 독자들에게 자신의 창작물을 읽힐 수 있게 되었다.⁵⁵⁾ 기존의 대중매체, 출판물이 가지고 있던 권위가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읽을거리로 인해 그 지분이 이전되고 있는 추세가 된 것이다. 그 원인으로 이전에는 기회를 갖지 못했던 다양한 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더 쉽고 빠르게 독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되었으며, 블로그 등과 같은 플랫폼의 발달로 인해 일부 필자들은 독자적인 소통수단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 필자와 독자들이 문식성을 실천할 수 있는 범위가 그만큼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 세간에 알려지게 된 필자들이 출판사의 섭외를 통해 책을 출간하는 일도 잦아지고 있다.⁵⁶⁾

55)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나 연예인 동호회에서 팬픽을 창작하고 이를 공유하는 것도 이와 유사한 맥락이다.

56) 이 연구참여자 가운데 ‘인생절정’은 블로그를 통한 실험적 글쓰기 수행하고 이에 대한 경험과 분석을 종합하여 단행본을 출간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도 새로운 책을 집필 중이다. ‘분홍번짐’은 최근 그녀의 창작소설을 읽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해온 기성 작가의 권유로 신춘문예에 응모한

‘분홍번짐’의 경우 블로그를 복합양식 텍스트의 구현보다는 자신의 텍스트를 타인과 공유하고 이를 매개로한 소통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그녀는 심층면담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나의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해요. 처음에 댓글이 달렸을 때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댓글은 ‘인터넷에 오른 원문에 대하여 짧막하게 답하여 올리는 글(국립국어대사전)’로 정의할 수 있다. 조국현(2007)은 댓글의 텍스트적 성격에 대하여 1) 항상 특정한 게시물과 연관되는 텍스트로 게시물과 댓글 사이에 상호텍스트성, 즉 ‘유형 상호적 연관성’이 존재하고, 2) 동일한 공간 속의 게시물에 본문 텍스트에 부속된다는 점에서 ‘기생 텍스트’의 속성을 띄며, 3) 게시물에 대한 작성자의 반응이라는 점에서 게시물과 댓글이 ‘대화적 텍스트’의 속성을 지닌다. 또한 4) 메신저와는 달리 비동시적인 속성을 갖기 때문에 ‘의도성, 동기성’을 띄며, 5) 공개된 공간에서 생산, 소비되는 텍스트로 공적이고 사회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분석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전문 블로거들의 경우, 필자와 독자들과의 댓글 상호작용이 매우 활발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중 아날로그 세대의 필자라고 할 수 있는 ‘분홍번짐’의 댓글은 다른 필자들보다 인쇄매체, 특히 먼대면 만남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은 ‘분홍번짐’의 “블로그 ... 나의 희망” 포스트에 달린 댓글 중 하나와 이에 대한 이에 대한 필자의 반응이다⁵⁷⁾.

술방울(가명): 누군가가 언니가 부모가 선배가 나에게 조금만이라도 힘이 되어 주었더라면 하는 불평불만을 가져본 적도 있고 가끔은 그때 그렇지 않았더라면 하는 회한도 가져보지요. 그렇지만 결국은 자기의 인생은 통틀어서 자기가 개척해야 되고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야 된다는 결론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러저러한 불평불만은 시간낭비라는 생각도 들고요. 훨훨 날아 자신의 꿈을 원대하게 펼치기 위해선 멀리 높이 날아보아야만 많은 것이 보이고 많은 것이 느껴진다는 것일까요. 안 해도 될 고생과 사서한다는 경험과 체험은 살

바 있다. 그리고 이전에도 이미 “현재 블로그에 올린 소설작품에 대한 출판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이 연구의 참여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블로그를 책으로 출판하는 경향은 외국에서도 널리 퍼져있으며, 이를 일컬어 블북(blook, blog+book)이라고 일컫는다. 이 단어는 옥스퍼드 영어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에 2006년 정식으로 등재되었다.
57) 여기에는 댓글의 내용만을 가져왔다. 그 과정에서 문자 텍스트만 편집, 수정, 교정하여 제시하였음을 밝힌다. 본 댓글의 이미지 장면 갈무리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아가는데 힘이 되고 보탬이 되어주고 있을까요? 뒤에서 용기와 관심과 기대를 가져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할 거야. 참 잘 했어. 훌륭해. 널 믿어. 전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라고 싶었고 어느 정도는 아버지의 용기와 복돋음을 많이 느끼면서 지금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 나머지의 것은 자신의 영역이지요.

분홍번짐: 20대까지 가족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절대적이었습니다. 한동안 변화에 울렁거리고 부서지고 섞이는 가족 외의 변화에서 가족은 그저 ... 사랑이라는 끈. 그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을. 맞아요, 스스로 뚜벅거리고 걸어야 하는 곳에 길이 생긴다지요. 오오 ... 그럼요. 긍정적인 격려가 정말 필요했고...ㅎ 어쨌면 모두가 그러지 못했나봐요. 술방울 님은 아버지의 따뜻한 격려를 기억하시는군요. 소중한 기억이실 것입니다. 늘 그렇게요. 힘내시는 거 아시지요? 어디에 있든 ... ㅎ

[2011-09-06 ‘분홍번짐’ 포스트 댓글 자료]

‘분홍번짐’의 댓글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점은, 다른 블로그와는 달리 분량이 길고, 독자와 필자와의 심정적 거리가 가까운 상태에서 댓글이 오간다는 것이다. 대체로 ‘분홍번짐’의 포스트 댓글은 본문의 분량보다 훨씬 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내용 또한 상당히 사적이고 자기고백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의 진지함 역시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댓글의 모습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댓글이 전체공개로 많은 이들에게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 블로그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분홍번짐’과 함께 상당히 길고 깊은 대화를 댓글을 통해 주고받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분홍번짐’ 또한 이러한 사적인 내용을 솔직하게 노출하는 댓글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았다. 대개 “블로그에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높고, 닉네임을 제외하고는 본인임을 짐작할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성으로 미루어 볼 때, ‘분홍번짐’과 그녀의 블로그에서 댓글을 주고받는 독자들의 의사소통 양상은 편지나 먼대면 대화에서 재매개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이것은 다른 블로그 댓글 의사소통이 단문 메시지나 메신저 채팅과 유사성이 많은 것과 구별되는 차이점이다. 연구의 참여했던 다른 전문블로거의 댓글은 대개 한 문장에서 다섯 문장 정도로 단문인 경우가 많았으며, 사적인 내

용은 비공개 댓글로 철저히 가려두고 있었다. 이것은 사적인 정보가 노출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크고, 악성 댓글에 대한 피해 또한 익숙한 세대의 사용자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재매개가 문식성을 실행하는 사람에 따라 정도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여전히 문자 텍스트는 사람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위력적인 수단으로 기능한다. 긴 글쓰기를 전제로 하는 블로그가 사람들에게 빠르게 받아들여진 이유는 기존의 인쇄매체와의 공통점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단문 SNS가 사람들의 강력한 호응을 받고 있으나 여전히 블로그의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음은 문식 실행의 주체인 디지털 이주민에게는 여전히 인쇄매체의 메시지 전달방식이 익숙하다는 것일 수도 있다. 아날로그 세대인 ‘분홍번짐’이나 대중매체에 종사해 온 ‘인생절정’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앞으로 이미지와 영상에 더 많은 자극을 받아온 디지털 원주민도 이와 유사할 것인가는 다시금 재고해 보아야 한다. 이어 서술할 이미지 중심형과 혼합형의 필자들의 경우, 디지털 원주민과 아날로그 세대의 과도기적인 위치에 있는 필자들이다. 그들의 문식 실행의 양상을 미루어 추론해 본다면, 이후 필자들의 변화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2) 이미지 텍스트 중심형: ‘잭바우어’, ‘도일리’

인터넷 SNS의 확산과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와 같이 영상 가진 디바이스의 발달은, 이미지 텍스트의 유통에 큰 영향을 미쳤다. 블로거는 기본적으로 ‘필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이전의 필자가 문자 텍스트 생산에 주력했던 것과 비교할 때, 지금의 블로거는 자신이 메시지를 표현하는데 적합한 양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긴 글쓰기를 활발하게 하는 필자를 전제 조건으로 하여, 단일 양식 텍스트 생산과 복합 양식 텍스트 생산 과정의 차이도 비교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 가운데 최대변인 표집을 통해 사진 이미지의 전문성을 가진 필자도 섭외하여 이들의 텍스트 생산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대상이 바로 ‘잭바우어’와 ‘도일리’이다.

이 둘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흥미로운 부분은, 이들이 블로그 디자인으로 1단 구성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진을 크게 전시되어 이미지 텍스트가 부각되는 방식이다. 신문 편집에서도 뉴스의 중요도에 따라 단을 확장하여 이미지와 헤드라인을 크게 배치하는 편집을 활용하는데, 이러한 디자인이 재매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텍스트의 편집에서 ‘크기’를 조정하는 것은 어느 양식에서나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디자인 기법이다(Jones 2009). 다른 연구 참여자들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이 두 참여자의 1단 구성 편집의 의도를 더 확연하게 짐작할 수 있다.

<표 V-4> 연구참여자의 블로그 단 구성

참여자	문자 텍스트 중심		이미지 중심		융합형		
	분홍번짐	인생절정	잭바우어	도일리	다크블루	챌들러	요시히코
단 구성	2단	3단	1단	1단	3단	3단	2단

블로그 플랫폼의 단 구성은 대개 1-3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가운데 1단은, 가로 길이가 최대로 확장되어 있는 형태로, 독자가 출력에 사용하는 모니터의 가로폭 전체를 이미지로 채울 수 있는 구성틀(frame)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미지 중심 블로그로 분류한 2명의 참여자 모두 1단 구성을 채택하고 있다.

원편의 [그림 V-9]는 ‘잭바우어’의 포스트 일부를 장면 갈무리한 사진이다. 가로폭이 스크린을 꽉 채우는 1단 편집인 것을 감안할 때, 사진의 크기가 상당히 큰 사이즈임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디자인을 살펴보기 위해, 축소하여 전체 구도를 먼저 살펴볼 수 있게 하였다.

‘잭바우어’의 경우, 여행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으며, 원편의 포스트는 캐나다 여행 때 다녀온 핫도그 가게에 대한 포스트이다. 사진과 함께 글을 읽을 수 있도록 가급적 단문으로 중앙정렬하여 글을 배치하고 있다. 이 포스트에서 문자 텍스트는 이미지 텍스트의 캡션 기능에 가깝다. 그는 맛집 리뷰의 경우, 일정한 형식을 정해 그 순서에 따라 이미지를 배치하고 기술하는데, 그가 세운 규칙은 ‘가게의 간판 - 메뉴 - 상차림 - 메인 메뉴 - 인테리어’ 순이다. 이 포스트 역시 그 순서대로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⁸⁾

이미지 중심의 텍스트를 생산하는 ‘잭바우어’에게 있어 사진의 색감과 구도는 텍스트 생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 이유로 포스팅 전에 찍어 놓은 사진을 엄밀히 검토하고 선택한 다음, 포스팅을 위한 사진을 순서대로 배열해 정리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 다음 사진에 맞는 내용을 차례차례 적어 넣는다.

[그림 V-9] 이미지 중심의 포스트 편집

58) 상차림과 메인 메뉴, 인테리어는 분량상의 문제로 제시하지 못했다.

이러한 과정은 ‘도일리’에게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는데, 때에 따라 사진의 색감과 사이즈는 사진 편집 프로그램(포토샵 등)을 활용하여 보정 작업을 한다. 사진 역시 필름에서 디지털로 변화하면서, 필름의 양에 상관없이 메모리 저장 용량이 가능한 만큼 여러 장의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으며, 해상도나 렌즈의 발달로 인해 아마추어이지만, 전문가급의 장비와 실력을 갖춘 텍스트 생산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현재 ‘잭바우어’는 직업적으로 사진을 찍고 있으며, ‘도일리’는 취미로 사진을 찍고 있으나 이 둘의 장비 차이는 현저하지 않다. 핸드폰 등에 사진기 기능이 보편화된 것도, 텍스트에 적극적으로 이미지가 활용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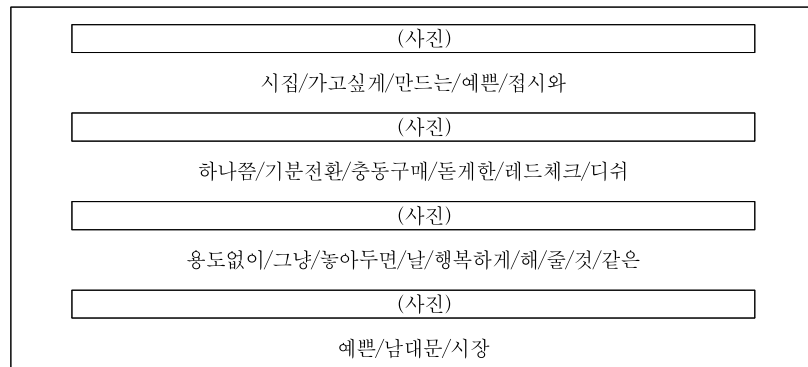
인쇄 매체에서 책의 권위가 낮아진 것과 마찬가지로, 영상 촬영과 관련한 디지털 디바이스가 대중화 되면서 사진 역시 마찬가지로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복제와 이동이 자유롭게 일어나고, 사진의 변형이나 편집도 가능해졌다. 필름이 있어야만 사진의 원본을 구현할 수 있던 예전과 다른 양상이다. 이전보다 더 대량 복제가 용이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이미지 텍스트를 중점적으로 생산하는 필자들의 경우, 저작권을 침해받는 경우도 여러 차례 경험하고 있었다. 그런 이유로, 전문 블로거의 경우, 다음 [그림 V-10]처럼 자신의 이미지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워터마크(watermark)’를 사진에 넣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림 V-10] ‘잭바우어’의 워터마크(화살표 표시: 연구자 주)

글의 복제는 텍스트 대조나 검색 등을 통해 표절 여부를 밝혀낼 수 있으나, 이미지는 파일명을 변경할 경우 검색이 쉽지 않다. 물론, 이 부분을 잘라내고 사용하는 도용 사례도 발견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진의 핵심적인 위치에 워터마크를 배치하는 경우도 있다.⁵⁹⁾ 블로그에 게시하는 사진이라면, 픽셀을 조정하여 원본 파일과 다른(낮은) 해상도의 사진을 업로드 하는 전략도 구사한다. 이것은 자신의 생산물을 널리 유통하고 알리려는 필자의 욕구와 복제와 변형의 위험이 충돌하는 부분으로,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필자 스스로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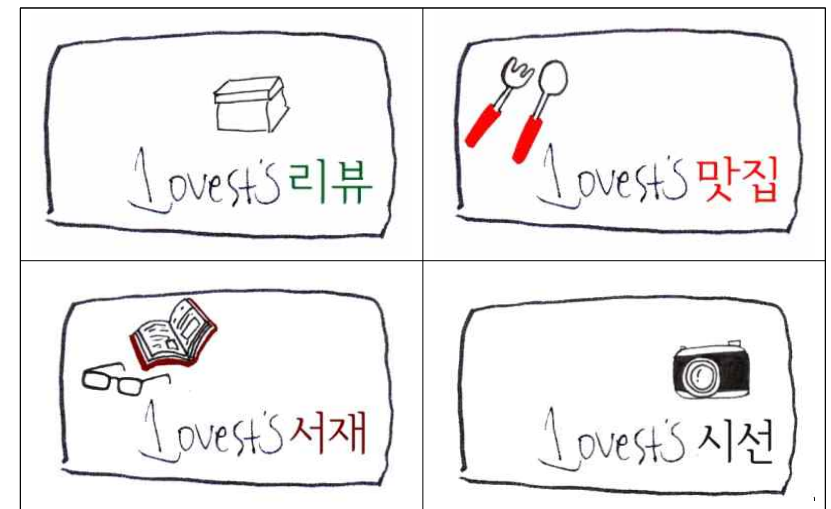
이미지 텍스트는 사진 뿐 아니라 다양한 그래픽도 이용될 수 있다. ‘도일리’는 20대 여성 필자로서, 젊은 직장 여성의 취향을 반영하는 제품이나 볼거리, 먹거리에 대한 텍스트를 생산하고 있다. 사진은 취미로 시작해서 아마추어 공모전 입상을 할 정도로 실력이 늘었으며, 그밖에도 그래픽 제작이나 바탕화면 디자인도 본인이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도일리’는 유행에 민감하고 예쁘고 귀여운 사물에 관심이 많다. 블로그는 여성스러운 색채와 디자인으로 구성했으며, 문자 텍스트는 짧은 단문의 나열이 많다.



[그림 V-11] ‘도일리’의 사진 포스트 구성틀

59) 언론사 등의 사진 데이터 베이스에는 워터마크를 사진 중앙에 박아 견본을 제작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이를 보고 원본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 조선일보, 두산백과 사진 DB 등)

앞의 구성틀은 ‘도일리’의 “예쁜 남대문 시장, 예쁜 소품 출사[2012-04-12]” 포스트의 일부를 도식화 한 것이다. 사진 한 장당 문장 한 행을 써 넣었으며, 띄어쓰기는 ‘/’를 삽입하여 대체하였다. “문법에는 적절하지 않으나 끊어 읽는 감각적인 느낌을 살리기 위해 장치한 것”이었다. 글 자체만 보면 뚜렷한 메시지를 찾을 수 없으나, 바랜 느낌으로 사진을 보정하여 글과 함께 배치함으로써 아기자기한 느낌을 좋아하는 독자들을 유인하고자 하였다. 이 포스트에는 “예뻐요.” 또는 “가보고 싶어요.”, “여기 어딘가요?” 등의 짧은 댓글이 달려있다.



[그림 V-10] ‘도일리’의 자체 제작 아이콘(애니메이션 기능이 있음)

‘도일리’의 블로그의 가장 눈에 띄는 요소는 바로 [그림 V-10]의 아이콘들이다. 가로 폭이 전체 스크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크기로 포스트 상단에 배치된다. 각각의 아이콘에 그려진 사물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부여하여 좌우로 계속 움직인다. ‘도일리’가 직접 제작한 것으로 독자들의 반응도 좋다.

이전에는 이러한 유형의 텍스트 생산자들에게 ‘필자’라는 명칭을 부여하지 않았

다. ‘잭바우어’의 경우, 이전에 논문이나 영화 메일링 잡지를 발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장문의 포스트도 꾸준히 게재하고 있으나, ‘도일리’의 경우 전반적인 블로그의 분위기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자유롭게 보여주고 소개하는 형식으로 꾸며져 있다. ‘큐레이션(curation)’ 행위(Rosenbaum, 2011)가 중점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공연, 전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문화를 다 받아들이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요리 맛있는 거 먹었으면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나를 통해 재창조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한 때 지를 부르는 말로 ‘컬처 프로슈머’란 말을 썼었어요. 혼자서요. (웃음) 그래서 책을 읽어도 내 나름대로 생각을 섞어서 글을 쓰고, 모든 분야들 다 그랬죠. 공연도 보면 나름대로 생각해서 쓰고요. 해보니 분야별로 다 되더라고요. 혼자서 그림을 보면 그림을 보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집에 와서 또 좋아서 (다른 것을) 창작해볼 수도 있고요.

[2012-05-19 ‘도일리’ 면담 자료]

이미지 텍스트를 통한 시각적인 자극은 문자 텍스트를 읽고 상상하는 것과는 다른 자극을 독자에게 전달한다. ‘도일리’는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이미지 텍스트 기록하고 저장하여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유통하는 작업을 블로그를 통해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잭바우어’가 직업적으로 사진을 찍고, 하나의 작품으로서 이미지 텍스트를 생산하는 필자라면, ‘도일리’의 경우 자신의 삶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미지 텍스트를 선택하고 이를 활용하는 필자인 것이다.

‘도일리’의 독자들은 그녀의 텍스트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만난다. 그리고 직접적,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로젠바움(2011)은 기계가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만큼 데이터가 많아진(big data) 시대가 도래하였으며, 이제 사람들은 검색이 아닌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이 고르고 추천하는(큐레이션, curation) 정보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큐레이션의 대표적인 예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핀터레스트(pinterest) 서비스가 이미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SNS란 점 역시, 이미지 텍스트가 갖는 설득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3) 융합형: ‘다크블루’, ‘채들러’, ‘요시히코’



[그림 V-13] 적극적인 이미지 편집의 예

융합형 필자로 이 세 명의 연구 참여자를 분류한 이유는, 이들이 사용하는 복합양식 텍스트가 포스트 전체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조력’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다. 그런 이유로 사진 본연의 모습을 지키기 보다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변형이 나타나며, 이 절에서는 이 부분을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한다. 왼쪽의 사진은 ‘채들러’가 포스트 상단에 배치한 것으로 적극적인 변형을 거친 이미지 텍스트라 할 수 있다.

마치 잡지의 표지 사진과 같은 효과를 위해, 캘리그래피(calligraphy)⁶⁰⁾를 이용하여 포스트의 제목을 사진 안에 삽입하였다. ‘채들러’는 모든 포스트에 위와 같이 포스트의 전체 분위기를 담은 이미지를 첨부하고 있다. 물론 글자의 모양이나 사진의 색감이나 명암 등도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편집한다.

60) 글씨나 글자를 아름답게 쓰는 기술. 좁게는 ‘서예(書藝)’를 이르고 넓게는 활자 이외의 모든 ‘서체(書體)’를 이른다(국립국어원 신어사전, 2004).

비주얼을 신경 많이 써요. 보이는 거. 글보다는 사진이 사람 눈에 먼저 들어오니
 까. 사진 같은 거 편집할 때 포토샵을 많이 사용한다든지. 그냥 사진 올려도 되는
 데 테두리를 올리고요. 글씨 같은 것도 그냥 흔한 거 말고 그라데이션(명암-연구
 자 주)을 준다거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이 읽히게 비주얼 같은 걸 신경쓰는 편이
 죠.

[2011-06-23 ‘첸들러’ 면담 자료(밑줄은 연구자 주)]

‘비주얼에 신경 쓴다.’고 표현하였으나, ‘첸들러’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의 눈
 에 쉽게 들어오고, 또 많이 읽힐 수 있게 포스트를 구성하여 자신이 의도한 메시
 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그에게 이미지는 보조적 장치로, 잡지나 신문
 에서 이뤄지는 의사소통 양상이 재매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필자 스
 로가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이미지 등을 디자인할 수 있게 된 건, 필자의 행동유도
 성이 확장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디지털 미디어는 소리와 이미지의 조작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기호자
 원을 확대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사람들은 이러한 기호 자원을 창의적으로
 사용하여 텍스트를 이해하고 생산한다(정혜승, 2009). 즉, 디지털 미디어에 능숙한
 ‘첸들러’는 다른 필자들보다 그만큼 다양한 차원의 표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필자의 노력은 독자들에게 전달되어 블로그 열독률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융합형의 필자들은 블로그가 등장하고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부각된 새로운 필자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기존의 매체에서
 상당부분 재매개된 ‘텍스트 중심형’의 필자, ‘이미지 중심형’의 필자와는 다른 입
 장을 취하고 있는데, 먼저 위치정하기(positioning)에 대한 분석을 ‘다크블루’의 예
 들어 상술하고자 한다.

‘다크블루’는 앞서 블로그 메인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자신의 독자적인 캐리
 커를 만들 정도로 디자인에 다양한 관심을 갖고 있는 필자다. ‘다크블루’는 ‘영화 애
 호가’와 독자적 매체를 가진 ‘영향력 있는 필자’로서의 위치를 동시에 확보하고 있
 지만, 전문 필자의 입장을 취하지는 않는다. 물론, 그가 영화를 학문적으로 연구했
 다거나 영화계에 종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분명 ‘영화를 좋아하고, 그가 생산

하는 영화 관련 텍스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 독자들에게 항상 ‘당신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임을 강조한다. 일례
 로, 유명한 영화 관계자를 만나 호들갑스럽게 놀라고 흥분하는 내용의 포스트를
 올림으로써 그의 글을 읽는 수많은 ‘일반’ 독자와 함께 그 감격과 감동을 공유
 한다. 즉, 독자와 자신과의 거리를 좁힘으로써 친근한 관계망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것은 필자와 독자 사이의 ‘위치 정하기 전략’으로 볼 수 있다(정혜승·서수현,
 2009). 그 대표적인 예로 헐리우드의 유명 감독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과의 채팅
 인터뷰 후기에서 잘 드러난다.

크리스토퍼 놀란을 인터뷰하다?

... 그러면 믿으실까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와우! 지난주 <다
 크나이트 라이즈> 공식블로그에서 열린 ‘크리스토퍼 놀란과 마이피플⁶¹⁾ 채팅’ 이
 벤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탈럭 선정[?]이 되어, 지금 막 ‘마이피플’에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과 채팅을 끝내고 왔습니다.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내가 지금 크리스
 토퍼 놀란과 이야기를 했던 말이야!!!

[2012-07-09 ‘다크블루’ 포스트 중]

독자들 역시 기성 언론에서 다뤄지는 인터뷰 기사와는 다른 입장으로 글을 읽
 고 반응한다. 영화 잡지의 인터뷰 글을 읽고 ‘이런 배우/감독을 만나서 부럽다.’라
 반응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그러나 ‘다크블루’의 포스트에 가장 많이 등장하
 는 독자의 반응은 ‘부럽다, 멋지다’와 같은 감탄의 표현들이다.

이 포스트에는 122개의 댓글이 달려있다. 다른 포스트의 평균적인 댓글의 개수
 가 3. 40개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숫자이다. 그는 이렇게 특별한 경험
 에 대한 글을 작성함으로써, 많은 이들의 댓글을 유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가
 보통의 영화 애호가들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를 획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실제 이 포스팅을 위해, ‘다크블루’는 영작에 능숙한 지인에게 통역을 부탁
 하여 도움을 받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 그가 이 글을 쓰기 위해 어떤 준비와 정
 성을 기울였는지를 알 수 있다. ‘다크블루’는 글 전체에 자신의 들뜬 감정을 곳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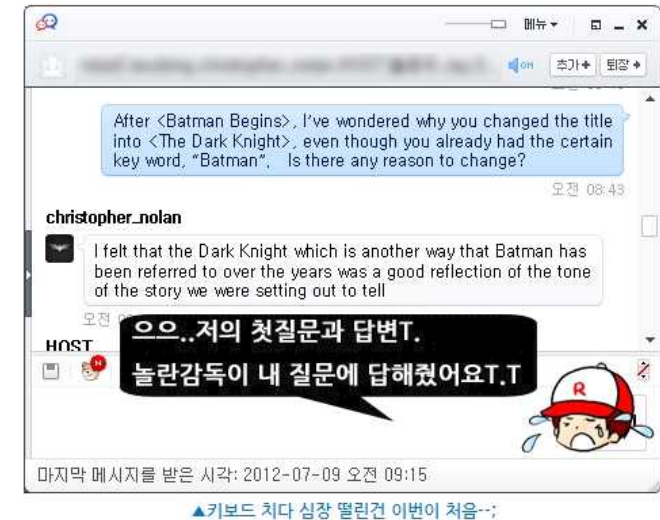
61) 모 포털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메신저 서비스

에 표현함으로써 그가 특별한 사람을 만나고 왔으며, 비록 자신이 평범한 사람임에도 그런 희소한 기회를 잡았다는 것을 은연중에 과시한다. 블로그 글쓰기의 커다란 축인 ‘리뷰’인 것은 이렇게 사람들 각각이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알리고 싶어 하는 욕구에 기인한 바 크다. 독자들 역시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을 들여다보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

영화 전문 블로거가 홍보 효과나 영향력 측면에서 언론사보다 더 큰 힘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영화잡지 기자와 영화감독이 동등한 위치에서 의사소통하는 것과는 달리, 블로거는 매체의 규모와 영향력만으로는 그만큼의 권위를 확보하지 못한다. 물론 이러한 입장은 필자의 나이와 학력, 교육 수준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는 블로거라는 매체가 갖는 사회적인 권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⁶²⁾ 그러므로 블로그 필자, 또는 게시판에서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필자들은 자신의 글만으로 스스로를 표현하고 또 인정받아야 하는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즉, 권위에 빌리지 않고 오직 ‘텍스트 자체’만으로 독자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블로그 필자들은 독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자신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다양한 전략을 고민하게 된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과 같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필자들의 경우라면 이러한 욕구는 더 강해진다.

인터넷의 글쓰기는 소통하고자 하는 욕망의 표현인 동시에 타인과 연결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윤여탁 외, 2008). ‘다크블루’의 경우 이러한 인정 욕구에 기인한 자기 과시형 글쓰기가 분명한 형태로 드러난다. 다음의 예를 보자.

62) 전술한 대로, 메인 화면에 ‘파워블로거 엠블럼’을 게시하는 것은 이러한 공인받은 권위를 입증하기 위한 필자의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V-14] <다크나이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과의 채팅 인터뷰 중

‘다크블루’는 인터뷰 포스트에서 놀란 감독과 자신이 채팅으로 나눈 모든 질문과 답변을 블로그에 포스팅하였다. 그 가운데, 자신의 질문과 답변은 어떻게 별도로 채팅창 장면 갈무리 사진을 추가하고, 그 사진 안에 자신을 상징하는 캐릭터를 삽입, 재편집하여 게시하였다. “독자들이 모니터 너머에 있는 필자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해주는 것처럼 실감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다크블루’는 블로그 내에 ‘근영버닝모드’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둘 정도로 특정 여배우의 팬을 자처하고 있다. “배우를 좋아하는 팬덤이 영화 블로거로 활동하는데 원동력이 되었다.”고 밝힐 정도로, 그의 텍스트 생산 동기에 강력한 동인이 되었다. 이것은 정혜승(2009)에서 논의되었던, ‘팬의 문식성 실천’의 일례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팬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바로 ‘근영체’로, 서술어의 어미를 좋아하는 배우의 이름인 ‘근영’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 ‘근영체’의 사용은 200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현재도 활발하게 사용 중이다. 심지어 그의 독자들까지도 이에 호응해 ‘근영체’를 사용하여 댓글을 달아주기도

한다.

근영버닝모드 중간결산 특집 제2탄! 네!! 오래 기다리셨근영 - ... (중략) ... 그보다 더 체계적이고 팬심으로 재미있고 아름답게[? 혹은 초절정 귀여움 --?]으로 포스팅해보겠근영.

[2007-07-27 ‘다크블루’ 포스트 중(밑줄표시: 연구자 주)]

그러나 신뢰감을 주고자 하는 글에 있어서는 이런 현상이 사라진다는 것은 매우 독특한 지점이다. ‘다크블루’ 경우 영화 비평에 해당하는 ‘영화 씹어먹기’ 카테고리 글에서는 문체도 변화할 뿐 아니라, 문법적 오류도 확실히 감소한다. 그것은 학교 교육을 통해 ‘문법 오류’가 많은 글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학습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굳이 이 카테고리의 글은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해 작성하고 블로그 편집기에 복사해서 붙이는 번거로운 작업을 거쳐 포스팅을 하는데, 이것은 오로지 “글의 문법 오류를 잡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연구자: 그럼 글은 편집기에 바로 쓰나요?

다크블루: 글은 편집기에 바로 써요. 그런데, 영화 리뷰 같은 것은 한글 같은데 써서 좀 고치고요.

연구자: 그럼 바로 쓰는 거랑 옮겨 쓰는 게 있군요. 왜 워드로 옮겨서 쓰나요?

다크블루: 워드에 쓰면 교정이 되니까요.

연구자: 맞춤법요?

다크블루: 예, 근데 심리적으로 봤을 때 블로그 포스팅하는 게 글이 제일 잘 써지더라고요. 워드에 쓰는 거 보다 ... 그래서 블로그 편집기에 쓰고, 그걸 워드로 옮겨서 (맞춤법) 검사 하고, 다시 블로그로 옮겨서 이미지를 넣어요.

[2011-07-06 ‘다크블루’ 면담 자료]

이처럼 전문 블로거들은 복합양식적인 텍스트를 다양하게 구현하는 한편 기존의 필자들이 독자를 고려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 역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융합형 필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독자들의 반응에 가장 민감하게 반

응하는 필자들이라는 점이다. 텍스트 형식에도 자유로울 뿐 아니라, 사람들의 요구와 반응에 적합한 글을 생산하려는 욕구가 다른 유형의 필자들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문자 텍스트, 즉 글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필자들이나 사진 등의 전문적인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필자들과는 달리 디지털 매체가 가진 속성을 빠르게 이해하고, 사람들의 유행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 역시 이들이 가진 특징이었다. 그만큼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요시히코’를 통해 끌어들이기와 반응에 응답하기 전략의 예를 살펴해보도록 할 것이다.

‘요시히코’는 일본 드라마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블로거이다. 그의 포스트는 ‘리뷰’와 ‘정보’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의 블로그는 일정 시기마다 독자들이 ‘찾을만한’ 포스트가 발행된다. 바로 ‘분기별 신작 소개’이다.⁶³⁾



[그림 V-15] 정보 텍스트의 규칙적인 발행의 예

63) 일본의 드라마는 일반적으로 11화로 제작되며, 1년을 3개월, 즉 4분기로 나누어 일제가 시작하고 일제가 종영하는 방식을 취한다. 즉, 1, 4, 7, 10월이 새로운 드라마가 시작되는 달이다. ‘요시히코’는 이때 ‘#분기 라인업’이란 제목으로 전 작품을 소개하는 포스트를 발행한다.

‘요시히코’의 이 포스트는 거의 매번 포털 사이트의 메인에 게재되며, 수많은 사람들의 스크랩이 이뤄지고 댓글이 달린다. 가장 최근에 발행된 포스트는 2012년 9월 18일에 발행한 4분기 라인업에 대한 텍스트이다. 총 29편의 작품이 소개되었는데, 일정한 형식에 따라 정리가 되어 있다. [그림 V-15]에 제시된 예가 한 작품을 정리한 것이다. 상단에 방송 요일이 표시되고, 그 다음에는 드라마 포스터나 장면 사진, 제목, 방영시간(첫 방송 날짜), 출연 배우,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간단한 줄거리와 ‘요시히코’의 기대평 등이 1-2개 문단 정도의 길이로 작성된다. 공식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둔 것이 눈에 띈다.

정기적으로 익숙한 형식의 글이 발행되는 것은, 주간지나 월간지의 특성이 재매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시기에는 독자들이 한번쯤 그의 블로그를 방문하게 될 것이다. ‘끌어들이기’ 전략(서수현·정혜승, 2009)의 효과인 것이다. 물론, 기성 언론 매체보다 가벼운 문체의 텍스트이지만, 공식 매체가 아닌 개인의 블로그이므로 ‘요시히코’의 솔직한 기대평이 올라오는 것도 특징이다. 그리고 댓글을 통해 필요에 따라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일도 한다. 그러한 전략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포스트는 바로 ‘일드 설문’이다. 분석 포스트 가운데 일드 설문 포스트는 “좋아하는 중년배우”에 대한 것으로, 독자들의 댓글이나 설문 프로그램을 통해 답변을 받고 이를 종합한 결과를 포스팅하게 된다. 독자들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한편 블로그 텍스트의 소재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끌어들이기’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요시히코’는 이를 일컬어 “명석을 깔아두는 것”으로 표현하였는데, 독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 1) 블로그 포스트를 제작하는데 직접적으로 ‘참여’하였으며, 2) 자신이 참여하여 도출한 결과가 가시적인 포스트로 구현되는 과정을 ‘관찰’하게 되는 한편, 3) 이 블로그에 모인 다른 독자들과 설문의 결과 포스트를 통해 서로 ‘소통’하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 실제 이 기획 포스트는 블로그를 방문하는 독자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2012년 10월 현재, 70편 정도 제작되었다.

이렇게 인터넷 공간에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복합양식 텍스트를 생산하는 필자들은 이전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갖게 되었다. 블로그 플랫폼의 선택 역시 그 중 하나이다. 필자들은 그 이전에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꾸준히 고민해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구어시대부터 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이 장에서는 그들이 생산한 텍스트를 분석함으로써, 전문 블로거들이 새로운 글쓰기 공간에서 어떠한 텍스트를 생산해 냈는지를 탐색해 보았다.

각 필자들의 교육환경, 문식 경험, 그리고 매체 친숙도에 따라 복합양식 텍스트를 구현하는 양상은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문자 텍스트를 중심으로 블로그 텍스트를 생산하는 필자들의 경우, 논문이나 책 등의 인쇄매체 편집 방식이 재매개된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하이퍼텍스트와 분량에 구애받지 않는 쓰기 공간은 텍스트를 생산할 수 있는 외연을 확장하였으며, 지속적인 수정작업과 댓글에 대한 반응을 통해 독자와 꾸준히 문자텍스트로 소통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디지털 기기의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이미지 중심의 필자들은, 이미지를 더 강렬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1단 편집의 활용과 이미지 텍스트와 문자 텍스트의 조합 등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미지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워터마크의 사용과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모티콘의 활용 등도 인상적인 특징이었다.

문자 텍스트 중심의 필자와 이미지 텍스트 중심의 필자의 진화형으로 볼 수 있는 융합형의 필자는, 디지털 원주민 필자의 모습과 가장 유사한 특징을 가진 필자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개성과 능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복합양식 텍스트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 마치 잡지의 표지처럼 포스트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공들여 제작하여 배치하는 ‘채널러’나 자체 캐릭터를 개발하여 포스트에 적극적으로 개입시키는 ‘다크블루’, 그리고 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는 ‘요시히코’ 등은 블로그라는 플랫폼의 특성과 인터넷 공간이 가진 가능성을 개성적으로 이용하는 필자라고 할 수 있다.

VI. 디지털 필자의 블로그 텍스트 생산 과정 분석

이 장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복합양식 텍스트 생산 과정을 분석한 내용을 서술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자들의 글쓰기 과정을 실시간 스크린 장면 갈무리 프로그램인 캠타시아7을 사용하여 촬영하였다.⁶⁴⁾ 그리고 이를 영상 파일로 변환하여 필자의 행동을 글쓰기 주 과정과 과정 중 부가 행동으로 나누어 코딩하고 이를 분석하였다[부록4]. 촬영 대상이 된 포스트와 이를 바탕으로 한 면담 자료 역시 분석의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1. 내용 생성 과정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쓰기 동기가 높은 집단이라 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편의 글을 주기적으로 발행해왔으며, 대개의 필자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글을 미리 저장해 놓은 경우도 다수 존재하였다. 이것은 필자들에게 글쓰기 소재가 부족해서 겪는 어려움이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 이유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관심 있는 특정 주제가 있기 때문(‘챌들러’, ‘요시히코’, ‘다크블루’)이라 답한 필자가 많았다. 심지어 시간 부족으로 인해 올리고 싶었던 글을 올릴 적절한 시기를 놓쳤을 경우, 1년을 기다린다는 대답(‘도일리’)도 있었다. 자신의 관심사를 소통하고 정보를 교류하고자 하는 욕구가 필자의 쓰기 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초고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이 한편의 포스트를 완성하는 데에는 평균 20-3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한 편의 포스트를 완성하는 과정을 촬영하여 이를 축정한 것이므로 모든 포스트의 생산 과정이 이와 동일하다고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의 심층면담 결과, 평소에도 한 편의 포스트를 쓰

는데 이 정도의 시간을 소요한다고 답변하였다. 대부분의 필자는 텍스트를 생산하는 동안 10초 이상의 휴지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것은 그만큼 연구 참여자들의 글쓰기 유창성과 매체를 활용도가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플라워(Flower, 1993)는 일반적인 작문과정이 ‘계획하기-생성하기-집필하기-고쳐쓰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필자는 이 전 과정을 선조적으로 밟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회귀적으로 순환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가 필자의 특성대로, 각 과정이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되며 이 중 계획하기와 생성하기가 축소된 대신 집필하기 과정이 주를 이루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내용 생성 과정에 별다른 장애가 없는 까닭은 전문 블로거들이 실제 글쓰기 과정 중에 내용 생성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글쓰기 화제를 준비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글의 내용을 이미 대부분 생성해 두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텍스트 생산자로서의 자각이 ‘일상화’되었다는 의미이다. 친한 지인의 카페를 방문한 내용을 소개(‘책바우어’)하거나 특별한 모임을 위해 액세서리를 구입한 이야기(‘도일리’)를 작성하거나 이번 주에 재미있게 본 드라마(‘챌들러’)에 대한 비평을 하는 것은 필자의 실제적인 경험을 하는 동안 이미 텍스트의 화제가 선정되었음은 물론, 텍스트의 내용 또한 ‘생성’되었다고 봐야할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해당 경험을 하는 동안 이미 이 내용을 텍스트로 옮겨야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이미 경험하는 중에 글 쓸 내용을 ‘생성’했음을 의미한다. 즉 글쓰기 과정 중에 내용 생성에 해당하는 시간을 별도로 배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소설가나 배우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언제나 소설의 소재를 찾아 메모를 하거나 특별한 경험을 하는 순간 감정을 기억하려고 신경쓰고 노력하는 모습과 유사하다.

그들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은 자신의 글쓰기 동기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을 소유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일상 중에 항상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도록(‘다크블루’) 만들기도 한다. 특히, 이미 글쓰기 과정에 능숙하고 고정적인 독자를 다수 보유한 전문 블로거의 경우는 생활의 전부를 글쓰기 소재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이들의 실제 글쓰기 과정에서는 내용 생성의 과정이

64) 이 분석 작업은 텍스트 분석 과정에서 기존 인쇄 매체 글쓰기와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 이미지 중심형과 융합형 필자로 구분된 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누군가에 의해 강요받은 주제로 글 쓸 내용을 고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쓰고 싶은 내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다. 물론, 이들에게 어느 누구도 쓰기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들의 쓰기 흥미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로그인(log-in)을 하고 ‘편집기 창’을 연 이후 준비한 화제에 대해서 빠르게 글을 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손글씨에 비해 컴퓨터 글쓰기가 가진 장점이다. 옥현진(2010)의 연구에서 한 참여자는, “나의 손 글쓰기는 매우 느린 편인데 글을 써 가는 과정에서 뒤에 쓸 내용이 계속 떠오르지만 이 생각의 속도를 자신의 손이 제대로 따라잡지 못해서 중요한 생각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증언한 바 있다. 컴퓨터 글쓰기의 경우, 일정 수준의 속도로 자판을 다룰 수 있는 필자라면 자신이 생각한 바를 놓치지 않고 기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필자의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글로 빠르게 써내는 데 보다 더 유리하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내용을 빠르게 생성하는 대신 수정 과정이 반복적이고 길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 내용 구성 과정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정기적으로 텍스트를 생산하는 전문 필자로서 각자 자신에게 맞는 글쓰기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내용 생성 과정은 상당 부분 생략되어 있는 반면, 내용을 조직하고 구성하는 것에 대한 각자의 전략은 다양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다크블루’의 경우는 촬영 대상이 된 포스트의 길이가 짧고 내용이 분절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난 포스트의 예를 상당 부분 참조하는 모습이었다. 지난 틀을 상당부분 차용하여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블로그가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인 한편, 복사와 첨부 그리고 삭제와 잘라내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임을 의미한다. ‘채들러’의 경우는 미리 글에 사용할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편집하고 그 안에 자막 등을 삽입함으로써 글을 쓰기 전

미리 구조를 잡아 두는 모습이었다. 또한 이미지 텍스트 중심형 필자인 ‘잭바우어’와 ‘도일리’는 유사한 내용 구성 과정을 보이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표 VI-1>, <표 VI-2>와 같다.

<표 VI-1> ‘잭바우어’의 내용 구성 과정

시간	글쓰기 과정(main)	과정 중 부가 행동(sub)
00:17	로그인 후 ‘편집기 창’ 열기	
00:25	포스트 카테고리 설정	
00:35		‘이미지 입력 창’ 열기
00:49		내 컴퓨터 폴더 검색 미리 정리해 둔 사진 삽입(23장) ‘이미지 입력 창’에서 순서 조정
03:19	편집기 내 이미지 업로드	
03:32	포스트 제목 입력	
03:41	사진 배치 확인	
04:21	사진 간 글 입력 간격 확보	
05:36	문단 가운데 정렬 후 글쓰기 시작 사진별로 옮겨가며 글 입력 각 사진 별로 입력, 수정 작업 후 이동	

<표 VI-2> ‘도일리’의 내용 구성 과정

시간	글쓰기 과정(main)	과정 중 부가 행동(sub)
00:10	로그인 후 편집기 열기	
00:28		컴퓨터 내 이미지 검색 후 추가
00:49		입력기에서 이미지 순서 조정(총 7장)
01:09	이미지 업로드, 링크 삽입	
01:25	새 창 열고 블로그 글 검색 복사 글 첨부	예전 글 복사
02:09		이미지 복사
02:00	HTML편집기 모드 전환 후 소스 편집	
02:40	복사 이미지 첨부 시리즈 포스트임을 명시	
03:30		예전 글 열어서 리뷰 포스트 메뉴 삽입
04:30	이미지, 링크 사이에 글 첨부 문단 가운데 정렬	

앞의 <표 VI-1>, <표 VI-2>에서 음영 처리된 부분을 살펴보면, ‘잭바우어’와 ‘도일리’는 글을 입력하기 전에 미리 삽입할 이미지를 선택하고 이를 배치하는 과

정을 거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글에 넣을 이미지를 고르는 한편, 사진과 사진 사이에 들어갈 글의 내용을 구상하는 것이다. ‘도일리’는 수정 과정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삽입하기도 하는데, 앞서 말한 글쓰기 과정의 회귀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표 VI-3> ‘요시히코’의 내용 구성 과정

시간	글쓰기 과정(main)	과정 중 부가 행동(sub)
00:05	로그인 후 편집기 창 열기	
00:07	포스트 카테고리 설정	
00:20	제목 입력	
00:53	글쓰기 시작 소제목 입력 글씨 모양, 크기 편집	
02:43	소제목 사이에 글쓰기 글쓰기 중에 글씨 모양, 크기 편집	

‘요시히코’의 경우<표 VI-3>, 이와는 달리 미리 소제목을 달고 나서 본격적으로 글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잭바우어’와 ‘도일리’가 이미지를 미리 배치하는 것과 비슷한 전략이다. 이것은 손글씨로 글을 작성할 때와는 달리 필자가 자유롭게 개요를 짤 수 없는 상황이므로, 블로그 편집기에 미리 텍스트의 열개를 짜 두는 행위로 볼 수 있다.

3. 내용 표현 과정

임천택(2007)의 지적처럼 컴퓨터 글쓰기에서 짜깁기나 표절과 같은 부정적 요소가 두드러지고, 컴퓨터 글쓰기가 사고력을 저하시킨다고 보는 등 부정적 담론이 낙관적 담론보다 우세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 글쓰기가 대부분 컴퓨터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러한 부정적 시각은 컴퓨터 글쓰기를 배척해야 하는 이유로 작용하기 보다는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되었다.

컴퓨터 글쓰기의 특징은 내용 표현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전문 블로거들의 글쓰기 표현 과정에서도 이 부분은 극명하게 드러난다. 텍스트 생산 과정을 ‘주 과정’과 ‘과정 중 부가 행동’으로 나누어 분석한 것은, 글쓰기가 이전과 다른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전에는 글쓰기의 주 과정만이 있었다면, 이제는 글쓰기의 과정이 다원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 블로거가 구축하고 있는 글쓰기 패턴(pattern)은 컴퓨터 글쓰기보다는 ‘온라인 글쓰기’의 특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물론 온라인 글쓰기는 컴퓨터 글쓰기를 전제하고 있지만, 글쓰기 공간의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전문 블로거가 이전의 전문 필자와 차이를 보이는 지점은, 그들이 글쓰기 과정 대부분을 스크린 안에서 소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글을 쓰기 직전까지 오프라인에서 글의 내용을 고민하는 반면, 온라인에 진입하여 글을 작성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다양한 자료를 글쓰기 공간 내에서 동원하고 이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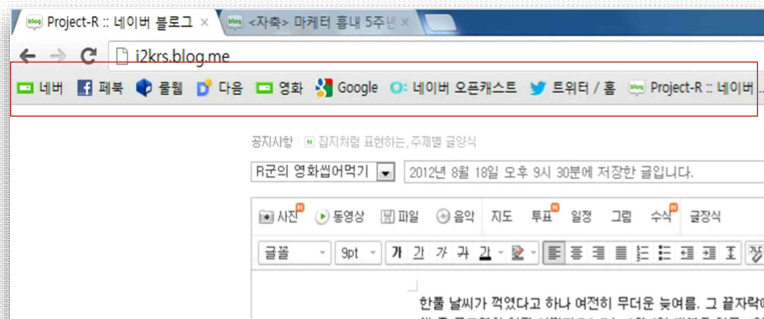
‘첼들러’의 경우, 사진기로 찍거나 인터넷 공간에서 수집한 이미지를 미리 포토샵(photoshop)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신의 포스트에 맞게 디자인한 다음, 자신의 이메일이나 웹하드 등에 저장하여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대비해 둔다. 이것은 그의 카페에서 일을 하는 틈틈이 포스트를 작성하는 그의 글쓰기 상황에서 나온 행동이라 할 수 있다. 그의 글쓰기 자료는 온라인 상태에서 저장되어, 어느 곳에서나 동원될 수 있는 자료로 기능하는 것이다.

‘요시히코’의 경우도 글을 작성한 다음 그에 맞는 적절한 이미지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이나 다양한 블로그 포스트, 주로 방문하는 사이트 등의 화면 장면 감무리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전의 글쓰기 환경에서는 내 글에 이미지를 삽입하기 위해서 필름이 들어간 사진기로 직접 사진을 찍고 인화하여 현상한 다음, 이 사진을 스캔하여 파일을 첨부하거나 인쇄 상태에서 물리적으로 사진을 붙이는 작업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디지털 기기가 발달하면서 사진기에서 바로 이미지 파일을 추출한 후 첨부하거나 화면을 장면 감무리하거나 검색을 통해 이미지를 가

저와 사용하는 등의 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작업은 간단하게 스크린 안에서 ‘새 창’을 띄우는 작업만으로도 가능하게 되었다. 다양한 글쓰기 장면 갈무리 어플이 개발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전문 블로거들은 자신의 컴퓨터를 글쓰기에 최적화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장치들을 활용하는데, 이것 역시 인터넷 브라우저(browser) 또는 톨바(toolbar)와 같은 플랫폼의 선택과 관련이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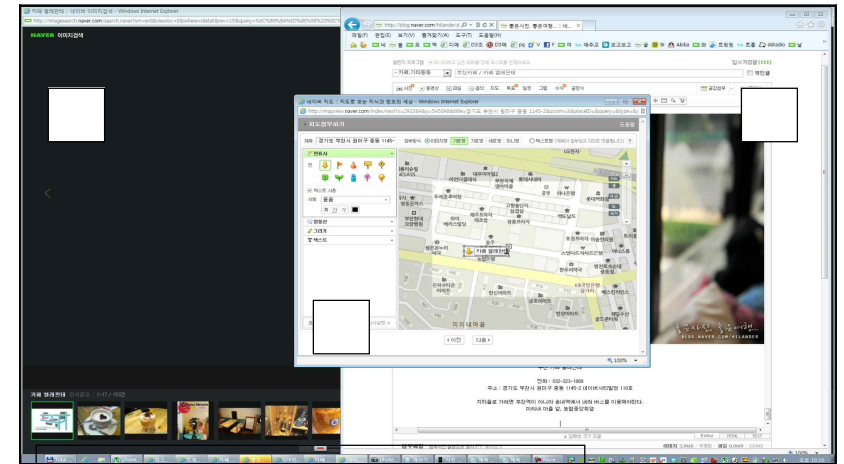
<그림 VI-1>은 ‘다크블루’가 작업하고 있는 컴퓨터의 장면 갈무리 화면이다. 상단의 톨바와 하단의 열려있는 창의 개수를 보면, 필자가 글을 쓰면서 어떠한 동시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실제 검색과 휴식을 동시에 한 화면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림 VI-1] ‘다크블루’의 인터넷 브라우저 세팅(setting)

‘다크블루’는 상단에 자신이 자주 드나드는 포털사이트와 SNS의 링크를 버튼처럼 배열해두고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예전의 글쓰기 과정의 ‘자료 수집’ 과정과 본질적으로는 유사하다. 그러나 그때의 자료 탐색과 수집, 발췌, 삽입의 과정이 공간의 차원을 달리하여 이뤄졌다고 한다면, 지금의 글쓰기 과정은 이것이 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다. 다만, 그 공간에서 ‘창’만 달리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다원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전문 필자의 경우, 이러한 과정이 더 능숙하게 실행된다.



[그림 VI-2] ‘잭bauer’의 글쓰기 과정 장면 갈무리(그림 안의 숫자는 창의 개수)

위의 ‘잭bauer’의 글쓰기 장면을 보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창이 3개, 그리고 화면 하단에 보이는 작업 창은 16개의 창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창들은 글쓰기 과정에도 활용되지만, 다른 작업에 동시에 쓰이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글을 쓰는 중간에 트위터를 확인하거나 메일을 읽는거나 하는 일들이다. 면담 과정에서 ‘잭bauer’는 글을 쓰면서 종종 영상을 보는 경우도 있다고 답하였다. 이렇게 텍스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것(멀티태스킹, multitasking) 역시, 디지털 글쓰기의 특징 중 하나이다. ‘잭bauer’의 경우, 블로그 포스팅을 하면서 채팅을 하거나 당시의 감정을 종종 트위터로 전송하기도 한다. 다양한 쓰기 실행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연구 참여자들에게서 고르게 발견되었다.

쓰기 과정을 살펴보면, ‘다크블루’와 ‘도일리’의 경우, 창을 하나 더 띄워둔 상황에서 정보 사이트를 오가면서 반복하여 사실 확인을 하고 포스팅 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독자가 참조할 수 있는 사이트를 본문에 링크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연구 참여자의 행동은 자신의 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사실 확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전 시대에는 자료의 수집 자체가 가치를 지니던 시기가 있었다. 지금은 그때와는 달리 감당하기 힘들만큼의 수많은 자료(big data)가 존재하며(Manyika J. et. al. 2011), 필자는 이를 더 효율적으로 선별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검색 엔진에 대한 고민, 적합한 정보와 이미지의 선별, 사실 확인(fact checking) 등은 필자의 중요한 역할이자 의무가 될 것이다. 정보를 많이 검색하여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그의 정보(curation)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Rosenbaum, 2011)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4. 내용 수정 과정

전문 블로거의 내용 수정 과정은 글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이것은 작문의 회귀적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Flower, 1993). 다만 이 작업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뤄지며, 글의 내용 뿐 아니라 디자인과 편집에도 관여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글쓰기, 특히 블로그 글쓰기는 대체로 텍스트 편집기 내에서 이뤄진다. 오프라인에서의 글쓰기와는 달리, 온라인의 글쓰기는 스크린(screen) 단위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분량의 제한이 없다. 화면의 오른쪽 측면에 있는 스크롤 바(scroll bar)를 조정하면 무한히 글을 쓸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독자를 고려하여 대개 적절한 수준에서 글의 길이를 조절하게 된다.

전문 블로거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글을 쓰고 나서 글자의 모양이나 크기 색깔을 다양하게 조정한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빠르게 스크롤을 내려 어떤 부분이 눈에 띄는지 또는 띄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수정 작업을 거치기도 한다. 글은 발행 전, 발행 후 이렇게 크게 두 차례 검토 작업을 거치는데, 이후 독자들의 반응에 따라 다시 글의 수정 작업이 이뤄진다. 그런 의미에서 온라인 글쓰기의 글 수정 작업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블로그

플랫폼에서는 자체적으로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편집기가 아닌 독자들에게 발행되는 형태의 디자인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이다. 예약 포스팅을 하는 경우에는, 이 기능을 활용하여 포스트의 전반적인 디자인을 점검하기도 한다.

제목과 카테고리의 설정은 필자에 따라 글쓰기 전, 후로 나뉘어 나타나는데,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과정은 바로 ‘태그’를 삽입하는 것이었다. 이 ‘태그’는 인터넷 공간에서 공개가 되면, 일종의 키워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색을 할 때 유용하게 활용된다.

VII. 디지털 필자의 문식 실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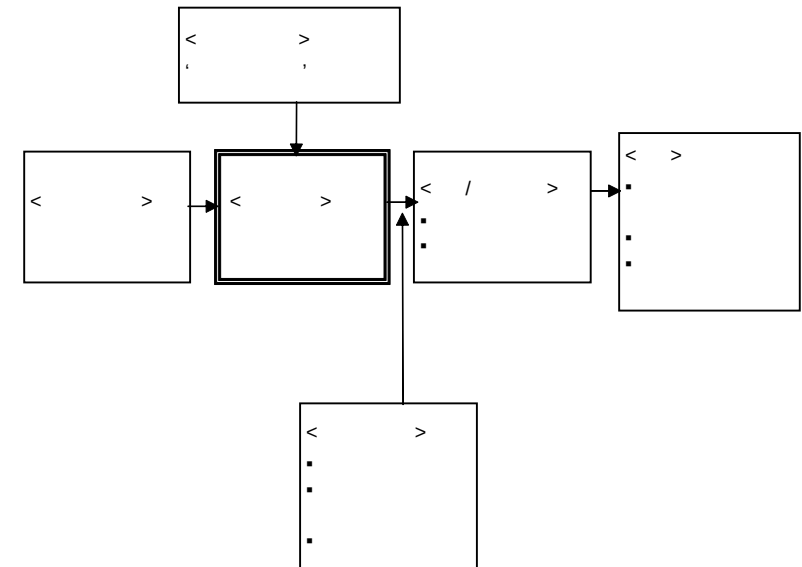
이 장에서는 앞선 장에서 수행한 텍스트 분석과 면담, 스크린 촬영 등에서 얻어진 자료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복합양식 텍스트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전문 블로거의 문식 실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도출하고 이들이 디지털 필자들의 문식 실행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그 관계 양상을 기술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전문 블로거의 문식실행과 영향 요인 간의 작용 양상을 패러다임 모형을 통해 상술하고자 한다. 근거이론 접근방법을 통해 도출하는 패러다임 모형은 스트라우스와 코빈(1990)이 제안한 것으로, 자료로부터 도출한 범주들 관계를 정렬하고 가시화 하는데 유용한 도식이다.

근거이론 접근방법은 이미 존재하는 이론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자료로부터 이론을 도출해내기 위하여 고안된 방법이다(박성희, 2004).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이론을 도출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또 그 행동에 있어 어떤 요소가 작용한 것인지에 대한 의미 있는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Strauss & Corbin, 1990, 1994, 1998). 근거 이론을 적용하면 자료 수집과 접근법을 다양화 한 삼각검증(triangulation)을 통해 한 가지 상황에 대한 다양한 행위자의 관점을 반영하여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Denzin, 1978) 현상의 기술을 중심으로 결과를 제시하는 다른 질적 연구 방법과는 달리 구조화된 모형을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다.

근거이론의 개발과정에서 연결코딩의 핵심을 이루는 패러다임 모형의 도출은 개방코딩 과정에서 나타난 범주를 각각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s), 중심현상(phenomena),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s),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s), 작용·상호작용(actions/interactions), 결과(consequences)로 분류하고 이들이 중심현상을 축으로 인과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밝히는 작업이다(Strauss & Corbin, 1990). 이 연구에서 역시, 연구 참여자의 면담을 바탕으로 하여 중심현상을 설정하고 각각의 조건들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추출하여 배치하는 과정을 거쳤다.

중심현상은 자료에서 개념으로 도출된 중심 생각으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또 각각의 조건은 ‘왜, 어디서, 어떻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묶어서 제시하는 개념적 방식이다. 작용/상호작용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라는 질문에 의해 제시되는데, 이는 개인이나 집단이 그러한 조건 하에서 일어나는 쟁점, 문제, 사건에 대해 취하는 전략이나 반응을 의미한다. 그리고 결과는 ‘작용/상호작용의 결과로 무엇이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에 의해 제시된다(서수현, 2010).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패러다임 모형은 다음 [그림 VII-1]과 같다.



[그림 VII-1] ‘전문 블로거의 문식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이 연구는 변화한 글쓰기 공간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전문가 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들은 고전적인 글쓰기를 학교에서 학습하였으나 현재는 정규 교육 과정을 마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글쓰기 공간에서 활발하게 문식 실행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양쪽 공간의 ‘점이지대에 있는 필자’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연구의 단초를 마련한 중심 현상이 되며, 이를 중심으로 전문 블로거의 문식 실행을 유도하는 인과적 선행조건, 문식 실행 자체를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중재적 조건, 문식 실행을 수행하는 각 필자들의 작용·상호작용 전략, 끝으로 상호작용 전략에 의해 나타나는 문식 실행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렇게 중심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패러다임 모형을 통해 구조적으로 살펴보았다.

1. 인과적 조건: 고취된 쓰기 동기

인과적 조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생/발전하도록 이끄는 사건 및 조건들로 구성된다(Strauss & Corbin, 1990). 이 연구에서는 중심현상인 ‘점이지대의 필자’가 되는 조건과 원인을 ‘고취된 쓰기 동기’로 파악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지속적으로 글을 쓰는 필자들이다. 평소 관심 있는 화제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쓰기 교육이 갖고 있는 현실적 고민은 학습자들이 글쓰기를 매우 싫어한다는 것인데(박영민, 2006),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그 지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현상을 보인다. 기초 면담 과정에서 ‘요시히코’는 예전부터 글을 끄적거리는 것을 좋아했다고 하였으며, ‘잭바우어’의 경우 학창시절부터 모아놓은 여러 권의 습작노트를 가지고 있었다. 글을 쓰는 직업을 갖고자 했던 ‘인생절정’과 ‘다크블루’ 역시 마찬가지였다. 실제로 연구 참여자들은 꾸준히 자발적인 형태로 텍스트를 생산해 내고 있으며, 이 작업은 길게는 10여 년, 짧게는 3년 동안을 수행해 왔다. 연구 참여자 모두 면담과정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글을 쓸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이들은 이미 생애 필자(박수자, 2007)의 기본 동기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문식성 교육에서 인지적인 영역 뿐 아니라 정의적 영역의 지도 역시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국내에서도 쓰기 동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전제웅, 2005, 2007; 이재승 외, 2006; 박영민, 2006, 2007a, 2007b, 2008;

박영민·가은아, 2009; 허선익, 2010). 동기란 인간의 행동이나 행위를 촉발시키는 심리적 요인이다. 쓰기 역시 인간의 행동의 한 유형이므로, 쓰기 수행에서 동기가 중요한 동인이 되는 것을 충분히 유추해 낼 수 있다. 쓰기 동기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헤이즈(Hays, 1996)는 ‘쓰기에 대한 필자의 신념’, ‘필자로서의 쓰기 효능감’을 제시하였으며, 이재승 외(2006)는 내적 범주로 쓰기 신념 요인, 쓰기 효능감 요인, 카타르시스 요인을, 외적 범주로 인정 요인, 순응 요인, 인터넷 요인, 필기도구 요인, 모방 요인, 출판 요인, 상호작용 요인을 도출하였다. 화이트와 브루닝(White & Bruning, 2005)은 동기 대신 ‘신념’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진달적 신념’과 ‘상호작용적 신념’으로 필자의 신념을 구분하였다. 전자는 쓰기를 권위 있는 출처로부터 얻는 정보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후자는 필자가 구성한 내용 이해와 정서를 독자와 의사소통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 결과, 쓰기에 대해서 전달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 필자들은 글의 조직에 대한 점수와 글의 전반적인 평가 점수가 낮았지만, 상호작용적 신념이 높은 학생 필자들은 내용 생성, 글의 조직, 어조, 문장의 유창성, 쓰기 관습 등에서 평가 점수가 높았다. 이는 쓰기 신념의 유형이 쓰기의 수행과 밀접한 상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인과적 조건을 탐색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의 첫 포스트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들을 생애필자로 이끈 동기로 관심사에 대한 정보 소통, 교감의 욕구와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 확장에 대한 욕구, 그밖에 기록에 대한 욕구 등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는, 글을 씀으로써 자신의 카타르시스를 해소하려는 욕구를 가진 참여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각 연구 참여자의 쓰기 목적은 다양한 차이를 보였으나, 공통된 현상은 이들이 모두 글을 즐겨하며, 자발적으로 텍스트를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4년 전, 아들이 군대에 입대했을 때, 갑자기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아들의 빈 방을 보니 울컥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적적해 하던 차에 딸이 블로그를 개설하라고 이야기해줬고요. 엄마는 쓸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만들고 쓰는지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아들의 빈 방에 있는 노트북으로 인터넷과 블로그를 하기 시작했지요. 한동안은 예전에 썼던 글(동문회 카페-연구자 주)을 옮겨 오는 것만 하다가, 다 옮긴 후부터는 머리에 떠오르는 이야기를 조금씩 조금씩 쓰

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아들이 제대할 때까지 계속 했어요.

[2012-06-04 ‘분홍변집’ 면담 자료]

난 직업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기자-연구자 주)인데, 무의미한 행동에 내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 직업적인 글쓰기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 절반의 빈자리를 뭐가로 채워야 하잖아요. 그게 (자신에게 허용된 지면이-연구자주) 대변자적인 역할을 해주면 좋은데 지면의 한계는 여전히 있는 거고, 시간적인 한계도 여전히 있는 거고 내 시각의 한계도 여전히 있는 거고 ... 다중집합적인 시각을 보여줘야 하고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아니니까 여분의 정서가 생기는 거죠, 즉, ‘정보의 잉여력’이 생긴 거예요. 정보의 잉여력이 생겼을 때 이걸 풀어줘야 하는 건데 ...

[2012-07-06 ‘인생절정’ 면담 자료]

현재 상황의 결핍을 쓰기로 보충하고자 하는 글쓰기 동기는, 필자에게 강력한 동인으로 작용한다. ‘분홍변집’의 경우 아들의 빈자리를, ‘인생절정’의 경우 직업적 글쓰기에서 오는 회의가 쓰기 동기로 강하게 자리매김한 것이다. 글쓰기 과정에서 보이는 필자들의 능동적인 태도와 다양한 화제를 생산해 내는 능력은 이러한 강력한 쓰기 동기에 기인한 바 크다 할 것이다.

예전엔 씨네21 게시판 같은데 적었는데, 그런 거 적으면서 이렇게 나만의 영화 웹진을 만들어 보고 싶다, 라 생각했는데 (...) 궁극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영화 전문기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화에 대한 글을 쓰면서 그걸 포트폴리오화 시키겠다.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2011-07-06 ‘다크블루’ 면담 자료]

사실 처음에는 블로그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그냥 외장하드에 있는 자료를 썬히기 아까우니까 정리해 놓는 수준이었죠. 근데, 맛집 같은 곳에 다시 가려고 하는데 메뉴가 기억이 안 나잖아요. 얼마 정도 예산이었는지. 그러니 정리해 두기 시작했죠. (...) 일종의 기록, 일기 같은 거예요.

[2011-10-20 ‘책바우어’ 면담 자료]

사람들은 다양한 취미를 갖는다. 그 가운데 글쓰기를 취미로 삼은 사람들도 다

수 존재한다. 연구 참여자 가운데, 상당수는 기본적으로 글쓰기를 매우 좋아하고 취미로 삼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인터넷이 발달하기 이전에도 문자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고, 실제 인쇄 매체에 꾸준히 습작을 해온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학교에서 글쓰기를 잘 하고 숙제를 잘 해오는 학생이었던 것은 아니다.

97-8년에 영화 메일 매거진 발행을 했었으니까요. 글 쓰는 건 뭐 좋아하지요. 그러면서 블로그로 자연스레 옮겨왔고요. 우연한 계기로 시를 쓰게 되어서, 고등학교 내내 습작 노트에 시를 썼어요. 지금 한 4권 정도 되나 (...) 근데 글쓰기를 학교 숙제같이 하는 건 싫어했어요. 독후감 같은 것도 싫어했고. 그땐 글쓰기가 내 생각을 쓰는 게 아니었거든요.

[12-09-12 ‘책바우어’ 면담 중]

지금도 학교에서는 글쓰기를 싫어하는 필자가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이 ‘학교에서의 글쓰기’를 싫어하는지, ‘쓰기 자체’를 싫어하는지는 재고해 봐야한다. ‘책바우어’의 경우, 현재는 활발히 텍스트를 생산하는 높은 동기를 가진 필자로 간주할 수 있으나, 학생 시절에는 글쓰기를 싫어하는 학생으로 보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쓰기 동기가 높은 필자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인가.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표현의 욕구’를 갖는다. 자기표현은 타인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행위(Leary, 1995)로, 자기표현 노력은 자신, 환경/상황, 그리고 타인의 평가와 점검뿐만 아니라, 타인이 지각하게 될 자신의 인상/느낌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를 특징으로 한다(Schlenker et al., 1996; Schlenker et al., 1994).

개인들은 가치 있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하고자 노력하고(Dominick, 1999), 타인에게 자신이 원하는 인상이나 느낌을 보이기 위해 많은 자원을 활용한다. 이 인상은 일관성 있고, 보완적인 행위를 끊임없이 수행하는 것을 통해 유지된다(Schlenker, 1975). 고프먼(Goffman, 1959)은 이를 ‘인상관리 프로세스’라고 지칭하였다. 그룹 내의 개인들은 자신에 관심이 있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자신의 행위를 적응시키고(Deutsch & Gerard, 1955; Kelley,

1952),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여기는 개인일수록 자기표현 노력과 행위를 향상시키고자 더 많이 노력한다(Leary & Kowalski, 1990).

이렇게 자기표현 욕구를 강하게 갖고 있는 필자의 경우, 잠재적으로 강한 쓰기 동기를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필자에게 어떤 자극과 강화가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필자는 생애 필자가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과거 글쓰기 경험과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한 초창기의 글을 탐색한 결과로 전문 블로거의 인과적 조건을 ‘고취된 쓰기 동기’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중심 현상을 파악하고, 문식성 후원자의 탐색을 통해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을 도출해 보았다.

다음 항에서는 맥락적 조건과 중재적 조건을 통해, 전문 블로거가 어떠한 문식성 후원자를 만나 추동을 받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맥락적 조건: ‘글쓰기 공간’의 변화

맥락적 조건이란 차원적으로 시간과 장소에서 교차하여 사람들이 작용 및 상호작용을 통해 반응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특수한 조건의 집합 양상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0).

현대의 필자들은 자신들이 타인과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다. 인쇄매체가 우리의 문자 의사소통을 주도하던 시대에도 이러한 현상은 있어왔으나, 공인된 필자가 신문이나 잡지 등의 대중 매체나 출판의 형태를 통하지 않고는 제3자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았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광통신망이 전국 전역에 설치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가상의 공간에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당시 등장한 인터넷 카페와 미니홈피는 누리꾼(netizen)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이를 통한 다양한 문화 현상까지도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 ‘첼들러’가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러한 ‘미니홈피’

에 대한 회의 때문이었다.

원래 싸이월드(미니홈피 서비스)하다가 친한 친구들하고만 문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제3자와 대화하고 싶어서 네이버(블로그 서비스)로 옮겨오게 됐어요. ... (중략) ...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 올리다가 나중에 드라마 한편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 드라마에 대해서 쓰다가 나중에 다른 드라마도 관심이 생겼죠.

[2011-06-23 ‘첼들러’ 면담 자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처음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호응을 얻은 플랫폼은 인터넷 카페, 그리고 미니홈피 서비스였다. 이후,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이 익숙해지면서, 이들 중 표현하고자 하는 콘텐츠를 가진 필자들의 경우 자신들의 이야기를 좀더 심도있게 나눌 수 있는 플랫폼을 원하게 되었다. 이성규(2009)가 주장한 바와 같이 많은 필자들이 미니홈피에서 블로그로 플랫폼을 이동하는 경향은 ‘제한된 공동체 지향 개인’에서 ‘공동체 지향 개인’으로의 진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필자들은 자신들이 생산해내는 텍스트, 즉 자신이 가진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리고 지금의 필자들은 그것이 가능한 최적화된 플랫폼을 찾아 자유롭게 이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드라마 또는 영화를 보고 그에 대한 감상문을 쓰는 것은, 예전의 경우 자신의 일기장이나 공책 등에 적어놓고 보관하거나 지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전부였다. 적극적인 필자라면 기존 대중매체 즉, 영화 잡지 또는 신문에 독자투고를 하거나 방송국에 시청자 의견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 이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 중에 몇몇은 이전에 기성 매체에 글을 보내본 경험도 있었다.⁶⁵⁾ 그러나 그것이 다 지면에 실리는 것은 아니었다. 기회가 있었다고 하나 그 폭이 그리 넓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필자들은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장소, 즉 플랫폼을 찾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곧 필자들이 자신의 글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넘어 유통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65) ‘다크블루’는 영화 전문 잡지에 독자평을 실은 적이 있었고, ‘인생절정’은 기자가 되기 전 일간 신문에 독자 투고를 보내 실린 적이 여러 번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분홍번짐’의 경우 신춘문에 응모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단지 유통에만 관심을 갖고 플랫폼을 선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필자들은 이제 자신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생산하게 될 텍스트가 단일양식이 아닌 복합양식적 특성을 띄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플랫폼을 선택할 때에, 자신이 선호하는 장르에 가장 적합한 조건과 이점을 갖춘 서비스를 찾게 되는 것이다.

나를 들어내는 공간은 이미 블로그로 충분한 편인 거 같아요. (...) 어떤 마음이고 어디 갔고, (...) 페이스북은 주로 구독자이고요. (...) 대신 보기는 다 봐요. 카카오프스토리는 정말 지인베이스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 사진 올리는 게 좋아서, 사진 예쁜 것 올리는 걸 좋아해서, 사진만 올려요.

[2012-05-19 '도일리' 면담 자료]

싸이월드에는 사진 올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진보다는 제 이야기를 남기고 싶었어요. 싸이월드에 처음엔 끄적거렸는데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를 알게 되고, 거기다가 내가 좋아하는 관심사들을 방송이든, 미드든 일드든 영화든 하나씩 하나씩 생각나는 대로 끄적거리기 시작했어요.

[2011-09-30 '요시히코' 면담 자료]

'요시히코'의 경우, 블로그 내에 독자들이 글을 남길 수 있는 게시판을 개설하고 그곳에서 질문과 답변, 또는 소식 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장치해 놓았다.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도 제작하여 독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이러한 다층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 필자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면담에서 밝힌 것처럼 '요시히코'의 경우 소통성이 강한 플랫폼을 원했고, 실제 지금 자신이 소유한 글쓰기 공간에서 이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지금의 상황을 “명석을 깔아뚫다.”고 표현하며, 자발적으로 자신이 글쓰기 공간을 개척할 수는 없었을 것이나, 현재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플랫폼들이 개발되고 그렇게 ‘명석이 깔린’ 상황에서 글을 쓰는 건 잘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자신의 독자들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와 설문 등을 통해 독자와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결국 디지털 필자들이 느끼는 이전의 글쓰기 공간과 지금과의 차이는 ‘독자와 직접적

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도일리’가 현존하는 SNS 하나하나를 평가하고 자신이 그 플랫폼을 이용할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와 공간은 다양하게 확대되었고, 단순히 공간의 유무를 넘어서 그 공간에서 기능하는 다양한 서비스, 즉 플랫폼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필자에게 새로운 과제로 놓인 것이다. 무엇을 쓸 것인가의 문제와 함께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쓸 것이냐의 문제가 새롭게 생겨났다.

그렇다면, 기존 대중 매체를 통해 글을 써왔던 경험이 있는 필자는 어떨까. ‘인생절정’이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것 역시 기존 매체에 대한 한계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대중매체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지면과 경력을 갖춘 필자가 새로운 매체에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할애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인생절정’은 이렇게 답했다.

대부분 옛날의 글 쓰는 사람들은 잉여력(剩餘力)의 대부분을 책 쓰기에 썼단 말이지요. 저는 그것을 새롭게 블로그라는 매체에 한번 투영해 본 거죠. 퍼블리싱(publish)을 사실 책을 쓰는 것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전 다중적인 퍼블리싱(publishing)의 매체로 블로그를 사용한 거지요.

[2012-07-06 '인생절정' 면담 자료]

자신이 직업적 글쓰기를 하고 있었음에도, ‘인생절정’은 새로운 공간에서 자신을 표현하기를 원했다. 그리고 이러한 부족함은 새로운 글쓰기 동기로 전이되었으며, 이러한 동기가 충족된 상황에서 블로그라는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은 그에게 글을 쓰게 만드는 강력한 문식성 후원자로 기능하였다. 물론, 직업으로 글쓰기를 할 때 역시 외재적인 쓰기 동기가 있었을 것이나, 그것은 강제성을 띤 것으로 그에게 자발적 동기를 주지 못했다. 그는 기자 생활을 하면서 블로그를 운영할 때, 매일 1-2시간씩 일찍 출근하여 블로그를 하고, 퇴근해서도 늦은 밤까지 블로그에 글을 쓴 적이 많았다고 회회한다. 강력한 쓰기 동기가 없는 불가능한 생활 패턴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활동을 주로 해왔던 ‘책바우어’의 경우도 자신에게 최적화된 글쓰기 공간을 탐색하다, 블로그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이같이 연구 참여자들이 블로그를 선택하고 활발하게 글을 쓰게 된 것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의 가능성을 먼저 파악했기 때문이다.

이전의 필자들은 단일 양식 텍스트 중심의 고정된 매체에서 쓰기를 수행해 왔다. 그 당시 필자들도 몇 가지 매체를 선택할 수는 있었으나, 지금과 같이 소통과 유통, 그리고 자신의 표현역(域)을 고려할 수는 없었다. 지금의 변화를 단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만 말할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필사본에서 인쇄본으로 책이 발전하게 되면서, 책의 크기가 작아지고 양도 많아졌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인쇄물은 문자에 고정성과 영속성을 부여해 주었으며 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대조적으로 디지털 텍스트는 유동적이면서 다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Bolter, 2001). 이러한 유동성은 새로운 표현 가능성을 제공해 주었고, 앞서 상술했던 복합 양식 텍스트의 생산과 유통, 수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다양한 플랫폼이 발달하게 되면서, 필자들은 자신들의 의사소통에 최적화된 매체를 선택하게 되었다. 그들은 ‘블로그’를 중심에 둔 상태에서 역시 다양한 SNS를 활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자신의 기호와 소통의 목적, 그리고 편의성 등이 다양하게 작용한 결과였다. 예를 들어, ‘다크블루’의 경우 2012년 부산국제영화제 기간에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에 한시적으로 운영하였다. 블로그가 있는 상태에서 이 페이지를 개설한 건, 페이스북 페이지가 가진 신속하고 빠른 타임라인(time line)⁶⁶⁾의 진행과 그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독자들의 반응 때문이었다. 블로그의 경우 긴 글쓰기에 최적화 되어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행사의 뉴스를 짧막하게 정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구안한 것이다. 반면 트위터의 경우 타임라인이 너무 빨리 스쳐지나가는 것 때문에 역시 적절한 플랫폼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반면, ‘인생절정’의 경우 얼마 전, 정치인 간담회에 참

66)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단문 중심의 SNS는 한 화면에 자신들이 구독하는 필자들의 소식이 일렬로 배열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이 시간 역순으로 게시된 일련의 텍스트를 일컬어 ‘타임라인’이라 지칭한다. 일부 참여자의 경우 이를 ‘시간줄’로 번역하여 지칭하기도 하나, 일반적이지는 않다.

석하면서 간담회 현장을 트위터 르포로 중계한 경험이 있다. 이같이 필자들은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조건의 매체를 선택하게 되었으며, 점점 더 그 선택은 필수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과 함께 변화하고 있는 것은 이전의 필기구, 지금은 카메라, 노트북, 태블릿 PC 등과 같이 정보를 입력하고 출력할 수 있는 각종 디지털 기기들이다. 특히,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의사소통 참여자들의 표현 양식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텍스트 중심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분홍번짐’ 역시, 최근 포스트에서 급격한 변화가 발견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녀가 새롭게 DSLR를 구입했기 때문이다. 50대의 가정주부인 ‘분홍번짐’은 인터넷에 익숙한 세대가 아니다. 블로그를 활발히 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복합양식 텍스트의 플랫폼에서 인쇄매체 방식에 가까운 글쓰기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그 양상은 바뀌고 있었다.

사진을 찍어보고 싶어서 사진기를 구입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아이들에게 조언을 구해서 꽤 고급 사진기를 구입했어요. 사진기가 무겁기는 하지만, 사진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무척 뿌듯해요. 지금은 어디를 가든 갔던 길이나 그곳에서 보는 것들을 찍어요. 컴퓨터에 옮기는 것을 배우고 난 뒤, 필요한 사진을 블로그에 업로드해요. 독자들의 반응도 좋고, 저 역시 말하고 싶은 것이 늘어났죠. ... (중략) ... 사실 요즘은 소셜 소재가 많이 떨어져서, 생활에서 있었던 일을 자주 올려요. 영화나 공연을 보고난 감상도요. 서운해 하는 독자도 있어서 쓸 이야기를 더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많이 듣는 편이에요.

[2012-06-04 ‘분홍번짐’ 면담 자료]

가용 매체가 늘어났을 경우, 텍스트 생산자의 표현 방식은 분명 달라진다. 그것은 디지털 이주민 뿐 아니라 원주민에게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텍스트에 적합한 플랫폼을 선택하게 된다. 앞서 말한 ‘분홍번짐’의 경우 딸의 추천에 의해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는 그녀가 가진 능력과 가용 매체를 고려한 의미있는 타자의 조언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전문 블로거는 스스로 ‘블로그’를 자신의 쓰기 목적에 맞게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고취된 동기’를 가시화 시키는 작업을 실천하게 된다. 이러한 글쓰기 공간의 변화를 이 연구에서는 중심현상을 야기 시킨 ‘맥락적 조건’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이 필자에게 문식성 후원자로 작용함으로써, 어떻게 필자의 작용/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3. 중심 현상: 점이지대의 필자

중심 현상이란 ‘여기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참여자가 일련의 작용 및 상호작용에 의해 다루어지고 조절되는 행동 양태 및 사건이다(Strauss & Corbin, 1990).

이 연구에서 중심현상은 ‘점이지대의 필자’이다. 점이지대란 중간자적 입장에 있다는 의미로, 연구에 참여한 전문 블로거들이 학교에서 배운 인쇄매체 중심의 고전적 글쓰기 환경이 아닌 새로운 환경에서 낯선 맥락 속 필자로서 고군분투하는 모습과 내재적 동기가 고양된 상태에서 스스로 탐색과 선택을 통해 활발히 의사소통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것은 이제기(2006)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연구의 참여자들이 내면의 독창성과 고유성을 표현하는 고고한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질서에 수동적으로 순응하는 것도 아닌, 팽팽한 긴장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필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인과적 조건인 ‘고취된 쓰기 동기’와 맥락적 조건인 ‘변화한 글쓰기 공간’과 같이, 급변하는 외부 변화에 맞춰 고군분투하는 과도기적 글쓰기 상황에 의해 야기된 현상이다. 이러한 ‘점이지대의 필자’가 갖는 갈등 지점을 몇 가지 요소로 나누어 상술하고자한다.

블로거는 자유롭죠. 저는 그리고 ... 뭐라고 해야 하나, 인터넷 문화 같은 거 있잖아요. ‘크크크’, ‘하하하’ ‘찌네’, 그런 거 활용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①전문적인 글

도 마찬가지로요. 전 그걸 쓴다고 해서 그 글의 가치가 막 떨어진다고 생각 않거든요. 오히려 더 딱딱한 글보다 더 재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심각한 글에 농담 한마디가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②사실 리포트에선 그런 걸 인정 안하니까. 좀 그래요. 공식적인 글쓰기 이런 거는 어렵도 없고.

[2011-07-06 ‘다크블루’ 면담 자료]

③부산 국제 영화제 등에 돌아다니면서 글쓰고 올리는 건, 영화블로거로선 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④그런데 먹고 살 일이 막연하니까, 사실은 영화 잡지나 언론사 영화 담당 기자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자리도 별로 없고 너무 어렵죠. 그런데, ⑤얼마 전 인터넷 신문 기자 이야기를 들으니, 하루에 글을 20개씩 쓴다고 하고. 그런 건 싫거든요. 그렇게 보면 블로거가 더 나은 것 같고, 아마도 제가 주변 블로거들 가운데 블로그와 언론 가운데 가장 고민하는 것 같아요.

[2012-10-18 ‘다크블루’ 면담 자료]

이전의 필자들은 출판의 기회를 얻기 힘들었다. 그러므로 출판된 인쇄 매체는 권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Bolter, 2001). 그러나 전자매체 글쓰기가 확산되면서, 현재 연구 참여자들과 같은 전문 블로거는 1인 미디어를 확보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글을 배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유명세를 얻은 필자의 경우, 언론매체보다 더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점이지대에 위치한다. 아직 블로그의 권위는 인쇄매체의 그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보상을 일정하게 받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런 의미로 블로깅이 ‘직업적 글쓰기’가 되기에는 난제가 많다.

위의 ‘다크블루’의 면담 내용은 이러한 점이지대에 있는 필자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①과 같은 생각은, 이전의 출판 맥락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책 출판의 진입장벽이 높은 만큼, 그만큼 인쇄 매체를 통해 출판된 글에는 엄격한 규범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권위를 뒷받침해왔다. ‘다크블루’는 현재 만 여명 가량의 고정 독자가 매일 그의 블로그를 방문하고 있다. 그의 글은 익살맞고 유쾌하다는 평을 받고 있으나, 영화 평론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자칫 가볍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위치지우기(positioning) 역시 그가 선택한 것으로서, ②로 볼 때 그 역시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학 강의 리포트나 공

식적으로 숭고하는 원고의 경우는 블로그와는 다른 문체의 글을 써야함을 알고 주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그의 갈등은, 그의 장래 회망에서 한 단계 더 심화된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에 대한 글을 자유롭게 쓰고 싶다는 것과 장래의 직업에 대한 선택과 당장 앞에 놓인 현실적 제약에 대한 갈등으로 고민하는 필자인 것이다.

③의 ‘다크블루’는 높은 동기의 ‘행복한’ 필자라고 할 수 있다. 스스로 원하는 글을 쓰고, 그에 대한 자아 효능감, 자아 성취감도 높은 상태이다. 그러나 그것이 직업과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현실의 장벽인 것이다. 실제 그는 부산 국제 영화제 서포터 블로거로 활동하면서 프레스 카드를 받고, 영화제 기간 동안 타 언론사 기자와 마찬가지로의 활동을 해왔다. 경제적 안정을 제외하고는 원하던 활동을 해온 셈이다. 그러한 심정적 만족감 때문에 ④, ⑤의 갈등은 더 심화된다. 영화 기자가 되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경제적 보상’을 받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지금보다 내실면에서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직업적 글쓰기’를 하길 소망하는 ‘다크블루’의 경우, 현재 그 경계의 점이지대에 있는 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언론사 기자로 있다 블로거로 전향한 ‘인생절정’ 역시 점이지대의 필자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다크블루’의 고민을 한 단계 앞서 경험하였다. 그리고 그는 기자의 신분을 숨긴 채 블로그 글쓰기를 시작하였다.

①실험적인 거였죠. 그래서 제가 익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인 글쓰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포장을 좀 해 놓은 거고요. 사람들로부터 ‘애는 미디어 쪽으로부터 꽤 비판적인데, 되게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한다.’라는 포지셔닝을 한 거죠. 그리고 매우 전문적인 내용으로 포장한 거예요. 여기에서 왜 제가 전문적인 내용으로 포장했냐면, ②대중매체에서 이전해 왔기 때문에 나에 대한 실험이기도 했고요. 내가 전문적인 글을 쓸 수 있는가, 대중적인 중학교 수준의 글쓰기만 가능했던 사람이 제야의 고수가 많다는 이 블로그 세계에 와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글쓰기로 대결을 할 수 있는가 ..

[2012-07-09 ‘인생절정’ 면담 자료]

‘점이지대의 필자’는 방황하고 고민하는 필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일정한 방향성을 두지 않는 실험적이고 도전적 필자의 모습의 양면을 가지고 있다. ‘인생절정’의 경우 ①을 보면, 현재의 자신의 글쓰기에 대한 불만족을 다른 방식의 글쓰기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고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해결책으로 그는 ‘익명’의 블로거로 글쓰기를 하는 방법을 택한다. 그가 익명으로 자신을 ‘실험’하는 ‘도전적 글쓰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맥락적 조건으로 밝힌 ‘변화된 글쓰기 공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글쓰기 동기가 높은 전문성을 가진 필자들이 지금의 글쓰기 공간으로 유입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는 구체적인 목적(②)을 가지고 글쓰기를 실천해 나가며, 그 동안은 점이지대의 필자로서 현실 공간의 기자와 가상공간의 블로거로서 동시에 문식적 실천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가정주부인 ‘분홍번짐’의 경우도 역시 엄마와 아내로서의 필자, 그리고 문학 창작을 즐겨하는 작가 지망생으로서의 블로거 필자의 점이 지대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대 여성 블로거인 ‘도일리’는 특수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그녀에게 블로그는 유일한 배출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부담이 되기도 한다. 잘하고 싶다는 욕구 때문이다.

내 개인적인 노력이 들어간 나만의 것을 창조하면 더 양질의 블로그가 될 텐데, 그렇게 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방학이 되면 조금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블로그 투자를 하게 되면 아까 말했던 인터넷의 나와 현실의 나를 나눈 50대 50의 비율이 깨져버려요. 지금 애들(학생들)을 버리고 블로그에 치중해야하기 때문이에요. (...) 물론 더 위를 보면서 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지만요. 제 삶에 70을 차지하기는 쉽지 않아요. 지금은 애들이 커요. 애들이 너무 좋으니까.

[2012-05-19 ‘도일리’ 면담 자료]

이 같이 현재의 블로거들은 자신들이 찾은 새로운 글쓰기 공간에 대한 열의와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현실의 삶에서 느끼는 부담과 블로그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공간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여기에 높은 동기를 가지고

진입한 지금의 전문 블로거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민감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현실의 제약과 이상의 욕구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필자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조심스럽게 시작했던 블로그가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노출이 되면서 얻게 된 영향력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는 것도 물론이다. 그렇다면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점이지대의 필자’들에게 어떠한 중재조건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4. 중재적 조건: 전통적 쓰기 교육, 의미 있는 독자의 반응, 물적 보상

중재적 조건이란 중심 현상의 강도를 완화시키거나 변화를 주는 조건으로서 맥락 내에서 작용/상호작용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Strauss & Corbin, 1990). 이 연구에서 중재적 조건으로는 전통적 쓰기 교육과 의미 있는 독자의 반응, 그리고 물적 보상 등이 발견되었다. ‘점이지대의 필자’들은 이러한 중재적 조건의 간섭을 받으며 다양한 작용과 상호작용을 거쳐, 전문가 필자로 나아가게 된다.

1) 전통적 쓰기 교육(학교, 기관 등)

‘잭바우어’는 학부, 대학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석사 출신 블로거이다. 그는 형식적 글쓰기에 익숙한 필자로, 그러한 사전 지식이 맛집 리뷰에 재매개 되어 드러난다.

맛집 리뷰는 내 나름의 룰을 정해놓고 그대로 정립시켜 지키는 걸 좋아해요. 설명하면, 처음엔 간판이 나오고 인테리어가 나오고 그 다음은 메뉴가 나오고 테이블 세팅이 나오고 그리고 메뉴가 나오고 그렇게 지켜서 하고 있지요.

[2011-10-20 ‘잭바우어’ 면담 자료]

전문 블로거의 글쓰기 과정을 살펴보면, 각자 다양한 형태의 글쓰기 과정을 숙

지하고 체득한 상태에서 글쓰기를 실행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진을 많이 사용하는 ‘잭바우어’와 ‘도일리’의 경우, 사진 정리를 먼저 하고 글을 쓰기 시작하며, ‘첼들러’의 경우 사진을 먼저 배치하고 나서 글을 쓰기 시작한다. 또 ‘다크블루’의 경우 워드로 미리 글을 쓰고 블로그 편집기에 붙여 넣고 업로드를 한다. ‘요시히코’의⁶⁷⁾ 경우, 각 글을 조금씩 써두고 임시 저장을 해둔다. 이 부분은 학교에서 배운 인쇄매체 글쓰기의 과정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지점이다. 학교에서 받은 교육이 현재 글쓰기 수행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냐는 물음에, 모든 블로거가 부정적인 반응을 한 건,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그러나 ‘잭바우어’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이들의 글쓰기 과정을 살펴보면 정도의 차는 있으나 각자 고전적 글쓰기 교육이 재매개 되어 발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필자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쓰기 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신의 필자로서의 모습과 수업은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학생 필자들의 반응은 기존의 연구에서 초등학교(임성규, 2006)나 고등학교(오택환, 2007) 쓰기 교육의 문제로 지적되었던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 초등학교에서는 교과서를 끝내는 것도 바쁘다고 생각하며 전략을 연습하는 데에 집중하다 보니 학생들이 ‘글’이라고 인식할 만한 대상을 접할 기회가 부족하며, 고등학교에서도 진도를 맞추어 수업을 하기에 급급하다 보니 실제로 학생들이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것이다(서수현, 2010).

반면 대중매체에서 훈련받은 ‘인생절정’의 경우, 대중들에게 읽히는 글이 가지는 파급력과 위험성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조정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자신이 가진 능력에 대한 메타 인지는 이후, 블로그에서 복합양식 텍스트를 생산하고 배포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저는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기계적인 글쓰기 수업을 이미 훈련 받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의 글을 쓰고 어떤 형태로 글을 쓰던 간에 사람들이 읽기에는 받아들이기에 편한 글쓰기 상태가 되어있는 거였죠. (...) 그리고 중간 중간

67) 최근 블로그 사이트에서는 중간까지 글을 써두고 임시저장을 해둔 다음, 차후에 로딩하여 다시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두었다.

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팩트(fact)를 배치하잖아요. 사람들이 의견만 제시하는 것과는 달리 난 대중매체에서 왔기 때문에 오히려 완벽한 개인적인 글쓰기를 못하는 상태에서 중간에 애매한 포지션을 취할 수 있었던 거예요. 팩트를 나열하면서도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2012-07-09 ‘인생절정’ 면담 자료]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후, 체계적인 글쓰기 훈련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책바우어’, ‘인생절정’)의 경우, 블로그 글쓰기에서도 형식적인 전략이 텍스트 생산물이나 과정 중에 재매개 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 다른 필자의 경우, 자신들이 선호하는 자유로운 방식으로 글쓰기를 하되, 소재에 따라 주어진 자료에 따라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때는 작문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아, 그때 좀 힘이 많이 되었던 거 같아요. 작문 짧은 글 썼는데, 선생님이 코멘트 달아주시면서 ‘문장 표현력이 좋다’ 해주신 거 기억나거든요. 그때 자신감을 좀 얻었던 거 같아요. 그러면서 글쓰기가, 엄마도 칭찬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서 글짓기 대회 같은 거도 좀 나갔거든요. 그러면서 고무가 된 거죠.

그런데 그걸 갖고 닭을만한 건 그 후에 없었고요. 그러면서 논술 준비하다가 나는 왜 이렇게 글을 못 쓰지, 했고요. 그러니까 시 이런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너무 맘대로 쓴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비문도 많고 계속 막 이어지고. 하고 싶은 말만 막. 전 리듬을 좋아하는 거 같아요. 뭐뭐하고, 뭐뭐하고, 지금도 어떤 글쓰면 똑같은 거로 이어지는 거 좋아하는 거 같아요. 그런 게 계속 남아요.

[2012-05-19 ‘도일리’ 면담 자료]

학교에서 받았던 전통적 글쓰기는 평가, 대학입시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많다 보니, 글쓰기 동기가 높았던 필자가 좌절하는 경우도 있다.⁶⁸⁾ 이런 경험은 학교에서 배운 글쓰기가 무용지물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글쓰기 교육의 경험은 그들의 텍스트에 여전히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며, 특히 좋은 글을 판단하는 기준과 상위 인지에 개입하고 있었다.

68) 본디 문식성 후원자는 문식실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되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필자들의 문식실행의 구체적인 결정과 진행 속도, 또는 방해하는 것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2) 의미있는 독자의 반응

전문 블로거의 경우, 고정적인 필자가 다수 확보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인터넷 글쓰기 공간은 높은 상호작용성을 큰 특징으로 한다. 특히, 다수의 독자가 읽고 반응하는 전문 블로그의 경우 다양한 독자들이 서로 다른 반응을 표현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이용은 사회적 관계를 확대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자로서 기능하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성격의 사람들이 인터넷 상의 익명성이라는 장점을 이용하여 두려움 없이 새로운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Rebert, Smith & Pollock, 1997), 인터넷 상의 관계가 실제 관계보다 더 빠르고 쉽게 대인 관계를 형성한다(McKenna & Topping, 1999). 그리고 다른 영역에서보다 사회적 상호작용과 협조성을 더 활발하게 촉진하며(Clements & Nastasi, 1985; Muhlstein & Croft, 1986), 우정을 형성한다(Swigger, 1984). 그런 이유로, 인터넷은 대인 관계를 맺는 새로운 수단으로 정착되고 있다(최보가 & 배재현, 2004). 특히, 공인이라 볼 수는 없으나, 대중들에게 널리 노출된 필자인 전문 블로거들은 고정적인 글쓰기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터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친교를 나누는 장소로 블로그가 활용되기도 한다.

개인 일기를 쓰기도 해요. 막 토해내고 싶을 때 있잖아요. 엄마만 안 봐도 좀 더 쓸 수 있는 게 사실 더 있어요(‘도일리’의 어머니는 그녀의 블로그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글을 읽는다고 한다. - 연구자 주). 뭐, 가끔은 감성적인 글도 쓰는데, 숨긴 글을 쓰거나 하는 ‘번개별다이어리’가 있어요. ①남들이 봐주기를 바라면서도 쓰는데, 그건 제가 쓰고 싶어서 쓰는 글이에요. 누가 나중에 보면 부끄러워서 하루 이틀 봐두고 바로 비공개로 돌려요. ②이걸 보신 분은 나와 인연이 있는 거라고, 공감이나 눌러주고 가라고 우리 이런 인연 이어가자고 써요.

[12-05-19 ‘도일리’ 면담 자료]

블로그는 기본적으로 개인 글쓰기 공간의 속성을 가지므로, 때때로 필자들은 본인의 사적인 이야기를 쓰고(①), 독자와 공유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주기적으로 블로그를 구독하는 독자들과 라포르(②)가 형성되는 것이다.

독자에 대한 고려는 필자에게 있어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다. 특히, 실제적인 독자와 상호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인 블로그에서 독자의 반응은 그만큼 블로거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된다. 특히,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댓글을 남기거나 트랙백을 걸어 글을 주고 받아본 적극적 독자의 경우, 전문 블로거들도 분명히 의식하고 신경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크블루’는 공중파 TV 프로그램⁶⁹⁾ 인터뷰에서 “댓글은 블로그에게 독자가 주는 월급”이란 이야기로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글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원고료 등으로 글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면, 직업적 글쓰기가 아닌 ‘무상 글쓰기’를 하고 있는 블로거들의 경우, 많은 독자들의 관심과 반응이 자신의 글에 대한 보상이 된다는 말이다. ‘재바우어’ 역시, 평소 글의 주제나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이목을 신경쓰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으나, 공을 들여 쓴 글에 반응이 없을 때는 섭섭한 마음이 든다고 답변하였다. 전문 블로거 대부분 자신의 공간에서 글을 쓰는데 있어 필자의 주관이 뚜렷한 편이나, 의미있는 독자들의 반응에는 귀 기울이고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블로그 글쓰기는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관계 역시 온라인을 중심으로 맺게 되기 때문에, 참여 빈도와 노출 횟수에 따라 친분이 쌓이는 특징이 있다.

문학 블로거인 ‘분홍변집’의 경우, 등단한 문인들의 피드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다. 그녀의 경우 온라인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훨씬 더 동요하는 경향이 보였는데, 이에 대해 ‘결혼 이후, 삶의 대부분을 가사 일에 집중하면서 사람들과의 접촉과 교류가 적었기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분홍변집’은 현재 자신의 블로그에 들어오는 기성 작가들 몇 명을 멘토이자 스승처럼 생각하고 조언을 구하고 있으며, 이들의 의견은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고 있다.

‘인생절정’의 경우도 주요 독자들의 조언은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 논조가 강한 글을 주로 써온 그의 경우 한번 가족들과 다녀온 여행 후기를 게시한 적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 한 구독자가 ‘그답지 않다’는 반응을 보인 후로, 그

런 류의 글은 더 이상 쓰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그 의견을 받아들인 건, 그 댓글을 쓴 독자가 지속적으로 그의 블로그를 구독하던 의미있는 독자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마찬가지로 ‘재바우어’도 얼마 전 가깝게 지내는 독자 중 한명이 ‘답글을 좀더 친절하게 달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남겨 계속 신경이 쓰인다고 답했다. 이렇게, 필자의 손을 떠난 텍스트가 잠재적이고 추상적인 독자에게 도달하여 시공간이 분리된 소통이 이뤄졌던 이전과는 달리, 지금의 글쓰기는 시간차를 두되, 같은 공간에서 반응과 피드백이 이뤄지는 형태로 상호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짐으로써 필자는 글을 쓸 때 독자를 강하게 의식하게 된다. 독자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전통적인 글쓰기에 비해 디지털 시대의 쓰기는 독자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쉽게 알 수 있게 되어 더욱 독자 지향적인 글쓰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윤여탁 외, 2008).

이처럼 전문 블로거들 역시 다양한 독자의 반응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를 선별하여 자신의 글쓰기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알 수 있다.

3) 물적 보상: 단독 매체로서의 경제적 가치 및 효용성

글쓰기에 대한 자아 효능감과 성취감이 높은 필자들의 경우, 물적 보상이 글쓰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전에는 글 쓰는 직업을 갖지 않은 평범한 필자가 글을 통해 물적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전무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블로그 글쓰기를 통해 얻게 되는 유형, 무형의 물적 보상 역시 중재적 조건으로 기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분홍변집’의 예를 보자. ‘분홍변집’은 50대 후반의 가정주부다. 하루 많은 시간을 컴퓨터에 앉아 글쓰기에 보내기엔 무리가 있는 상황의 필자다. 처음 블로그 글쓰기를 시작했을 때에는 가족들이 그녀가 글을 쓰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집안일에 소홀해진 것도 아닌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고 묻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⁷⁰⁾ 그런 그녀가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은,

70)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 자료가 필요할 것이나, ‘분홍변집’이 우리나라의 평범한 주부의 조건을 가졌다고 할 때, 이러한 가족의 반응은 우리나라 중년층 여성의 문식활동에 대한 한 단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69) ‘다크블루’는 MBC 슈퍼블로거 12화(11-08-19 방영) 출연한 바 있다.

그녀가 파워블로거로 선정된 것, 그리고 얼마 전 뮤지컬 어워드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이다.

얼마 전에, 딸이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 중에 “어머니는 집에서 살림하시니?”라고 물었대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그 말을 듣고 “우리엄마, 뮤지컬 시상식 심사위원이예요.”라고 하지 그랬어.”라고 이야기했어. 그랬더니, 딸이 부끄럽게 웃더라고요.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요즘 너무 신기하고 기뻐요.

[12-06-04 ‘분홍번짐’ 면담 자료]

가정주부인 그녀가 대외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블로그 글쓰기로 인해 얻어진 물적 보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블로그 필자들이 내재화된 동기를 인과적 조건으로 하여 활발히 문식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그들의 문식 실행에 가시적인 추동을 준 사건(event)는 분명 그들이 각자 소속된 사이트의 ‘파워블로거’로 선발된 것이었다. 대중에게 잘 알려진 경로를 통해 양질의 필자로 ‘공인’을 받게 되면서 대외활동의 기회를 다양하게 얻게 된 것이다.

그밖에도 이 연구의 참여자들 중에 일부는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⁷¹⁾에 참여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할 수 있었다.

5. 작용/상호 작용: 자발적 탐색과 자율적 선택

사람들이 마주치게 되는 상황, 문제, 쟁점을 다루고 이에 대처하는 방식은 작용/상호작용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상황에 대해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반응하는가, 더 나아가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Strauss & Corbin, 1990). 블로거들은 변화된 글쓰기 환경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문식적 실천을 위해, 자발적 탐색과 자율적 선택의 방법으로 작용/상호작용 수행

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생애 필자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다크블루’는 선천적 안면 기형 장애가 있다. 블로그에 글을 쓰기 전에는 학교생활과 사회생활 등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인터넷에서의 상호작용과 달리, 실생활의 경우 외모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면대 면 만남이 잦기 때문이다.

블로그 운영 초기에는 블로그 카테고리 가운데 ‘긍정주의가 싫다’라는 항목이 있어, 그 안에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우울한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적기도 하였다. 이재승 외(2006)에서는 이러한 양상의 글쓰기를 카타르시스 동기를 통해 수행하는 글쓰기로 분류한 바 있다. 일상의 삶을 ‘투쟁’ 같았다고 표현하는 그는,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영화 기자로서의 장래 희망을 다시 갖게 되었는데, 이것은 글쓰기의 성취를 통해 자아 효능감을 회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블로그 운영을 지속하면서 자신의 글의 변화가 있었느냐에 대한 질문에, ‘다크블루’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예전에는 뭔가 있어 보이려고 척 하면서 많이 썼거든요. 실력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막 있어 보이는 척 하는. 그런데 지금은 글쓰기 실력이 좀 는 거 같고, 글쓰기에 대한 개념트가 좀 잡힌 듯해요. 글이 좀더 담백하고, 그때보다 읽기 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제가 포스팅을 3천개 넘게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글이 좋냐,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어쨌거나 블로그는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보도 같은 거는 그냥 뉴스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 내 스타일도 바뀌어 가고, 글도 좀더 편안해 지고, 초반보다 그렇네요.

[2011-07-06 ‘다크블루’ 면담 자료]

이와 같은 답변은 필자에게 자신의 글을 메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식 능력이 생겼음을 보여준다. ‘다크블루’는 자신의 글쓰기 능력에 학교의 영향을 어느 정도나는 물음에 대해 ‘전혀 없는 것 같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맞춤법에 신경이 쓰여 워드 프로그램에 미리 글을 작성한 다음 블로그 편집기에 옮겨 업로드를 한다는 것이나 영화 소식이나 잡담 등에서 보이는 어투와는 달리, 영화 한편을 보고 진지하게 적는 리뷰의 경우, ‘합쇼체’를 사용하는 등의 태도는 학교에

71)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은 누리꾼이 이메일이나 다른 전자 가능한 매체를 통해 자발적으로 어떤 기업이나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널리 퍼뜨리는 마케팅 기법으로,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확산된다고 해서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시사경제용어사전, 기획재정부, 2010).

서 배운 고전적 글쓰기 교육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크블루’는 자신이 멘토로 삼고 있는 블로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의견을 밝히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가 블로그 글쓰기를 위해 자발적으로 탐색하고 더 좋은 글을 쓰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복합양식 텍스트 생산자로서 다양한 매체와 자료를 블로그에 활용하는 것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예는 이웃 영화 블로그나 영화 잡지 등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밝혔다.

복합양식 텍스트 생산자들이 텍스트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공간은 변화가 빠르고 양상이 다채로운 곳이다. 자신이 닮고 싶은 누군가를 모방하여 그 기능을 학습하는 것을 관찰학습(observational learning)⁷²⁾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지식과 기능을 습득해 온 전통적인 방식이다. 즉, 사람들은 직접 경험 이외에도 다른 대상의 반응이나 행동을 보고 모방함으로써 학습을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모두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성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중에는 이미 대학을 졸업한지 30년이 된 참여자도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더 이상 교육기관에서 글쓰기를 학습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학창시절 글쓰기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그들은 사회에 진출하고 나서 글쓰기를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복합양식 텍스트로서의 블로그를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블로거 ‘첸들러’의 경우, 디자인이 훌륭한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블로그 콘셉트를 잡았다고 이야기한다.

처음엔 벤치마킹이란 롤 모델을 잡았어요. 네이버로 오고 싶었던 이유도 그거였는데, 예전에 좋아하던 블로거가 있었거든요. 그분의 스킨 디자인이나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색깔 같은 걸 많이 따라했죠. 처음엔 그렇게 롤 모델을 벤치마킹 하다가, 이후 미국 드라마란 방향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내 스타일이 생기더라고요.

[2011-06-23 ‘첸들러’ 면담 자료]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는 고전적 쓰기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물론 그것이 재매

72) Bandura(1996)는 그의 연구를 통해 아동들이 TV에서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어린이 배우를 모방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관찰에 의한 모방이 학습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개 되어, 블로그 글쓰기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들이 그러한 재매개 사실을 인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학교를 나와 접이지대에서 고민하는 필자들이 가장 빠르게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은 바로 자신의 모델링을 찾고 모방을 통해 학습하는 것이다.

연구자: 글쓰기를 본격적으로 배워본 적은 있으세요? 특히 창작 수업 같은.

분홍변집: 전혀 없어요. 대학에서도 배우지 않았죠. 많은 이들은 그래서 제글이 특이하다고 이야기해요. 개성있다고도 하고요. 기성 작가들이 블로그에 와서 글을 읽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줘서 도움을 받고 있어요. 신춘문에 응모해보라고 권유도 해서 작년에 응모한 적도 있지만, 당선은 되지 않았어요. 소설책은 많이 읽지 않았지만, 만화책은 많이 읽었어요. 사람들은 만화책 읽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전 만화책 읽는 것이 그냥 좋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제 상상력을 키워줬다고 생각해요. 소설 소재는 딸이 해주는 주변 이야기나 제가 겪었던 경험 등을 활용해서 써요.

‘분홍변집’은 대학에서 중문학을 공부했지만, 별도로 문학을 공부한 적은 없다. 그러나 그녀의 글쓰기가 ‘자생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 시조 작가였던 아버지를 곁에서 지켜보며 자랐으며, 소설을 꾸준히 읽지 않았다고 하나 비문학 도서는 주변 도서관에서 지속적으로 읽어왔으며, 특히, 그녀는 어릴 적부터 만화책을 열심히 읽어왔다고 한다. 그것이 복합양식 텍스트를 생산하는데 있어, 그녀의 행동 유도성을 야기해주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녀는 자신과 세대가 다른 고등학생 딸이 이야기하는 소재를 소설의 소재로 선택하여 장르를 전환하는 작업을 하기도 한다.

예전에 우리 주변 여학교에서 축제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거기 방송제를 구경했죠. 초대 가수를 기다리다가 심심해서 그림도 보고 그러고 있었는데, 2층에서 시화전을 하는 거예요. (...) 근데 가보니까 우리 나이랑 담지 않게 멋있게 쓴 게 있더라고. (...) 그러더니 갑자기 원작자를 불러드릴까요? 하는 거예요. (...) 일단은 동갑인데 나랑 똑같은 나인데, 이런 시를 쓴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 그렇게 생각하고 집에 왔는데, 나도 그래서 습작으로 써봤어요. 처음에 세편, 네편은

표절. 그렇게 쓰다가 네편, 다섯편은 창작이긴 한데 어쨌든.

[2012-09-12 ‘책바우어’ 면담 자료]

‘책바우어’는 학창시절의 경험을 통해, 꾸준히 시를 쓰는 필자가 되었다. 위의 경험 이후에도 시를 쓴 또래 학생에게 자신의 습작에 대한 과정을 묻기 위해 다시 한 번 시화전을 찾았다고 한다. 이러한 작업은 그에게 중요한 문식적 경험으로 남아 지금 복합양식 텍스트를 생산하고 유통하는데, 잠재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웃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해요. 물론 하는 일이 온라인 계통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요. 소셜 미디어는 결국 참여가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블로그가 1인 미디어라 해도 나 혼자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카테고리를 개편하든, 콘텐츠를 기획하든 이웃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생각해요. 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스스로 팬이 되어서. 그래서 팩트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이 글을 읽고 자기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걸 많이 써요. 사람들이 이런 댓글을 달겠지, 까지 밑그림을 그리고 글을 쓴 하죠.

[11-10-17 ‘요시히코’ 면담 자료]

독자에 대한 고려는 상호소통성이 강한 블로그 글쓰기에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수위를 선택하는 것은 역시 필자의 권한이다. 독자들의 반응을 탐색하기 위해 ‘요시히코’는 다양한 장치를 블로그에 마련하고 독자의 반응을 예측하거나 검증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그가 생산할 텍스트의 방향을 정하게 되는 것이다.

‘도일리’는 학창시절 때부터 국어를 좋아했다. 그녀의 글쓰기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준 건, 고등학교 때 활동했던 시 동아리였다. 그때의 글쓰기 경험은 현재 그녀가 텍스트를 생산하는 성향을 결정하는데 큰 지향점을 만들어 주었다.

시 동아리였거든요. 시를 좀 썼었어요. 친구들이랑. 학교 역사가 얼마 안돼서 새로 만드는 거였어요. 처음엔 그냥 놀려고 만들었죠. 이름이 ‘시럽’이었어요. ‘시 러브’라고요. 그 이름 느낌으로 활동했는데, 젊은 국어 선생님이 지도교사 해주시다 해서, 말 그대로 정말 촉촉하게 지냈죠. 선생님이 텍스트 주고 같이 읽고 시 쓰

고, 돌려보고 또 시 일기장을 다 돌려가며 썼었어요. 그때 그거 다시 봐도 정말 좋아요. (...) 싸이(미니홈피)에 한때 예쁜 글에 밑에 짧은 글 쓰는 그런 거 유행했잖아요. 그런 거 좀 좋아하고, 그러면서 감성 같은 것도 그때 많이 생겼어요.

[12-05-19 ‘도일리’ 면담 자료]

쓰기 교육의 목적 중 하나는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이 생애 필자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직업이 아닌 취미 생활로 평생 지속적으로 글을 쓰게 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쓰기 동기와 흥미가 필요하다. ‘도일리’의 경우, 학교 동아리 활동에서 글쓰기 흥미를 얻은 사례이다. 그러나 대학 입시 준비(논술)로 인해, 다시 글쓰기 동기와 흥미를 상실했다. 대학 입시를 위한 글쓰기 교육이 학생들을 소외시키는 사례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가 많은데,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이와 다른 입장에서 세간의 인정을 받기 위한 실험적 글쓰기를 감행한 필자도 있었다. ‘인생절정’은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초반에 철저히 익명을 유지하였다. 물론 주로 닉네임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인터넷 의사소통에서 익명의 정체성을 가지고 타인과 소통하는 경우는 물론 흔하게 발견된다. 하지만, 그의 경우는 이미 대중에게 실명이 알려져 있는 전문가 필자에게서나 가능한 경우이다. 바로 자신의 소통 능력에 대한 실험이다. 이런 시도를 통해 현실의 전문가 필자는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을 빌어 자신을 자유롭게 포지셔닝을 하고 독자적인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다.

연구자: 만일 소속과 실명을 밝혔다면 어땠을까요?

인생절정: 아마도 많은 부분이 달라졌을 거예요. (...)사람들은 허무해졌겠죠. ‘이 사람 기자니까.’ 이런 생각 했겠지요. ‘기자 중에서도 이상한 애네.’라고 했거나요. 아니면 우리 동료 기자들 사이에서 왕따가 됐겠지요. 자기가 얻은 정보 가지고 자기 개인 블로그 쓴다. (그때 가이드라인이 없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제가 확정되지 않은 내 의견을 쓰는 것에 대하여 조직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신문사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가치충돌이 일어났을 때 누구를 따라야하는지, 제가 잘못했

거나 신문사가 잘못했을 때, 독자들은 어떤 포지션을 취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요.

글쓰기에 있어, 필자가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자가 공개할 수 있는 정보,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의 수위를 결정하게 한다. 많은 이들에게 공개된 글쓰기를 하는데 있어, 대부분의 필자는 그 수위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여전히 지금도 인터넷 공간에서는 필화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많은 필자들이 공개 수위와 표현의 파급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6. 결과: 새로운 매체에 대한 관심, 신중한 독자 고려, 텍스트 질적 관리에 대한 고민

결과는 작용/상호작용을 통해 중심 현상이 조정되면서 나타나게 된다(Strauss & Corbin, 1990).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상술한 중심현상에 다양한 조건이 충돌하고 연합한 결과, 점이지대의 필자가 적극적인 전문 블로거로 정체성을 구성하게 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들의 특징은 표면적으로 1) 새로운 매체에 대한 지속적 관심, 2) 신중한 독자 고려, 3) 텍스트의 질적 관리에 대한 고민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1) 새로운 매체에 대한 지속적 관심

앞서 언급한 대로, 전문 블로거들은 대개 새로이 등장하는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얼리유저(early user)로서 활동하고 있었다. 블로그를 기반으로 하여 활발한 문식 실행을 하면서 ‘그만큼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정보에 쉽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블로그 영향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소통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인생절정’의 경우, 사용하면서 블로그에 쓰던 글의 비중을 다른 SNS로 분할하여 사용하고 있다. 긴 글과 짧은 글, 속보성의 글, 비평적인 글 등으로 특성을 나

눠 각자에게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물론 각 매체의 독자를 고려하여 서로를 연동시켜 둔다. 이러한 전략은 각 매체의 독자 유입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그는 자신의 용도의 맞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온다고 한다면, 역시 사용해 보고 적절하게 취사선택할 용의도 있다.

최근 디지털 카메라에 관심을 갖게 된 ‘분홍번짐’ 역시 새로운 매체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갖게 된 경우다. 아마도 전문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러한 관심은 훨씬 적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의 결과, 그녀도 새로운 매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2) 신중한 독자고려

필자가 글을 쓸 때에 독자의 역할은 최소한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일기 쓰기와 같이 자기 자신이 독자인 경우, 편지 쓰기와 같이 특정한 독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독자에게 말하는 것처럼 구성함으로써 독자가 제3자의 입장으로 글을 읽게 되는 경우가 그것이다(Ryler, Vander & Roen, 1999). 블로그에서 이뤄지는 의사소통에서 독자는 이 세 가지의 스펙트럼이 공존하게 된다. 실제 하나의 글에서도 여러 가지의 역할이 분화되어 나타나는데, 이것은 블로그의 독자가 구체적인 대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글쓰기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는 필자들의 경우, 다양한 난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최근 SNS 상에서 여러 차례 논란이 되었던 사생활 침해나 ‘신상털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바로 이러한 오인에서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변화된 공간에서의 글쓰기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고 그에 맞게 독자를 설득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독자에 따라 적절한 반응을 하게 된다. 즉, 필자는 글을 쓸 때에 위치정하기(Positioning) 전략, 끌어들이기(Attracting) 전략, 정보 조절하기 전략(informing), 반응에 응답하기(Replying) 전략(정혜승 & 서수현, 2009)을 점차 능숙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전문 블로거의 경우 다양한 필자와 접촉하게 되면서, 자신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중요도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반응을 달리하는 전략을 체득하게 된

다. 이러한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필자는 독자에 대해 더 신중하게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3) 텍스트의 질적 관리에 대한 고민

필자의 모든 발화 의도와 시도는 궁극적으로 텍스트로 실현된다(정혜승 & 서수현, 2009). 필자가 독자에게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그가 생산한 텍스트일 것이다. 물론, 상호작용성이 강화된 지금의 글쓰기 공간에서는 텍스트만으로 소통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댓글이나 트랙백 역시 본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능숙한 필자는 그만큼 텍스트의 질적 관리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할 수밖에 없다.

일본 드라마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사실 일본어를 하지 못해요. 일본에 가본 적도 없고요. 일본을 좋아한 게 아니라 일본 드라마를 좋아한 거니까요. ①하지만 앞으로 일본어를 배워보고 싶어요. 블로그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예전에 일본에 가보고 싶었다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요즘은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니, 한계가 있더라고요. ②그래서 뭔가 일본에 직접 가서 보고 오면 새로운 눈을 뜰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콘텐츠 기획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만간 일본 여행을 가보려고요.

(...) 갑자기 일이 바빠졌거나, 만약의 상황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임시로 30편 정도 포스팅을 준비해 놓아요. ③1일 1포스팅을 원칙으로 하거든요. ④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도적인 성향을 가지려고 하죠. 지나친 비판이나 옹호는 피하려고 해요. ⑤독자들이 자의적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저의 소위 ‘과워블로거’니까. 양질의 읽을거리를 제공해야한다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즐겁게 읽어줬으면 하고요.

(...) 참여는 결국 소통하면서 이뤄지는 것인데, 예전에 사람들과 소통을 잘 해야 한다고 말만 들었지, 실감하지 못했거든요. 그냥 같이 어울려 놀면 노는 거고, 그런. ⑥근데 블로그를 하면서 소통의 중요성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과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고 만남을 어떻게 해야하고 ...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11-09-30, 12-07-07 ‘요시히코’ 면담 중]

‘요시히코’의 면담에서 보면, 그의 고민의 궁극적인 목적은 글을 좀더 잘 쓰는 것으로 수렴됨을 알 수 있다. 박영민(2010)은 필자의 글쓰기 동기가 글쓰기에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자아 효능감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더 잘 쓰고 싶다는 욕구로 바뀌고, 그것은 좋은 글을 쓰는 필자가 될 가능성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요시히코’는 학창시절 별도로 글쓰기 수업을 받아본 기억이 없고, 학교 수업을 통해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물론, 학교에서 받은 교육이 그의 글쓰기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에게 글쓰기 동기를 발현하기는 힘들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가 더 좋은 글을 쓰기 위해 관련 언어의 학습을 하고(①), 직접적인 경험을 하고(②), 글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③), 글의 논조를 정하는 것(④)은 그가 오랜 기간 동안 실제로 글을 써보면서 체득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는 전문 필자로서의 책무성(⑤)과 소통의 중요성(⑥)도 느끼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학습의 과정은 초심자나 낯선 학습자가 새로운 사회에 옮겨옴으로써, 새로운 문화에 점점 활동적으로 참여한 결과, 전문가나 고참이 되는(Lave & Wenger, 1991) ‘상황학습’의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VIII. 요약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는 디지털 필자의 문식 실행을 질적 연구를 통해 관찰, 탐구하여 이들이 어떠한 텍스트를 어떠한 과정을 거쳐 생산하며, 또 어떤 요소에 영향을 받는 지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매체의 발달과 인터넷의 등장은 글쓰기 공간과 소통 구조를 변화시켰고 필자들은 인쇄 매체 시대와는 다른 맥락 속에서 글쓰기를 실행하게 되었다. 현재 디지털 원주민으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어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복합양식 텍스트 위주의 의사소통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복합양식 텍스트 가운데, 1인 미디어로 주목 받고 있는 블로그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블로그는 현재 많은 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SNS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플랫폼이다. 또한 긴글 쓰기에 유용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연구의 참여자인 전문 블로거 필자들은 독자들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글쓰기 생산물을 조정하고 통제하였으며, 생산 과정에서 개인의 가치관과 성향, 사회 분위기와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표현 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최적화된 방식에 대한 탐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었다. 다양한 모델링과 실험적 글쓰기, 그리고 스스로의 내적 성찰이 필자의 문식 실행에 영향을 미쳤다. 독자와 세상의 반응은 필자를 계속 새롭게 각성시켰으며 공개할 수 있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에 대한 내적 기준 역시 끊임없이 조정하게 하였다.

이 연구는 설문지, 심층 면담, 글쓰기 과정에 대한 스크린 촬영, 텍스트 분석, 관찰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근거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분석한 사례 연구이다. 구체적인 필자의 사례를 근거리에서 탐색하고 다양한 자료원을 검토함으로써 필자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를 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연구는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

는 전문 필자에 대한 연구로서, 이를 통해 앞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조직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참여자인 블로그 전문 필자, 즉 전문 블로거들은 자신이 지향하는 좋은 필자의 모습을 설정하고 이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들이 설정한 좋은 필자는 그간의 교육과 경험을 통해 각기 개성 있는 모습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실시간으로 다수의 반응을 얻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매체를 소유한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글을 읽는 독자들과 더 활발히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다양한 검증과 실험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들은 기존 학교 교육에서 설정한 교육적 이상향과 자신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필자의 이상적 모습의 점이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부단히 갈등하는 필자로서 생애 필자의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또한 이제까지 학교에서 주로 학습해 온 인쇄 매체 글쓰기와 달리, 다양한 표현 수단을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글쓰기 환경에 처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매체와 쓰기 관습이 가진 전달효과와 파급력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의도치 않은 성취를 경험하며 제도권 교육에서 학습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글쓰기 경험을 쌓고 있었다. 이렇게 매체의 발달은 필자의 능동적 참여와 실행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 필자들의 적극적인 문식 실행을 위해 교육 현장에서는 이에 적절한 교육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필자들의 문식 실행 결과물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을 본격적인 연구의 시발점으로 삼았다. 블로그 텍스트의 특성을 감안하여, 메인 화면과 포스트를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메인 화면 분석은 각 구성요소별 배치와 구성틀, 그리고 필자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하였다.

블로그의 메인화면은 블로그의 전체 디자인이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각 연구 참여자의 복합양식적 감수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독자는 블로그의 메인화면에서 해당 블로그에 대한 첫인상을 갖게 된다. 필자들은 이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런 이유로 블로그 메인의 미적인 디자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또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와 이제까지 쌓아온 글쓰기 경력, 또는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었다. 이전과

는 달리, 디지털 필자들이 텍스트의 유통과 소통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블로그 방문자 수나 유입경로 등에 대한 관심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은 필자 스스로 플랫폼을 선택하고 이를 운영하게 된 글쓰기 공간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텍스트 분석은 필자가 생산하는 텍스트의 성향을 검토하여 ‘문자 텍스트 중심형’, ‘이미지 텍스트 중심형’, ‘융합형’ 필자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인터넷 공간에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복합양식 텍스트를 생산하는 필자들은 표현 수단 뿐 아니라 방식에서도 이전보다 한층 다양한 선택지를 갖게 되었다. 블로그 플랫폼의 선택 역시 그 중 하나일 것이다. 필자들은 그 이전에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꾸준히 고민해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구어시대부터 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 블로거들이 생산한 텍스트를 분석함으로써, 능숙한 디지털 필자들이 새로운 글쓰기 공간에서 어떠한 텍스트를 생산해 냈는지를 탐색해 보았다.

각 필자들의 교육환경, 문식 경험, 그리고 매체 친숙도에 따라 복합양식 텍스트를 구현하는 양상은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문자 텍스트를 중심으로 블로그 텍스트를 생산하는 필자들의 경우, 논문이나 책 등의 인쇄매체 편집 방식이 재매개된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하이퍼텍스트와 분량에 구애받지 않는 쓰기 공간은 텍스트를 생산할 수 있는 외연을 확장하였으며, 지속적인 수정작업과 댓글에 대한 반응을 통해 독자들과 꾸준히 문자텍스트로 소통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디지털 기기의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이미지 중심의 필자들은, 이미지를 더 강렬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1단 편집의 활용과 이미지 텍스트와 문자 텍스트의 조합 등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미지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워터마크의 사용과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모티콘의 활용 등도 인상적인 특징이었다.

문자 텍스트 중심의 필자와 이미지 텍스트 중심의 필자의 진화형으로 볼 수 있는 융합형의 필자는, 디지털 원주민 필자의 모습과 가장 유사한 특징을 가진 필자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개성과 능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다양

한 복합양식 텍스트를 자유롭게 구현하고 있었다. 마치 잡지의 표지처럼 포스트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공들여 제작하여 배치한다거나 자체 캐릭터를 개발하여 포스트에 적극적으로 개입시키는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그리고 블로그를 모임공간처럼 활용하여 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는 필자도 있었다. 이러한 문식 실천은 블로그라는 플랫폼의 특성과 인터넷 공간이 가진 가능성을 개성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텍스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텍스트의 생산과정을 살펴보는 작업 역시 이 연구의 또 다른 축이었다. 이 과정을 통해 디지털 필자들이 기기를 어떻게 다루며, 새로운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업하는지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화면 녹화와 이를 통한 사후 면담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시간별로 나누어 글쓰기 과정과 과정 중 부가 행동의 이중 구조로 정리하였다. 각 연구 참여자들은 높은 동기를 가진 필자답게 내용 생성의 과정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컴퓨터 편집기 내에서 글의 구성과 표현을 동시에 진행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이 과정은 복합양식 텍스트를 사용하는 방식과 유형에 따라 편차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글쓰기 과정은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컴퓨터를 사용한 디지털 텍스트 생산 과정의 특성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앞서 수행한 전문 블로거의 블로그 텍스트 분석과 텍스트 생산 과정 분석, 그리고 면담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그들의 문식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여 패러다임 모형을 제작하였다. 이를 위해 문식성 후원자의 개념을 도입하여 전문 블로거들의 문식성 후원자 및 영향 요인을 도출해 내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중심 현상과 이를 야기한 조건들, 그리고 결과에 대한 내용을 조직하였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오랜 기간 블로그를 운영해 온 전문 필자들이다. 그들은 디지털 텍스트 생산과 유통, 수용에 익숙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텍스트 생산자들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이들은 다양한 상황과 계기를 통해 쓰기 동기가 고양된 상태로 변화된 글쓰기 공간에 진입하였다. 이렇게 ‘고취된 쓰기 동기’를 이 연구에서는 중심현상을 초래한 인과적 조건으로 보았다. 이러한 동기가 높은 필자들에게 ‘변화된 글쓰기 공간’과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였으며,

그것이 맥락적 조건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러한 인과적, 맥락적 조건이 바로 지금의 ‘점이 지대의 필자’를 만들어 냈다. 그들은 전문 필자로 삶을 영위하고 있으나 이것을 통해 자신의 직업을 개척하거나 생활을 유지하지는 않는다. 지금은 취미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으며 일부가 이를 통해 약간의 수입을 얻고 있다. 현실과 이상의 점이지대 뿐 아니라, 이제까지 교육받았던 쓰기에 대한 지식과 기능, 그리고 변화해 가는 글쓰기 환경과 인식의 변화를 통해 그들은 고민하고 충돌하는 필자로 문식 실행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각 필자마다 다양한 기존의 ‘전통적 쓰기 교육’과 ‘의미있는 타자’, ‘물적 보상’ 등이 강화가 되어 문식 실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조건들은 필자에게 보편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개인별로 다양한 편차를 보이는 중재적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전통적 쓰기 교육’에 대해서 필자들은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텍스트 분석이나 과정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볼 때, 그들의 문식 실행에 전통적 쓰기 교육이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필자들은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자발적인 탐색과 자율적인 선택을 거쳐 자신의 문식 실행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이러한 작용과 상호작용을 통해 필자들은 현재 새롭게 변화하는 매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움직이고 있었으며, 독자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계속적으로 독자에 대해 탐색하고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자신의 텍스트에 대한 질적 관리에 고민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또한 보이고 있었다. 이렇게 다양한 후원자와 상호 소통하고 또 이들을 선택 또는 배제하는 모습을 통해 필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이 연구의 제한점은 전문 필자를 통해 이뤄진 연구이기에 디지털 글쓰기를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의 실행 양상을 역추적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후속 연구로 새롭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는 소수의 전문 필자를 면밀하게 연구한 질적 연구의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여기에서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좀더 일반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양적 연구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제언

국어교육은 사람들의 의사소통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지식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현대의 의사소통은 새로운 방식의 의사소통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디지털 매체, 특히 디지털 글쓰기를 위해 필요한 새로운 사회의 질서를 아동과 청소년에게 훈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디지털 필자에 대한 논의는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 연구는 복합양식 텍스트 생산자 가운데, 지속적으로 텍스트를 생산하고 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문 필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이다. 물론 전문가 연구는 향후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나, 이것 말고도 실제 교육대상이 될 학생들의 실행 수준과 양상이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매체 교육의 방향은 게임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 예방과 같이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계도하는 쪽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일 뿐, 교육의 근본적인 취지와는 다소 먼 일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은 매체가 발달하면서 점차 다양한 콘텐츠에 노출되고 있으며, 점차 학교 안보다 학교 밖에서 문식 실행을 더 활발히 하고 있다. 지금의 학생들은 더 이상 학교에서 쓰기를 배우고 연습하지 않고 있다.

버킹엄(Buckingham, 2000)은 매체 교육에 있어 독자의 비판적 수용, 창의적인 생산, 능동적인 참여를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매체 교육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현실 가능성을 고려한 연구를 지속하는 한편, 이와 동시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문식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또한 필요하다. 이 연구의 결과가 앞으로 문식성 교육에 시사할 수 있는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할 시에 현재 디지털 원주민 학습자들의 문식 환경과 문식 실행 양상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 학습자들을 수동적인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학교 밖에서 어떤 문식 실행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들에게 다양한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재정비해야한다.

둘째, 학교는 학습자들에게 도전과 모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어야 한다. 학교 안과 밖의 경계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예전의 학습자들은 쓰기를 주로 학교에서 배웠으며, 학생들이 글을 쓰고 평가받을 기회가 학교 안으로 국한되어 있었다. 이에 교사에게 평가받는 글쓰기가 주를 이루었으며 또래 집단에게 자신을 글을 보여주고 평가를 받는 것 역시 매우 드문 일이었다. 그러나 매체가 발달하고 인터넷을 통한 글쓰기가 확대되면서 학생들은 점차 자신만의 글쓰기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학교보다 학교 밖 글쓰기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학교 밖은 학생이란 이름으로 보호받기 힘든 공간이다. 그런 이유로 아직 능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 상처를 받고 그리하여 미리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사례도 종종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건, 분명 애석한 일이다. 학교는 이러한 지점에서 학생들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만 한다. 즉, 학교는 학생들이 마음껏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실패가 가능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 참여한 필자들은, 모두가 학교에서 받은 작문 교육이 자신의 디지털 글쓰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물론, 분석 결과 학교 교육의 영향이 전무했다고 볼 수는 없었으나, 필자 본인이 ‘필요 없다.’고 느끼는 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 상황이다. 이것은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낮추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학교가 학생들이 연습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심지어 줄 수 없는 학습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은 분명 바람직하지 못하다.

셋째, 교사 역시 다양한 방식의 의사소통에 관심을 갖고 이에 익숙해지려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물론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매체를 교사가 모두 다 능숙하게 다뤄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학습자들의 문식 실행에 관심을 갖고 이들이 주로 소통하는 공간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공유되고 있는 정서가 무엇인지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자는 여러 국면에서 자신을 가르치는 교사의 영향을 받고, 그를 모델링하는 경우가 많다. 교사와 함께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학습하는 가치와 태도 역시 매우 중

요한 부분이다. 즉, 잠재적 교육과정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교사 역시 학생들이 접하는 디지털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교사와 부모는 학생들의 다양한 문식 실행에 대해 열린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를 격려해야 한다. 종종 성인들은 학생들의 학업 이외 과외활동을 무용한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의 학생들은 이 연구의 참여자들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글쓰기를 학교 밖에서 시도하고 홀로 연습하고 학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어른들의 불찰이 바로 청소년 학습자들을 ‘고독한 필자(서수현, 2010)’로 만드는 것이다.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것이 자연스럽게 학생의 삶 속에 들어올 때 학습 역시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 학생들이 디지털 필자로서 텍스트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교사와 부모는 적극적인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 학습자들이 주체적으로 디지털 텍스트를 생산하고 유통하기 위해서는 상황적 조건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대의 의사소통에는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필요로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 기기들을 모두 사용해볼 수는 없으나, 기술의 변화를 체험하고 시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은 학습자의 행동유도성을 계발하고 향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를 공교육에서 제공해야만 한다. 또한 다양한 플랫폼을 시험해 본다가, 자신의 독창적인 콘텐츠를 기획하는 등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학습자들이 바람직한 디지털 필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능력이 필요하고 또 어떠한 교육적 장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국어교육학계의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학문은 현재의 면밀한 탐구를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만 한다. 특히, 교육학계는 미래를 살아갈 학습자를 길러내기 위한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다. 그러한 책무성을 더 깊이 가질 필요가 있다.

여전히 디지털 글쓰기는 주류가 아닌 취미나 여가활동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현재 활발하게 문식실행을 수행하는 필자들조차도 자신들의 문식실행의 가치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는 현재로서 가치로올 수 있음을 알고 그 작업의 가치를 열린 마음으로 인정하고 이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것이 국어교육학의 외연을 확장하는 한편 내연을 튼실하게 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전문가 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다. 앞으로는 다양한 연령층, 특히 디지털 텍스트를 생산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어린 필자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연구의 참여자들의 과거의 경험을 인터뷰와 텍스트 분석을 통해 추적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경험할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복기를 한 자료이므로 그 당시에 수집할 수 있는 자료에서 다소 가공되고 누락되었을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질적 연구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소수의 연구 참여자를 세밀하게 관찰하여 이들을 미시적으로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교육 현장에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토대로 일반적인 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개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필자의 문식실행에 영향을 주는 각각의 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필자와 이들의 문식실행에 접근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필자의 쓰기 동기 형성에 대한 연구나 학교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적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 등이 그렇다. 또한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블로그이외에도 다른 SNS 사용자에 대한 연구를 통해 플랫폼의 특성에 따라 참여자의 의사소통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탐색하는 연구도 시도해볼 수 있다.

디지털 필자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지의 영역으로 간주될 만큼 갓 시작된 연구 분야이다. 이들의 존재가 대중적으로 관심을 받게 된 것 역시 최근의 일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필자들은 이전의 필자들과 어떻게 다른가, 그들의 문식실행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필자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이를 통해 현재 필요한 쓰기 교육의 모습과 변모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국어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디지털 텍스트를 통한 의사소통 참여자들의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는데 이 연구가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민경(1999),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사용한 작문 과정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순자(2004), 「하이퍼텍스트를 활용한 초등학교 쓰기 교육 연구」, 진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은진, 현은자(2006), 「유아 미디어 리터러시교육의 효과에 대한 질적 고찰」, 『유아교육연구』 26(1), 한국유아교육학회, 211-232.
- 교육과학기술부(2011),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교육과학기술부.
- 권순희(2003), 「하이퍼미디어 시대의 의사소통 양상의 표현교육」, 『텍스트언어학』 15, 한국텍스트언어학회, 75-108.
- 김대행(2007), 「매체 환경의 변화와 국어교육의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28, 국어교육학회, 5-36.
- 김대희(2007), 「국어과 교육과정에서의 미디어 교육 수용 양상에 관한 연구: 제 7차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28, 국어교육학회, 209-238.
- 김미량(1998), 「하이퍼텍스트 학습환경에서 상호작용성의 정도가 학습결과의 제 측면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36(4), 173-199.
- 김성도(2002), 「상호매체성의 융합기호학적 함의 : 하이퍼미디어에서 발현되는 텍스트와 이미지의 융합성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13,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9-56.
- 김성희(2008), 「인터넷 매체언어의 교육 내용 연구: 문화적 소통에 대한 참여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79, 한국국어교육학회, 55-77.
- 김성희(2012), 「생태학의 관점에 따른 인터넷 매체언어 교육 내용의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43, 국어교육학회, 99-123.
- 김성희(2009), 「인터넷 매체언어의 읽기와 쓰기 특성과 효과적 통합 지도 전략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소영, 주영혁(2001), 「지각된 상호작용성과 웹사이트 충성도에 관한 연구: 매개 변수로서 플로우(flow)의 역할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12(4), 185-208.
- 김승중(2004), 「전통적 글쓰기와 디지털 시대의 글쓰기」, 『국어문학』 39, 5-28.
- 김승희(2005), 「워드프로세서 작문의 문단 쓰기 양상 연구」, 『청람어문교육』 32, 1-20.
- 김영만(2003), 「하이퍼텍스트 작문의 특성과 한국어 작문 교육 방향」, 『한국어교육』 14(3), 53-78.
- 김운한, 이현우(2009), 「애니메이션캐릭터에 대한 감정이입, 인지적, 감정적 반응의 매개적

역할에 관한 연구」,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15, 179-192.

김위근, 이강형, 이동훈(2010), 『한국의 파워블로거』,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보고서 2010-08

김정자(2003),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과 작문 교과서 내용 분석 연구-전자 작문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16, 국어교육학회, 119-145.

김정자(2004), 「국어과 교사와 학생의 인터넷 이용 실태 및 인식 비교」, 『국어교육학연구』 19, 국어교육학회, 247-288.

김종희(2005), 『사이버 문화, 하이퍼텍스트 문학』, 국학자료원.

김진영(2012), 「플랫폼(platform)이란 무엇인가? - 플랫폼의 정의, 그리고 그 진화의 방향」, 『플랫폼을 말하다』, 클라우드북스, 12-23.

김창원(2008), 「미디어 시대의 문학 능력: 문학 능력과 교육과정, 그리고 매체- 교육과정 목표를 통해 본 문학 능력관과 매체의 수용」, 『문학교육학』 28, 한국문학교육학회, 63-85.

김희수(1994), 「메타인지와 하이퍼텍스트 구조가 저작체제 학습에 미치는 효과」, 『교육학연구』 32(5), 한국교육학회, 207-234.

김혜정(2002), 「하이퍼텍스트 구조 이해-문어텍스트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13,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67-294.

노명완(2007), 「미래사회에서의 전문활동과 국어능력」, 『국어교육』 122, 한국어교육학회, 1-22

노명완(2012), 「독서와 작문: 그 개념의 변천과 지도 방법의 시사점」, 한국독서학회·대학작문학회 가을공동학술발표대회 자료집, 133-160.

노정미(2003), 「웹(Web) 자료 활용을 통한 읽기와 쓰기의 통합 지도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명승은(2008), 『미디어 2.0 - 미디어 플랫폼의 진화』, 한빛미디어

문은주(2010), 「하이퍼텍스트를 활용한 텍스트 읽고 쓰기에 관한 교수법 연구」,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석규(2004), 「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정보미디어 연구』 10(1),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65-90.

박승희(2005), 「디지털 텍스트와 새로운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글쓰기와 읽기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31, 343-363.

박인희(2006), 「작문 교육에서 컴퓨터의 위상」, 『새국어교육』 72, 한국국어교육학회, 59-79.

박인기(1996), 「독서와 매체환경」, 『독서연구』 1, 한국독서학회. 123-147.

박인기(2010), 「국어교육과 매체언어문화」, 『국어교육학연구』 37, 국어교육학회, 137-158.

박인희(2006), 「작문 교육에서 컴퓨터의 위상」, 『새국어교육』 72, 한국국어교육학회, 59-79.

박현정(2009), 「전자매체 시대의 글쓰기 지도 방안- 이미지 단락을 이용한 이야기 만들기를 중심으로」, 『배달말교육』 30, 배달말교육학회, 145-177.

변윤희, 현은자(2002), 「기호학적 관점에서 본 그림책의 글과 그림 읽기」, 『유아교육연구』 22(2), 한국유아교육학회, 339-362.

배식한(2000), 『인터넷, 하이퍼텍스트 그리고 책의 종말』, 책세상.

백영균, 최재희(1996), 「학습자의 메타인지 수준과 하이퍼텍스트 유형이 학습 과제 수행에 미치는 효과」, 『교육학연구』 34(3), 한국교육학회, 123-144.

서유경(2009), 「매체언어교육의 실행 방안 연구」, 『국어교육』 128, 한국어교육학회, 73-101.

서수현, 정혜승(2009), 「PAIR 전략을 활용한 독자 고려 교육」, 『국어교육학연구』 35, 국어교육학회, 271-299.

서수현(2010), 「쓰기 수업 경험과 학생 필자의 정체성 구성」, 『한국초등국어교육』 44,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142-173.

손예희(2009), 「학습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신장을 위한 매체 언어 교사의 존재상」, 『새국어교육』 82, 193-218.

손예희, 김지연(2010), 「소셜 미디어의 소통 구조에 대한 국어교육적 고찰: 트위터, 미투데이 등의 마이크로 블로그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133, 207-231.

안정임 외(2004), 『학교 미디어교육 교사양성 방안 연구』, 미디어교육 연구보고서 2004-2, 한국언론학회 미디어교육위원회.

양영종(1991), 「효과적인 TV커머셜 제작을 위한 연구: 컨조인트 분석기법을 중심으로」, 『광고연구』 13, 한국광고홍보학회, 139-161.

오선아, 진화봉(2004), 「하이퍼텍스트 학습환경에서 학습전략, 메타인지, 작동기억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0(1),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35-63.

옥현진(2008), 다중모드 문식성. 노명완·박영목 외, 문식성 교육 연구, 한국문화사.

옥현진(2009), 「정체성과 문식성」, 『국어교육학연구』 35, 국어교육학회, 361-386.

옥현진(2010), 「컴퓨터 글쓰기의 쓰기 교육과정 반영 방안에 관한 사례 연구」, 『청람어문교육』 41, 청람어문교육학회, 209-239.

옥현진(2010), 「국어교육 질적 연구 동향에 대한 일고찰 -연구 타당성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32, 한국어교육학회, 249-268.

옥현진, 서수현(2011),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그림일기 표현 활동에 나타난 복합양식 문식성 양상 분석」, 『한국초등국어교육』 46, 한국초등교육학회, 219-243.

왕치현(2005), 「하이퍼텍스트와 문화의 대중화」, 『독어교육』 32,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411-431.

우한용, 김정자, 김성진, 김영만, 한성일, 정래필(2006), 『인터넷 시대의 글쓰기와 표현』, 서울대학교 출판부.

유현주(2003), 『하이퍼텍스트 - 디지털미학의 키워드』, 연세대학교 출판부.

윤여탁, 최미숙, 김정자, 정현선, 송여주, 손예희(2007), 「매체언어교육의 본질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19, 국어교육연구, 45-68.

이광복(2001), 「텍스트에서 하이퍼텍스트로: 매체의 변화와 그것의 문학교수법적 수용에 대하여」, 『독어교육』 21,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27-52.

이계현(2002), 「인터넷을 통한 글쓰기 교육 방안」, 숙명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동후(2006), 「인터넷의 공간과 시간」, 『커뮤니케이션 이론』 2(1), 한국언론학회, 1-34.

이동후(2010a), 「제3의 구술성: ‘뉴 뉴미디어’ 시대 말의 현존 및 이용 양식」, 『언론정보연구』 47(1),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43-76.

이동후(2010b),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매체철학적 고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성규(2009), 『또 하나의 세계를 여는 트위터, 140자의 매력』, 책보세.

이순영(2010),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독자와 비판적 읽기」, 『독서연구』 24, 한국독서학회, 87-109.

이유선(2005), 「디지털 다매체 시대의 글쓰기 전략」, 『카프카연구』 12, 한국카프카학회, 247-270.

이재기(2001), 「주체, 이데올로기, 그리고 문식성 교육」, 『국어교육학연구』 12, 국어교육학회, 317-361.

이재기(2004), 「문식성 교육 지배 담론의 주체 형성 효과」, 『국어교육학연구』 21, 국어교육학회, 43-93.

이재기(2006), 「쓰기 교육에서 학생 필자의 자리」, 『청람어문교육』 33, 청람어문교육학회, 51-80.

이재기(2009), 「‘실용’ 시대, 국어교육의 정체성 모색」, 『청람어문교육』 39, 청람어문교육학회, 47-71.

이재승, 신현재, 임천택, 전제웅(2006), 「초등학생용 쓰기 동기 검사 도구 개발과 활용 방안」, 『청람어문교육』 34, 청람어문교육학회, 129-159.

이재현(2006), 『재매개(뉴미디어의 계보학)』, 커뮤니케이션북스.

이지영(2009), 「매체언어의 사용 양상 연구-인터넷 지식 검색의 질문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30, 한국어교육학회, 147-172.

이채연(2007), 「매체언어교육의 교수학습 방법」, 『국어교육학연구』 28, 국어교육학회,

임천택(2001), 「매체 문식성의 개념과 교육적 접근 관점」, 『청람어문교육』 23, 청람어문교육학회, 53-81.

임천택(2002), 「하이퍼텍스트 기반의 작문 교수 학습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임천택(2002), 「작문 교육을 위한 하이퍼텍스트 기반의 작문 공간 모형 설계 방안」, 『국어교육학연구』 15, 국어교육학회, 435-477.

임천택(2007), 「컴퓨터 글쓰기에 대한 비판적 담론 고찰」, 『새국어교육』 75, 한국국어교육학회, 311-336.

조은하(2008), 『디지털리터러시』, 한국학술정보(주).

장유정(2008), 「매체에 따른 글쓰기 방식의 변화 고찰-1930년대 근대 매체의 실화 수용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65, 한국언어문학학회, 439-466.

정승혜(2011), 「광고 사운드의 이론적 고찰과 문화적 함의-배경음악과 아도르노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13(2), 한국광고홍보학회, 414-443.

정영근(2004), 「디지털 영상문화와 교육학적 사유」, 『교육철학』 31, 한국교육철학학회, 151-168.

정현선(2000), 「아이들도 미디어를 읽는다-수용자 연구의 교훈」, 『중등우리교육』 127, 중등우리교육, 122-128.

정현선(2002), 「성찰적 문화교육으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국어교육학연구』 14, 국어교육학회, 387-408.

정현선(2004a), 「디지털 리터러시의 국어교육적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21, 국어교육학회, 5-42.

정현선(2004b), 「인터넷 유머 이해의 문화교육적 고찰-다중문식성과 하이퍼텍스트적 소통 원리를 중심으로」, 『한국어의미학』 14, 한국어의미학회, 297-325.

정현선(2006), 「미디어 소통의 관점에서 본 인터넷 공론화의 언어문화」, 『국어교육』 119, 한국어교육학회, 57-186.

정현선(2007a), 「기호와 소통으로서의 언어관에 따른 매체 언어 교육의 목표에 관한 고찰」, 『국어교육연구』 19, 97-138.

정현선(2007b), 「인터넷 언어 문화 교육 내용으로서 디지털 서사의 개념·특성·유형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30, 국어교육학회, 431-470.

정현선(2009a), 「학급문집 만들기 프로젝트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사진과 글을 통한 초등학

교 저학년 어린이들의 표현과 소통, 국어교육학연구, 36, 국어교육학회, 519-560.

정현선(2009b), 「디지털 시대 글쓰기에 있어 ‘표현 도구’와 ‘매체 특성’ 이해의 필요성」, 『어문학』 106, 한국어문학회, 99-130.

정현선, 이미숙(2006), 「초등학교 저학년 문학 수업에 대한 실행 연구 -그림책 수업 담화 분석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21, 한국문학교육학회, 113-154.

정혜승(2008), 「문식성의 변화와 기호학적 관점의 국어과 교육과정 모델」, 『교육과정연구』 26(4), 한국교육과정학회, 149-172.

정혜승(2009), 「문식성 실천으로서 베토벤 바이러스 팬덤 읽기」, 『국어교육』 128, 한국어교육학회, 273-324.

정희진, 김민정(2005), 「1인 미디어 사이트의 공간분석을 통한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 연구: 싸이월드 미니홈피와 네이버 블로그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1(2), 73-84.

조국현(2007), 「인터넷 “댓글”의 텍스트유형학적 연구」, 『텍스트언어학』 23,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3-230.

조병영(2007), 「인터넷 환경에서의 초인지적 독서 전략」, 『국어교육』 124, 한국어교육학회, 281-316.

주창윤(2003), 『영상 이미지의 구조』, 나남출판.

진중권(2012), 『생각의 지도』, 천년의 상상.

차호일(2006), 「서술 양식의 변화와 작문교육에의 시사」, 『한국문예비평연구』 19,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87-313.

최미숙(2007a), 「매체 언어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방향: 선택 과목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28, 73-101.

최미숙(2007b), 「매체 환경의 변화와 국어교육의 방향: 매체언어교육을 위한 교수, 학습 방법 탐구- 문화, 매체 문식성 개념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28, 국어교육학회, 73-101.

최민재(2009), 「PD저널리즘 프로그램 영상구성의 객관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9(1), 한국지역언론학회, 198-226.

최병우(2006), 「전자매체시대의 독자」, 『독서연구』 16, 한국독서학회, 55-75.

최보가, 배재현(2004), 「실제공간과 사이버공간 친구관계에서의 관계만족도, 자기노출」, 『대한국가정학회지』 42(2), 대한가정학회, 1-17.

최인자(2001), 「문식성 교육의 사회·문화적 접근」, 『국어교육연구』 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1-220.

최인자(2002), 「다중 문식성과 언어문화 교육」, 『국어교육』 109, 한국어교육학회,

195-216.

최인자(2004), 「다매체 시대의 문학 독서 교육 방향」, 『독서연구』 12, 한국독서학회, 233-260.

최지현(2007), 「매체언어교육을 위한 교수, 학습 방법 탐구: 문화, 매체 문식성 개념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28, 국어교육학회, 143-182.

허희옥, 강익성(2010), 「웹 2.0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 블로그와 위키를 중심으로」, 『한국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13(2), 한국컴퓨터교육학회, 59-70.

홍진영, 박선주, 정승화(2009), 「과위 블로거들의 충성도를 결정하는 기술수용 및 경제력 요인에 관한 연구」, 『경영과학』, 26(3), 185-204.

KISA(2011), 『2011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Adorno, T. W. (1941). On popular music. *Studies in philosophy and social science*, 9, 17-48.

Annell, M. (1996). Grounded Theory Method: Philosophical Perspectives, Paradigm of Inquiry, and Postmodernism. *Qualitative Health Research*, 6(3), 379-393.

Anderson, R. E. (2008). Large-Scale Quantitative Research in New Technology in Teaching and Learning. In J. Coiro, M. Knobel, C. Lankshear, & D. J. Leu (Eds.), *Handbook of research on new literacies (pp. 67-102)*. New York: Lawrence Erlbaum Associates.

Bakhtin, M.(1981). Discourse in the novel, in C. Emerson & M. Holoquist(eds.) *The dialogic imagination: Four essays* by M. Bakhtin, Austin: University of Texas.

Bandura, A.(1965). Vicarious processes: A case of no-trial learning.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2) (pp. 3-57)*. New York: Academic Press

Bearne, E.(2003). Ways of knowing: ways of showing-towards an integrated theory of text, in M. Styles & E. Bearne (eds.) *Art, Narrative and Childhood*. Stoke-on-Trent: Trentham Books.

Bearne, E.(2004). 복합양식 텍스트: 복합양식 텍스트란 무엇이며 어린이들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in J. Evans, (ed.) *Literacy Moves On: Popular culture, new technologies, and critical literacy in the elementary classroom*. London: Routledge.

정현선 옮김(2011). 『읽기 쓰기의 진화』 (pp.43-68), 사회평론.

Bennett, S., Maton, K, & Kervin, L. (2008). The ‘digital natives’ debate: A critical review

of the evidence.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39(5), 775-786.

Bolter, J. D.(2001), *Writing Space: computers, Hypertext, and the Remediation of Print*,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김익현 옮김(2010), 『글쓰기의 공간 : 컴퓨터와 하이퍼텍스트 그리고 인쇄의 재매개』, 커뮤니케이션북스.

Brandt, D.(1998), *Sponsors of literacy*,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49, 165-185.

Buckingham, D. (2000). *After Death of Childhood: Growing Up in the Age of Electronic Media*, Polity Press. 정현선 옮김(2004), 『전자매체 시대의 아이들』, 우리교육.

Cho, C. H. & Leckenby, J. D. (1997). *Internet-Related Programming Technology and Advertising. Working Paper*, Department of Advertising. College of Communic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Cooper, P. & Simonds, C. (2006) *Communication for the classroom teacher(8th)*, Pearson.

Dam-Jensen, H. & Carmen, H. (2009). *Process Research Methods and Their Application in the Didactics of Text Production and Translation*. Shedding Light on the Use of Research Methods in the University Classroom. trans-kom 2 「1」 : 1-25

Debray, R. (1992). *Vie et mort de l image*, 정진국 역(1994), 『이미지의 삶과 죽음: 서구적 시선의 역사』, 시각과 언어

Deutsch, M. and Gerard, H.B. (1955), A Study of Normative and Information Social Influences upon Individual Judgement,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1. 629-636.

Dominick, J.R., (1999). Who Do You Think You Are? Personal Home Pages and Self-Presentation on the World Wide Web,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6(4). 646-658.

Dyson, A.H.(2003). *The Brothers and Sisters Learn to Write*.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Eisenmann, T. R., Parker, G. & Alstyne, M. V. (2008). Opening Platforms: How, When and Why? *Harvard Business School Entrepreneurial Management Working Paper No. 09-030*.

Evans, J. (2004). 21세기에 필요한 읽기 쓰기의 본질 변화, in J. Evans, (ed.) *Literacy Moves On: Popular culture, new technologies, and critical literacy in the elementary classroom*. London: Routledge. 정현선 옮김(2011). 『읽기 쓰기의 진화』 (pp.29-40), 사회평론.

Ewins, R. (2005). Who are you? Weblogs and Academic Identity. *E-Learning*, 2(4),

368-377.

Fairclough, N. (2001). *Language and Power(2nd)*. Longman.

Flower, L. (1993). *Problem Solving Strategies for writing(4th)*, Harcourt Brace & Company. 원진숙, 황정현 옮김(1998), 『글쓰기의 문제 해결 전략』, 동문선.

Frawley, W. (1987). *Text and Epistemology*. Ablex Publication Corporation.

Glaser, B. & Strauss, A.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이병식, 박상욱, 김사훈 옮김(2011), 『근거이론의 발견: 질적 연구전략』, 학지사.

Glesne, C. (2006). *Becoming Qualitative Researchers: An Introduction(3rd)*. Pearson Education INC, 안혜준 역(2008), 『질적 연구자 되기』, 아카데미 프레스.

Goffman, E.(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New York: Doubleday.

Guzzeti, B. J. (Ed.). (2002). *Literacy in America: an encyclopedia of history, theory, and practice*. ABC-CLIO.

Haffman, D. L. & Navak, T. P. (1996), Marketing in Hypermedia Computer-Mediated Environment: Conceptual Foundation. *Journal of Marketing*. 60. 50-68.

Holland, D., Lachicotte, W., Skinner, D. & Cain, C.(1998), *Identity and Agency in Cultural World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Hyunjin-Ok (2009). *A case study of korean American Adolescents' Identity Construction through Literacy Practices on the Internet*.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Jewitt, C. & Kress, G.(2003). *Multimodal literacy*, New York: Peter Lang

Johns, R. H. (2009). Technology and sites of display, in C. Jewitt(ed.), *Routledge Handbook of Multimodal Analysis*. (pp.114-126). London: Routledge.

Johnson, D. (2010). Teaching With Author's Blogs: Connections, Collaboration, Creativity. *Journal of Adolescents & Adults Literacy*, 54(3), 72-80.

Kendall L. (2008). The Conduct of Qualitative Interviews: Research Question, Methodological Issues, and Researching Online. In J. Coiro, M. Knobel, C. Lankshear, & D.J. Leu (Eds.), *Handbook of research on new literacies* (pp. 133-149). New York: Lawrence Erlbaum Associates.

Knobel, M.(2001). "I'm not a pencil man": How one student challenges our notions of literacy "failure" in school, *Journal of Adolescent & Adult Literacy* 44(5), 404-414.

Kress, G. R. (2003). *Literacy in the New Media Age*. London: RoutledgeFalmer.

Kress, G. R. (2009). What is mode?, in C. Jewitt(ed.), *Routledge Handbook of Multimodal Analysis*. (pp.54-67). London: Routledge.

Kress, G. R. & van Leeuwen, T. (1996). *Reading Images: The Grammar of Graphic*

- Design*. London: RoutledgeFalmer.
- Kress, G. & van Leeuwen, T. (1998). Front Pages: (The Critical) Analysis of Newspaper Layout. In A. Bell, & P. Garrett, P. (Eds.), *Approaches to Media Discourse*. Blach Well, 백선기 역(2004), 『미디어 담론: 대중매체와 담론의 프레임 분석』, 커뮤니케이션 북스.
- Kress, G. R. & van Leeuwen, T. (2001). *Multimodal Discourse: The Modes and Media of Contemporary Communication*, London: Edward Arnold
- Kress, G. R.(2003). *Literacy in the new media age*, London: Routledge.
- Kress, G. R. (2011). *Multimodal discourse analysis*.
- Kuhn, T. S. (1962).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김명자 역(1992). 『과학 혁명의 구조』, 동아출판사.
- Lankshear, C., Gee, J., Knobel, M. & Searle, C. (2002). *Changing Literacies*.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Lankshear, C. & Knobel, M. (2003) *New literacies: Changing Knowledge and Classroom Learning (2nd ed.)*.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Lave, J. & Wenger, E. (1991). *Situated Learning: 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vinson, P.(2009). *New new media*. Boston: Allyn & Bacon.
- Leary, M. R. & Kowalski, R. M. (1990). Impression Management: A Literature Review and Two-Component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07(1). 1990, pp. 34-47.
- Lewis, C., & Fabos, B. (2005). Instant messaging, literacies, and social identities. *Reading Research Quarterly*, 40(4), 470-501.
- Lewis, C., Leander, K., & Wang, X. (2007). Digital Literacy In B. J. Guzzetti (Eds.), *Literacy for the New Millennium vol3* (pp. 207-222). London: PRAEGER
- Luke, A.(1998). Getting Over Method: Literacy Teaching as Work in New Times, *Language Arts*, 75(4), 305-313.
- Mackey, M.(2004). 어린이들의 이야기 읽기와 해석: 인쇄물, 영화, 컴퓨터 게임 속 이야기. in J. Evans, (ed.) *Literacy Moves On: Popular culture, new technologies, and critical literacy in the elementary classroom*. London: Routledge. 정현선 옮김 (2011). 『읽기 쓰기의 진화』 (pp.97-116), 사회평론.
- Manyika J. et. al.(2011). *Big Data: The next frontier for innovation, competition, and productivity*, McKinsey & Company, May 2011.
- Marsh, J.(2004). 영상물에 담긴 이야기: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진 디지털 편집 교육 사례. in J. Evans, (ed.) *Literacy Moves On: Popular culture, new technologies, and critical literacy in the elementary classroom*. London: Routledge. 정현선 옮김 (2011). 『읽기 쓰기의 진화』 (pp.69-96), 사회평론.
- Merchant, G.(2004). 운명의 단검과 만능 핸드백. in J. Evans, (ed.) *Literacy Moves On: Popular culture, new technologies, and critical literacy in the elementary classroom*. London: Routledge. 정현선 옮김(2011). 『읽기 쓰기의 진화』 (pp.117-146), 사회평론.
- Merchant, G. (2008). Digital writing in the early years. In J. Coiro, M. Knobel, C. Lankshear, & D. J. Leu (Eds.), *Handbook of research on new literacies* (pp. 751-774). New York: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eyrowitz, J.(1998). Multiple Media Literacies. *Journal of Communication*, 48(1), 96-108.
- Miller, C. (1984). Genre as Social Action. *Quarterly Journal of Speech*. 70. 151-67.
- Nardi, B. A., Schiano, D. J., Gumbrecht, M., & Swartz, L. (2004). Why We Blog. *Communications of the ACM*, 47(12), 41-46
- New London Group(1996), *A Pedagogy of Multiliteracies: Designing social futures*, Harvard Educational Review 66(1), 60-92.
- Ong, W. J.(1967). *The presence of the word: Some prolegomena for cultural and religious history*,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O'Railly, T. (2005). What is Web 2.0: Design patterns and business models for the next generation of software. *International Journal of Digital Economics*, 65. 17-37.
- Pace, S. (2004). A grounded theory of the flow experiences of Web user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Computer Studies*, 60, 327-363.
- Palfrey, J. (2008). *Born Digital*. Basic Books. 송연석, 최완규 옮김(2010), 『그들이 위험하다』, 서울: 갤리온
- Patton, M. (2002).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 3r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 Porter, J. (2002). Why technology matters to writing: A cyberwriter's tale. *Computers and Composition*, 20, 375-394.
- Prenkys, M. (2001). *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 On the Horizon, 9, 5, 1-6.
- Rosenbaum, S. (2011). *Curation Nation : How to Win in a World Where Consumers are Creators*. McGraw-Hill. 이시은 옮김(2011), 『큐레이션: 정보 과잉 시대의 돌파구』, 명진출판사.
- Schlenker, B.R.(1975). Self-Presentation: Managing the Impression of Consistency When

Reality Interferes with Self Enhanc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1030-1037.

Schlenker, B.R., Britt, T.W., Pennington, J., (1994). Murphy, R. and Doherty, K.J., The Triangle Model of Responsibility, *Psychological Review*, 101, 632-652.

Schlenker, B.R., Britt, T.W. and Pennington, J. (1996), Impression Regulation and Management: Highlights of a Theory of Self-Identification, In R.M. Sorrentino and E.T. Higgins (1996)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Vol. 3. The Interpersonal Context* (pp. 118-147), New York: The Guilford Press.

Shapiro, J. & Hughes, S. (1996). Information literacy as a liberal art. *Educom Review*, 31(2). 31-35.

Schmidt, J. (2007). Blogging Practices: An Analytical Framework.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2, 1409-1427.

Schultz, K. (2006). Qualitative Research on Writing. In C. A. Macarthur, S. Graham & J. Fitzgerald (Eds.), *Handbook of Writing Research*(pp. 357-373). New York: The Guilford Press.

Stern, S. (2008). Producing sites, exploring identities: Youth online authorship. In D. Buckingham. *Youth, Identity, and Digital Media*. MA: The MIT Press, 95 - 118.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EUA : Sage

Strauss A.L. & Corbin J. (1994) Grounded theory methodology: an overview. In N. Denzin & Y.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Sage Publications, London, pp. 273 - 285.

Strauss A.L.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Sage Publications, Newbury Park, CA.

Veenstra, A. S. (2009). *Inside the New Media News Audience: Political Blog Readers As Cognitive Actors*.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Walsh(2006). *Re-envisioning adolescent literacies in new time multiliteracies, multimodalities and digital technologies*.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부록 1] 연구참여자 블로그 장면 갈무리화면

1) 다크블루



2) 요시히코

The screenshot shows a website for 'Medici Private Party'. At the top, there's a header with navigation links and a large banner featuring several framed portraits of people. Below the banner, there's a table with columns for 'Service Name', 'Price', 'Duration', and 'Availability'. The table lists various services like 'Portrait Session', 'Group Photo', etc., with corresponding prices and durations. To the left of the table, there's a sidebar with additional information and a 'Medici Private Party' logo. Below the table, there's a section titled 'Medici Private Party' with a photo of a group of people and some text.

서비스명 (Service Name)	가격 (Price)	시간 (Duration)	예약가능 (Availability)
초상화 촬영 (Portrait Session)	3,000 원	1시간	예약가능
그룹 사진 촬영 (Group Photo)	5,000 원	1시간	예약가능
영상 촬영 (Video Shooting)	10,000 원	1시간	예약가능
사진 촬영 (Photo Shooting)	2,000 원	1시간	예약가능
사진 촬영 (Photo Shooting)	2,000 원	1시간	예약가능
사진 촬영 (Photo Shooting)	2,000 원	1시간	예약가능

3) 찬들러

The screenshot shows a website for 'Medici Private Party'. At the top, there's a header with navigation links and a large banner featuring several framed portraits of people. Below the banner, there's a table with columns for 'Service Name', 'Price', 'Duration', and 'Availability'. The table lists various services like 'Portrait Session', 'Group Photo', etc., with corresponding prices and durations. To the left of the table, there's a sidebar with additional information and a 'Medici Private Party' logo. Below the table, there's a section titled 'Medici Private Party' with a photo of a group of people and some text.

서비스명 (Service Name)	가격 (Price)	시간 (Duration)	예약가능 (Availability)
초상화 촬영 (Portrait Session)	3,000 원	1시간	예약가능
그룹 사진 촬영 (Group Photo)	5,000 원	1시간	예약가능
영상 촬영 (Video Shooting)	10,000 원	1시간	예약가능
사진 촬영 (Photo Shooting)	2,000 원	1시간	예약가능
사진 촬영 (Photo Shooting)	2,000 원	1시간	예약가능
사진 촬영 (Photo Shooting)	2,000 원	1시간	예약가능

4) 책바우어



5) 도일리



[illegible][illegible]

[부록 2] 분석 대상 포스트 목록(가나다 순)

블로거	포스트 URL	포스트 주제/화제
인생절정	http://www.****blog.net/2021?category=0 http://www.****blog.net/1957?category=4 http://www.****blog.net/2003?category=4	ibook Author 비평 소셜스트레스에 대한 칼럼 파워블로거에 대한 입장
다크블루	http://*****.blog.me/60026894848 http://*****.blog.me/60166276980 http://*****.blog.me/60040348757 http://*****.blog.me/60122270811	영화 리뷰 영화 감독 인터뷰 배우 작품 총정리 페이스북에 대한 짧은 글
분홍번짐	http://*****.blog.me/10147736925 http://*****.blog.me/10079523217 http://*****.blog.me/10117965437	일상에 대한 짧은 글 소셜 단편, 습작 일상에 대한 산문
도일리	http://*****.blog.me/70141943100 http://*****.blog.me/70106285074 http://*****.blog.me/70135483852	흑돼지 전문점 맛집 리뷰 책 리뷰 남대문 사진 스케치
첼들러	http://*****.net/30143149984 http://*****.net/30145467795 http://*****.net/30143889925	미드 리뷰 SF 영화 흥행 순위 분석 포스트 *** 다방의 팔팔발수 촬영 소식
잭바우어	http://*****.blog.me/40168176853 http://*****.blog.me/40165406581 http://*****.blog.me/40146079734	캐나다의 핫도그 맛집 리뷰 하늘 사진과 짧은 글 블로그 댓글에 대한 공지사항
요시히코	http://*****drama.net/150146864222 http://*****drama.net/150095496900 http://*****drama.net/150127983550	일드 2012년 4분기 라인업 소개 좋아하는 중년 배우 설문 일드 리뷰

[부록 3] 심층면담 전사 자료의 예

[2011-09-12 ‘잭바우어’ 면담 전사 자료]

연구자: 지난 면담 때 블로그 메뉴얼을 만드신다는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어떻게 되셨나요?

참여자: 곧 공지사항에 올리려고요. ‘블로그에 처음 오신 분들은 공지사항을 읽어주세요.’ 아님 배너를 달까해요.

연구자: 아, 닉네임을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참여자: 그게 영화 제목인데, <high lander>라고, 크리스찬 램버트가 나오는. 옛날 80년대 초중반 영화네, 그게 죽어도 안죽는 불사신에 대한 내용이에요.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부족이 전쟁을 해서 칼싸움 하다가 부족장 아들인데, 찢려서 죽었는데, 부활을 했죠, 알고보니 이 사람이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아. 악마란 누명을 쓰고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산에 살다가 어떤 여자랑 만나 같이 살았는데 자기는 안 늙고 와이프는 늙어서 죽지요, 그 뒤로 여자를 안 만나고, 그냥 쪽 혼자 살아서 2차대전도 겪고 현재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정상적인 사람이 되려면, 세계에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에너지를 흡수하면 자기는 보통 사람이 되는 거예요. SF 영화지요. 그게 1편이 그 당시 무척 참신하고 또 편집 기술이, 화면을 옮겨가면서 현재와 과거는 오가는데 카메라를 왔다갔다 오가면서 독특하게 장면 전환이 되는데, 정말 신선했거든. ... 그게 정말 인상깊어서, 그래서 예전에 하이텔 천리안 시절에 닉네임을 만들었지요. 그게 13자라서 (현재 hilander513) 입력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high를 hi로 바꾸고 만들었지요.

그리고 한글 닉네임을 네이버 블로그를 먼저 안하고 내가 와인 동호회 카페를 옛날에 했는데, 닉네임을 정해야하는데, 카메라를 그때도 좋아했으니까 그거 관련된 거로 지으려고 했지. 닉네임을 와인동호회라고 ‘와인맨’ 이렇게 하면 좀 유치하잖아요. 그래서 ‘****’, 이렇게 정했죠. 근데 이렇게 될지 몰랐죠. 그땐 무난한 닉네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블로그를 하고 사진을 하니까. ‘****’, 이라고 소개하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처럼 된 거죠.

게다가 검색 사이트에 검색도 안되니까 블로그로는 썩 좋은 이름이 아니죠. 그래서 검색 사이트에 ‘****’, 이라고 치면 좋은 사진 찍는 법, 이런 거가 나오더라고요. 가끔씩 검색해보거든. 내가. 대단히 유명하지 않으면, 검색이 안 되겠지만, 참 블로거로서는 좋지 않은 이름이죠. 배경으로 ‘좋은 사진’ 이런 게 나오니까.

연구자: 네이버 블로그를 선택한 이유는 뭐죠?

참여자: 티스토리는 귀찮고, 다 알아서 해야 하니까. 네이버에서 주로 로그인하고 카페 활동도 하

니까. 검사검사.

연구자: 블로그만 하시는게 아니고, 다른 SNS도 하시죠?

참여자: 트위터도 하고 페이스북도 있긴 있죠. 근데 페이스북도 남의 거 안가요. 트위터도 그렇고, 사람이 이상해요. (웃음) 옛날엔 좀 갔는데, 갈 시간도 없고, 트위터는 멘션 뜨면 답글 하죠, 사실 나도 내 블로거나 트위터에다가 왜 댓글 안 쓰냐고 뭐라고 하긴 하는데 나도 사실 가서 방문자 기록 지우고 그냥 읽고 나오고 그러거든요. 트위터도 읽고 반응 안하는 경우가 많아요.

연구자: 그럼 결국 자기 '만족형 블로거'인 건가요?

참여자: 사실 블로그는 예전엔 자주 갔었어요. 지금은 일단 갈 시간이 별로 없고, 일단 내 블로그에도 답글 달 시간이 별로 없고, 사실 우리 (현재 문화관련 블로거들 간의 사모임이 있다.) 꺼는 가끔 가기도 하는데, 친한 애들이 바이럴을 자주 하다 보니까 굳이 새소식이 떠도 안 누르게 되더라고요. 일단 바빠서?

연구자: 그럼, 블로그 하시면서 트위터를 하게 된 계기는요?

참여자: 그게, 여행을 갔는데, 블로그를 올리기는 귀찮고 그래서 올리다가 그렇게 됐지요. 처음에는 맛팔도 잘 안하고 꽤쇄적으로 했어요. 팔로를 하면 하는데, 프로필도 제대로 안 쓰고, 그냥 개인 '박제진'으로 활동했죠. 그래서 그냥 지인들만 했어. 한 40명? 50명? 그래서 그 답에 몇 백명 정도 규모로 했었는데, 근데 바뀌었죠.

연구자: 바뀌게 된 계기라면?

참여자: 작년 봄 즈음인데, 내가 크리스피 크림에서 커피를 마신 적이 있어요. 드립 커피를 시켰는데, 위에 커피 가루가 떠 있는 거야. 트위터에 올렸죠. 그리고 올리고 2시간 있다가 크리스피 크림 대표한테 멘션이 왔어요. 어디냐, 죄송하다, 알려주시면 시정하겠다. 이런 거. 그래서 그걸 트위터에 '신기하다, 이런 일이 있네.'라고 썼는데, 계속계속 알티가 되는 거예요. 한 50 개씩. 공연을 보고 나왔는데, 그 사이에 계속 된 거죠. 근데 또 뒤에 디엠에 대표가 정말 죄송하다, 확인했는데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거다 하는 거야. 그리고 주소 알려주시면 선물을 보내겠다. 이런 말이 왔어요. 그래서 또 올렸죠. 그랬더니 또 막 알티가 되더라고, 아, 그래서 재밌다 ... 그전까지는 아는 사람이라 한니까, 알티 할 일도 없고 ... 그래서 재밌네 하는 생각 때문에 그 뒤로는 팔로 하면 나도 바로 맛팔 하고 그렇게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그 일 아니면 지금도 그냥 비슷했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다 우연히 된 거예요. 블로그도 그렇고.

연구자: 그렇게 광범위하게 이용하시면서 중요하게 지키는 가치가 뭔가요?

참여자: 양심을 속이지 않는거. 바이럴을 하더라도 양심의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하는 거니까요.

연구자: 이런 활동을 통해 가장 크게 얻는 건요?

참여자: 재미? (웃음)

연구자: 메뉴는 계속 늘어난다고 하셨는데요. 하루에 블로깅을 하는데 드는 시간은요?

참여자: 요즘은 집에 있으니까. 좀 빈도가 늘어났고, 포스팅 하나 하는데 2-3시간 걸리니까요. 2개하면 5시간 거리고, 예전에 직장 다닐 때는 2-3일에 한번씩 포스팅을 했으니까. 그때 많지 않았고, 그때 댓글을 충실하게 달아줬죠.

연구자: 핸드폰으로도 확인 하시죠? 스마트폰 쓰시니까요.

참여자: 근데 요즘은 핸드폰으로 확인은 하는데, 댓글은 귀찮아서 잘 안달아요. 다음에 해야죠, 하긴 하는데. 예전엔 정말 다 했거든? 근데 몇 달전 모임에서 지인이, '댓글 다 안 달아요' 하기에 ... 그때 나 너무 힘들었거든. 다 달아주느라고. 아, 그래? 근데 그러고 편하긴 했는데, 대박 욕먹어서 지금 다시 달고 있어요. (하하하) 내가 하던대로 해야죠. 남 따라 하니 안되겠더라.

연구자: 누가 뭐라고 해요?

참여자: 전에 캐나다 여행 같이 가기로 한 사람들과 모임이 있었거든요. 발대식을 하고 나니까 내 블로그에 와 본 거야. 처음보는 블로거니까. 근데 내 판에는 성실하게 달았다고 생각했는데, 까칠하시다고, 만나면 아닌데, 근데 거기선 너무 까칠하고 도도하고 하시다고.

근데 그때 좀 사연이 있긴 해요. 사석에서 이야기하면서 독거노인이라고 장난치고 했는데, 그걸 내 블로그까지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기분이 나빠서 금칙어 처리 시키고 지우고 그랬거든요. 그거 보고 더 한 이야기였죠. 사실 좀 그렇잖아. 와가지고. 판 데서 장난친 거를. 거기까지 와서.

트위터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블로그에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나는 공간이 좁히는 걸 그리 안 좋아하거든요. 이 모임에선 내 캐릭터가 이런데, 다른 테선 또 달라. 암전할 수도 있고, 좀 바보 같을 수도 있는 거고.

연구자: 그럼 트위터에서의 캐릭터와 블로그에서의 캐릭터가 다르다는 이야긴가요? 그런 걸 구분해 놓는다는 건가요? 사실 겹쳐지는 경우도 있고, 호환이 좀 되잖아요.

참여자: 물론 독자들은 호환할 수도 있지만. 난 일단 그렇지 않으니까요. 물론 날 더 가깝게 알 순 있겠지. 하지만 난 그냥 그걸 지키니까요.

연구자: 알기가 힘들 수도 있잖아요.

참여자: 근데 블로그는 정기적인 성향을 이야기하기 애매한 공간이고, 일단 블로그는 나를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내 콘텐츠를 보고 오는 거니까요. 트위터는 그냥 그때그때 생각하는 걸 쓰는 거고요.

연구자: 트위터는 그럼 흘러가듯이 쓰는 거군요.

참여자: 그러니까. 블로그는 내 입이고, 트위터는 내 머리에요. 사람이 말할 때 걸러서 이야기하잖아. 하지만 생각은 자유롭게 하잖아요. 내 캐릭터는 그렇죠. 트위터는 내 머리고, 블로그는 내 입이라고 생각해요.

연구자: 그럼 트위터는 생각나는대로 하시고, 블로그는 걸러서 한다는 건가요?

참여자: 거른다가 보다는, 트위터는 안 가리고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고. 블로그는 어디 씹고 그렇지 않죠. 정보를 전달하거나 내 기록을 하거나 그런 의도니까. 그렇게 지저분하게까진 안쓰는 거죠.

연구자: 페이스 북은 왜 안하세요?

참여자: 페이스북까지 할만한 여력이 없는데, 블로그랑 너무 소재가 겹치고, 또 페이스북은 블로그보다 소통을 더 많이 해야하니까요. 그리고 친해지고 싶은 사람하고만 지낼 수 없으니까. 차라리 카카오톡이 나. 페이스북은 다른 사람들 눈치도 봐야하고, 또 조금 연관되는 사람들하고도 다 친구를 맺게 하니까요. 보여주기 식의 공간 밖에 안 되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난 블로그가 있고.

연구자: 근데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트위터에 대해서 ...

참여자: 트위터로 뭔가 이미지에 도움을 받으려면 나처럼 하면 안 되죠. 솔직히 00는 언론형 블로그잖아. 자기 생각을 어디다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예요, 그걸 두려워하거나 그게 잘 안맞거나. 사실 페이스북은 화장발 이미지잖아요. 그러니 잘 안맞을 수밖에.

연구자: 독자들을 고려를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참여자: 난 전혀 안해요. 난 통제도 잘 안봐요. 내 이야기 쓰는 건데, 왜 그런 걸 생각해요. 고려하면 좋겠는데. 그냥 난 내 위주로 쓰는게 좋아요. 그냥 블로그는 개인공간이라고 설정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바이럴도 선택하는 건데, 그게 내가 이게 관심이 있고 그래서 선택했다. 하는 거니까 전혀 생뚱 맞은 게 아니죠.

연구자: 어떻게 보여지고 싶다는 키워드는 없나요? 예를 들어, 아까 댓글에서 까칠하다고 하니 좀

신경 쓰시는 것 같았는데요.

참여자: 음. 그렇지 좋은 이미지면 좋겠어요. 하지만 내가 딱 이런 모양이면 딱 그런 모양으로 봤음 좋겠어요. 물론 안 좋게 보면 싫죠. 내가 원래 이런 모양인데, 뽀족하게 보거나, 내가 이 정도인데 너무 대단하게 보거나 그런 건 싫어요. (물론, 바이럴 업체 사람들은 나를 좀 대단하게 봤음 좋겠어. 하하하;;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다르고.) 지인들인데, 나랑 거리감 있게 생각하고 그건 싫어요.

연구자: 신경 쓰지 않더라도, 뭐랄까. 독자들에게 ‘내가 당신을 신경쓰고 있다’란 이미지를 주고 싶진 않나요?

참여자: 아, 누가 그렇더라고요. 난 그렇지 않았거든요. 전에 까칠하다는 이야기 듣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어. 내걸 그래서 쓱 보더니, 답글에 신경써야겠다. 한 사람은 까칠하더라, 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내가 까칠하게 단 건 아닌데, 내가 달아놓은 댓글 보고 ... 내가 여기와서 댓글을 달아야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은 답글 다는 거 싫어하는 거 아냐? 하는 느낌이 들더라나.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이야기지요. 나는 이 사람이 댓글을 달아서 자주 주우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글을 썼으니까. 책임을 다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연구자: 아무래도 텍스트에 힘을 다 쏟기 때문일까요?

참여자: 응. 그냥 내가 좋아서 썼는데, 좋다고 하면 예 좋아요. 그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잘자. 그럼 예 안녕히 주무세요. 그럼 응.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거야. 내가 백프로로 썼는데, 거기 다시 반응했다고 다시 백프로로 이야기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길게 다는 편인가요?

연구자: 아무래도 그렇죠. 음. 까칠하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상냥하지 않다는 느낌 정도일까요?

참여자: 정의없다는 느낌인건가? 나 사실 복사, 붙여넣기도 안하거든요. 상냥하게 진심을 다해 다는 느낌으로 하는 건데, 남이 볼 땐 귀찮아한다고 생각하려나?

연구자: 글썄요. 여지가 없다는 느낌일 수도 있고요. 난 블로그에 힘을 쏟았으니 첨언을 할 필요는 없다,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참여자: 읽어 쓴 이야기를 댓글로 다는 거 너무 기본 나빠. 위에 잘 읽어보지 ...

연구자: 위에 꺼 다시 읽어보시라고, 그런 댓글 본 거 같아요. 그래서 까칠하다 느낀 걸 수도 있겠네요.

참여자: 난 성의있게 글을 썼으니, 독자도 성의있게 썼음 좋겠어요.

연구자: 방문객 수에 대해서 의식 하세요?

참여자: 의식할 때 있지요. 내가 힘들어서 썼잖아요. 내가 정말 공들여서 썼는데 댓금이 없잖아.

방문객 수도 적고. 그럼 의기소침하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근데 언제는 정말 성의없이 썼는데 갑자기 대박이 날 때가 있어요. 포털 메인에 오르고. 그럼 이게 뭐지? 싫어요. 그동안 내가 잘못된 건가? 싫어. 그래서 힘을 안 들였는데, 오히려 잘 되면 반대로 내가 그동안 잘못 했나 싫어요. 물론 기쁘기도 하지만 자책을 해보죠.

[부록 4] 쓰기 과정 분석 표

1) 캔들러

	인	ㅁ
0		
0		
0		
0	,	
0		
0	,	
0		
3		
3		
0	,	
3		

2) 다크블루

	인	ㅁ
0	,	
0	,	
0		
0		()
0		(,)
0	, ,	
0		()
0		

0		(7)
0	,	
0		
0		
0	1	
0		
0		
0	,	
0		
0		
0		()
0	,	
0		
2	,	
0	,	
0		
0		
0		
0		
0	,	
0		

5) 요시히코

	한	노
0		
0		
0		
0		
0	,	
0	,	,
0		
0		
0		,
0		,
0		()
0		,
0		
0		
0	한	
0		
0		

[부록 5] 블로그 댓글의 예(분홍번짐)



2011/09/06 10:18

답글

누군가가 언니가 부모가 선택해...

나에게 조금만 기다도 힘이 되어주었다면...라는 불평불만을 가져볼려고 있고 가끔은 그때 그렇지않았더라면...하는 회한도 가져보지요.

그렇지만 결국은 자기의 인생은 통원해서 자기가 개척해야되고 자기가 살아가 판단해야 된다는 결론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러저러한 불평불만은 시간낭비라는 생각도 들고요

훨훨 날아 자신의 꿈을 현대하게 펼치기 위해선 멀리 높이 날아보아야만 많은것이 보이고 많은것이 느껴진다는 것일까요

산재도 될 고생과 사서한다는 것들과 제원은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보탬이 되어주고 있을까요

뒤에서 용기와 관심과 기대를 갖어주는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할거야

참 잘 했어

훌륭해

넌 믿어

전 이전말을 많이 듣고 자라고 싶었었고

서노경도는 아버지의 용기와 복돋움을 많이 느끼면서 지금에 와 있는거 같아요~~

그 나머지의 것은 자신의 영역이지요



2011/09/06 15:09

답글

20대까지 가족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한동안 변화에 울렁거리고 부서지고 섞이는 가족외에 변화에서 가족은 그저... 사랑이라는 끈, 그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을..

맞아요, 스스로 두박거리고 걸어야 하는 곳에 길이 생긴다지요.

오오... 그럼요, 긍정적인 격려가 정말 필요했고... 하

어쩌면 모두가 그러지 못했나봐요.

■ '님은 아버지의 따뜻한 격려를 기억하시는군요.

소중한 기억이실 것입니다.

늘 그렇게요. 힘내시는 거 아시지요? 어디에 있든... 하

[부록 6]

연구 참여 동의서

아래 정보들은 귀하가 본 연구에 대한 참여의사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는 전문 블로거의 문식 활동과 문식성 후원자의 작용 양상에 대한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블로거들의 복합양식 텍스트의 생산 과정과 여기에 작용하는 요소들을 추적하고 조사하는 연구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면접, 텍스트 분석, 스크린 촬영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것입니다.

귀하는 연구에 대한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연구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가 연구를 중단하는 것은 이 연구에 큰 손실이 될 것이니 연구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기 전이든, 참여하는 중이든 언제든지 연구에 대해 질문하십시오. 연구가 끝난 다음에 저희는 연구결과들을 귀택과 가까이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귀택의 신분은 어떤 방식으로든 연구결과에 제시되지 않을 것이며 연구자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연구와 관련된 위험요인이나 불편사항은 아직 알려진 바 없으며 조사 결과는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십시오)

본인	이 름	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연락처	집 전 화							
	휴대전화							
	E-mail							
주 소								
위 전문 블로거의 문식성 후원자 작용 연구에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인)								

연구자 김지연(고려대학교 박사과정)는 이 연구와 관련하여 언제든지 어떠한 질문에도 성실히 답을 할 것입니다. 010-6346-7627

[Abstract]

A Study on Digital Writers' Literacy Practices

- Focusing on Professional blogger's writing process of digital text

Kim Ji Youn

Korean Language Education, Ed. D. Course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February, 201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aspect of digital writers' literacy practice using a case study method based in grounded theory by analyzing data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s, in-depth interviews about the writing process, screen shots, and digital text analysis. A paradigm model is developed on the basis of this data.

First, through a literature study, I establish that the participants, who are primarily in public relations, meet certain conditions to be considered "professional writers". These writers were identified. Then, among seven selected participants, factors that can be considered "literacy sponsors" of the writing process and the product were identified.

The participants provided information on their identity as writers and the standards they aimed at. With the advent of the Internet has come a different writing context for new writers. This study is focusing on bloggers who have entered the public eyes. A blog is a platform that can be used to publish long text and to text as well, and is widely used in Korea.

The bloggers considered here maintained an adequate balance between writing about themselves and the product they were promoting, and reflected not only their own identity and interests but also social conditions and trends. They had explored ways to present a compelling authorial voice. The factors identified that have an influence on digital writers' literacy practice are, adventurous writing, and self-examination. Self-positioning and careful consideration of what information to provide are key to developing a public presence.

This study develops the relations between the factors given above into a paradigm model based on a central phenomenon, actions/interactions, and consequences. The causes of the central phenomenon, "the writer of transitional zone" can be explained as contextual conditions like change of writing space, and intervening conditions like level of traditional writing education, reactions of significant people, material reward, etc. The digital writers' response to these conditions in their writing can be described as a form of independent exploration, and autonomous selection of content. This is the key to being a successful digital writer, who draws interest in new media, takes into consideration his or her readers, and achieves high-quality writing.

Recent developments in online media technology will cause written communication of the type being considered here to continue to grow. An appropriate response in the field of writing education is needed to create writing students who are digital natives. This study's results can suggest directions for writing education to better understand digital writing and make students digital natives who have a strong sense of their identity as writers.

<Key words>

multiliteracy, new literacy, multimodal text, blog, professional blogger, internet, out of school literacy, literacy sponsors, case study, grounded theory, paradigm model